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JUNE 1985. NO. 195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한세수교
로 회

사
강
의
회
회

과
경이
을 느끼게 합니다
높이 높은 열선반사
로운을 위하여 개발
히 공기조절 설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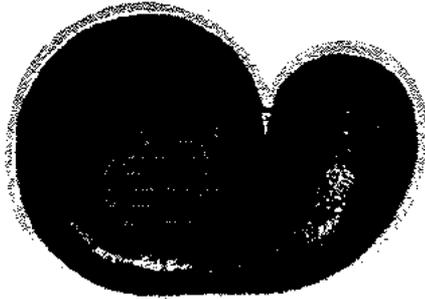
출하는
유 리
STRY CO., LTD

1985. 6

공동주택 및 고층B/D 배수소음의 해결책!

SEXTIA BELL TRAP BALCONY TRAP

SEXTIA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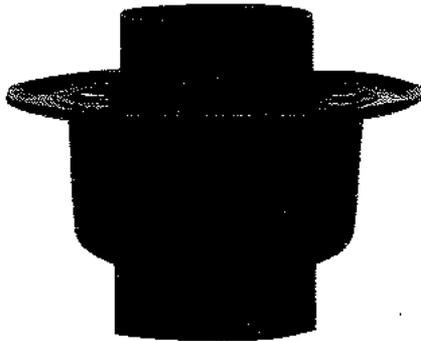
우수성

1. 대폭적인 시공비 절감
2. 시공방법의 간소화
3. 획기적 공기단축
4. 배수음의 정숙
5. 비누거품 분출방지
6. 악취 분출방지

납품실적 : 주택공사외 국내40개 건설회사 APT시공 및 시공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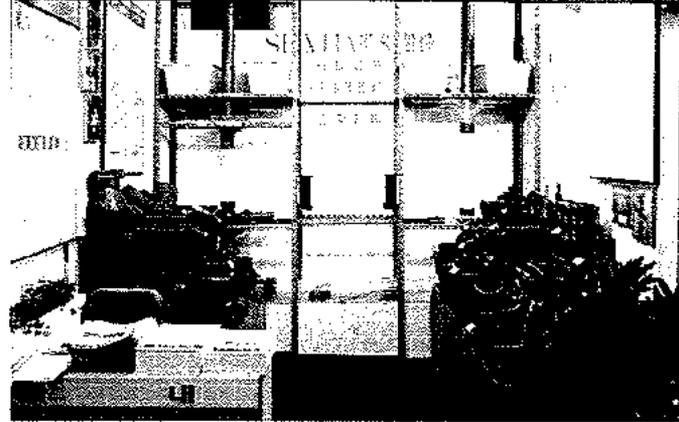
BALCONY-TRAP

신개발품



- 특징 :
1. 정숙한 소음(재래식 85dB에서 65dB로 감소)
 2. 악취분출방지 : 봉수깊이 50%의 트랩이 설치되어 세대내 악취분출방지
 3. 소재용이
 4. 시공방법이 간소화

3 주식회사 시계산업



건설부 주최 제5, 6, 7회 건축자재전시회 출품.
한국건설기술훈련원 상설전시.
국립건설시험소 상설전시.

BELL-TRAP

수용능력의향상



- 특징 :
1. 악취분출방지(봉수깊이 50%)
 2. 배수량 통과면적 大
 3. 배관의 종류별 시공가능(PVC관, 강관, 주철관)
 4. 다양한 망과 칼라(사각, 원형)
 5. 소재용이
 6. 시공의 간소화

수봉의 역할 : 증발, 역류, 악취분출방지(국제규격 50%)



주식
회사

시계산업

본사및공장 : 인천시 동구 송림 6동 20-8

서울事務所 : 서울 · 永登浦区 汝矣島洞 44-35(제일빌딩 1008호)

TEL. 73-6115

TEL. 782-5908~9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 6月 15日 発行

1985.6 NO. 195

目次

發行人 = 吳雄鎬
編輯 = 出版事業部

編纂委員會

- 委員長 李永熙
- 副委員長 金麟
- 委員 姜哲求
- 委員 金琪碩
- 委員 徐千植
- 委員 金基雄
- 委員 呂鴻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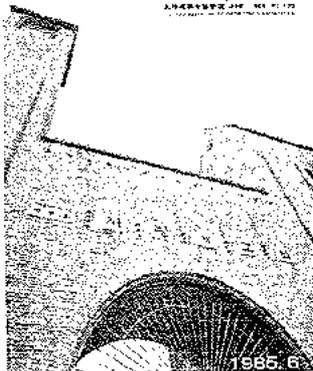
發行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電話 - 서울 (02) 交 581-5711 (代)
5712, 5713, 5714
登錄番號 - 雜刊 - 1251
登錄日字 -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 (054 - 2) : 0612 (519)
印刷人 - 全允珪
(汎文精版社 / 712 - 2329)

建築士憲章

- 建築士는 建築材料 善用人으로서 創造力을發揮하여 建築環境 移轉에 이바지 한다.
-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士精神을 次第로 遂行한다.
- 建築士는 技術開發과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위하여 専門人으로서의 使命을 지닌다.
- 建築士는 知識과 技術을 背景으로 會員 相互間에 協同하여 學術과 品徳을 修養한다.
- 建築士는 精神과 自覺心을 가지고 國運發展에 協力하여 國家와 社會에 獻身的으로 奉獻한다.

大韓建築士協會

建築士



표지설명 : 사람의 교회
설계 : 황일인

회원작품

- 한국증권금융(주) 시옥
윤석우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 제일상호신용금고 논현동지점
임언헌 / 영건축연구소
- 대신·신영증권 시옥
송기덕 / (주)정일엔지니어링
-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학생회관
김인석 / 건축연구소일건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김중업 / 김중업건축연구소
- 대구직할시 종합예술회관
김인호 / 대아건축설계사무소
- 사랑의 교회
황일인 / 건축연구소 일건

회원 Plaza

- 25 • 협회소식
- 26 • 위원회소식
- 27 • 지부소식
- 30 • 支部巡禮 / 江原道支部 篇
- 72 • 일하며 생각하며 / 서울의 디자인 / 강철구
- 73 • / 답장 / 이상돈
- 80 • 신입회원소개
- 81 • 회원동정

연구논문

- 34 • 창조공간의 도전 / 한도룡
- 38 • 외부환경설계 / 최기수
- 42 • 인테리어디자인 / 가구 / 조성렬
- 46 • 수덕사 대웅전 / 장기인
- 54 • 화업사 / 이응묵
- v 74 •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유헌산

자료기타

- 79 • 정화칼럼 / 정화결의대회에 부쳐 / 박순중
- 66 • 이렇게 생각한다 / 서울의 단상 / 유헌규
- 67 • / 도심지의 분위기 / 이건영
- 68 • 탐방 / 건설기술연구원자료실 소개
- 37 • 追悼辭 / 李均相 교수님의 서거를 哀悼함 / 尹張燮
- 82 • 도서신고면적변동추세
- 83 • 시설공사 가격관리자료
- 88 • '85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출품작 공모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5 호
구입년월일	19
대한건축시험회 제주지부	



획일성과 융통성

어떠한 사회조직에서든 형태는 달라하지만 일정한 법과 제도에서 통치이념을 구현한다.

일반적으로 법과 제도는 모든 사회현상을 획일화 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진보된 법의 체계나 운영방식에서는 가급적이면 융통성과 다양성을 가지려 한다.

흔히 획일화의 의미는 독재사회나 사회주의의 통치개념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융통성과 다양성은 자유 민주주의체제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획일화를 요구하는 사회조직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조직 일부가 약화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구성원에게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발전속도는 오히려 둔화된다.

그러나 융통성과 다양성이 부여된 사회조직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이 자유경쟁에 의하여 극대화 되며, 적성에 따라 무한하게 창의력이 개발되어 기여도가 높아지므로 조직전체의 발전속도가 빨라진다. 또한 융통성과 다양성은 여러가지 대안을 갖기 때문에 조직 일부에서 문제가 유발된다 하더라도 대안선택이 용이하며, 전체 질서에 파급되는 영향을 극소화 할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쪽 보다는 다양성이 부여된 쪽으로 진보가 있어야 발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 및 건축에 관계되는 법과 제도는 갈수록 획일 일변도의 경향을 띄는 듯하다. 그 운용에 있어서도 사례의 특수성과 융통성을 가급적 배제하려 하는 경직행정의 추세로 기는듯하다.

「유럽」의 예찬받는 도시들이 어떠한

법과 제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도시의 생명을 변질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것일까?

그들은 몇가지 획일적이어서 하는 부분에서 절대로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은 반면에 융통적이어서 하는 부분에서는 부러울 만큼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지켜온 획일적인 것들은 도시환경의 개념에서 공익적인 요소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시류의 변화에도 그 부분 만큼은 일관성 있게 잘 지켜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파리」의 도심 저층가에 줄지은 개개의 건축물을 따로 떼어서 볼 때에 행인을 매료시킬 만큼 독특하거나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성이 강하고 조형적이며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건물들은 신 시가지의 고층 빌딩가에 훨씬 즐비하다. 그러나 「프랑스」 인들은 저층가의 가로 분위기를 더욱 사랑하며 자랑으로 삼는다. 관광객 역시 저층가 「상제리제」에서 「프랑스」 다음을 체험한다.

「스카이라인」을 오랫동안 고수하여온 그들의 값진 노력에 누구나 찬사를 보내게 된다. 도시의 질서를 고집해온 그들의 인내에 존경심마저도 우러난다.

융통성이 부여된 부분에서는 최대한 작가의 조형의지를 다양하게 존중하고 있는 점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그토록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융통성을 부여 하면서도 개성있는 도시를 기꾸어 나갈수 있는때는 합리적인 심의제도의 운영방식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건축허가는 전문화된 여러 분야의 심의과정 때문에 1년 이상씩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심의기구는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며, 편견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 유도하는 심의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우리의 수도 서울은 그토록 획일적으로 지켜야할 관계법령과 제도를 수없이 만들고 고쳐왔는데도 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해마다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연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시류의 변화가 있을 때마

다 꼭 지켜졌어야 할 것들을 너무 쉽게 바꾸고, 포기해버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하늘을 어지럽히는데.. 선봉적이었던 고층 건물군이 관 청사들이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도심의 인구소산 정책에 고심하면서도 대형 관광 「호텔」과 대형 백화점은 끊임없이 도시에 유치하고 있다.

반대로 융통성이나 탄력성이 주어져야 마땅한 부분까지도 법과 제도를 획일화하여 오히려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예가 허다하다. 예외없이 구속받는 일조권과 미관지구에서의 일률적인 조례적용이 그 본보기 이다.

우리에게도 여러종류의 전문화된 심의 기구가 있다. 그러나 그 구성요건과 권한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요원구성에는 학술전문가 이외에 실무전문가도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한다. 현행 법상 대학교수를 포함하여 학술전문가는 실무검적이 불가능하므로 편견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편견에 있어서 자문기능과 법 이상의 규제기능을 가질수 있다면 사례에 부합한 법을 완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운영방법은 수 십건의 심의안건을 수 시간내에 처리하는 피상적인 심의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심의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분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꾀하려는 이유는 파생될지도 모르는 역기능을 우려해서인듯 하다. 역기능을 배제하는 방안은 별개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심의제도의 발전적인 기능보완이 이루어져야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와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습관적으로 행정이 편리한 쪽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인듯 하다. 편한 쪽이 있으면 어렵고 피로운 쪽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 같다.

빨리 가기 위해 바른길을 포기해서도 안된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여야 밝은 장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김 린
가전 건축연구소·소장
본지편찬위원회부위원장

회 원 작 품

한국증권금융 (주) 사옥
KOREA SECURITIES FINANCE CO.

윤 석 우
종합건축설계사무소

제일상호신용금고 논현동지점
THE FIRST MUTUAL SAVINGS &
FINANCE CO., LTD. BRANCH OF NONHYON-DONG

임 언 현
영 건 건축연구소

대신·신영증권 사옥
DAI SHIN, SHIN YUNG SECURITIES CO., LTD.

송 기 덕
(주)정일엔지니어링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학생회관
STUDENT HALL, KYONG-JU COLLEGE,
DONG-GUK UNIVERSITY

김 언 석
건축연구소 일컨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KYUNG-SANG-NAM-DO CULTURE & ART CENTER

김 중 업
김중업건축연구소

대구직할시 종합예술회관
DAI-GU CITY COMPOSITE ART CENTER

김 언 호
대이건축설계사무소

사랑의 교회
THE CHURCH OF LOVE

황 언 언
건축연구소 일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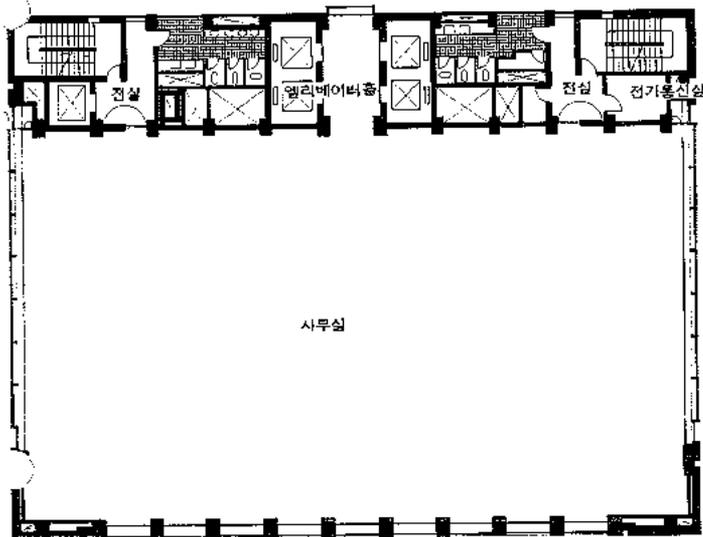
한국증권금융 (주) 사옥

KOREA SECURTIES FINANCE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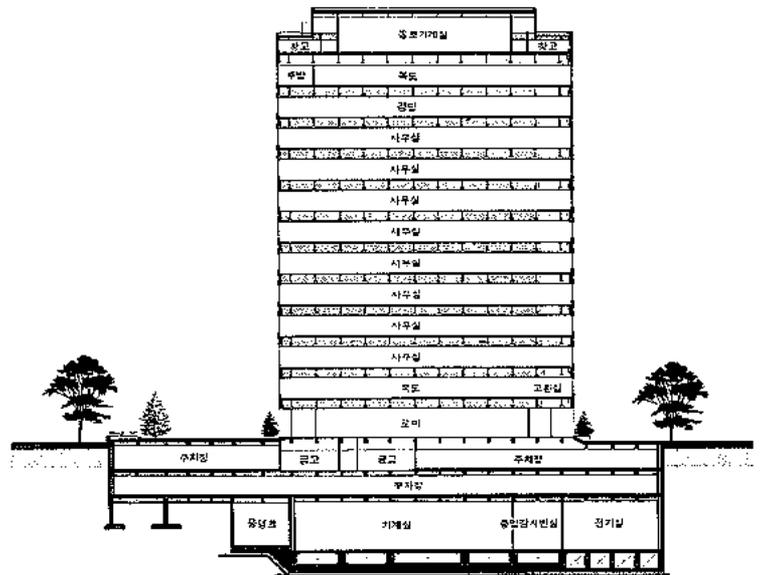
윤석우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 대 지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 대 지 면 적 : 2,601㎡
- 건 축 면 적 : 990㎡
- 연 면 적 : 11,945㎡
- 구 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외부 마감재 : 화강석 울갈기 박판붙이기
PC 판위 지점색 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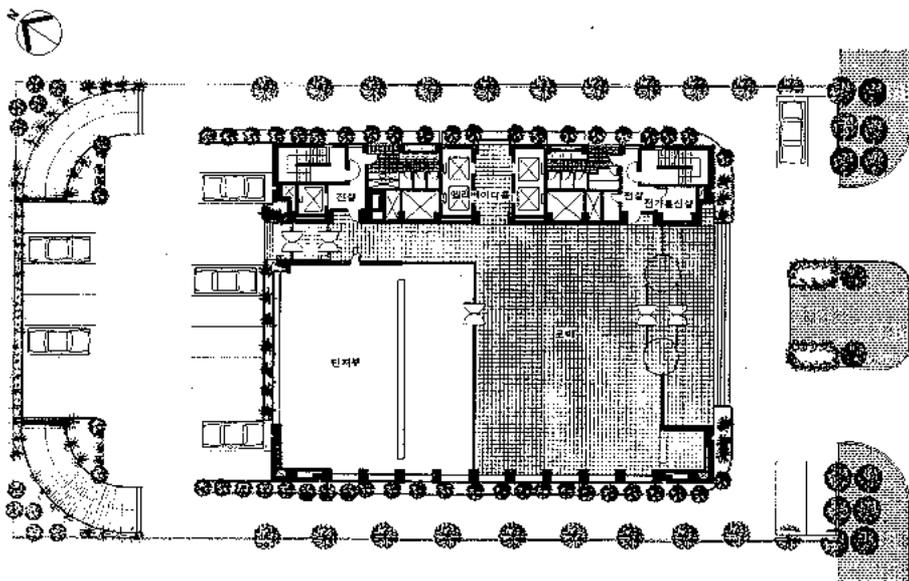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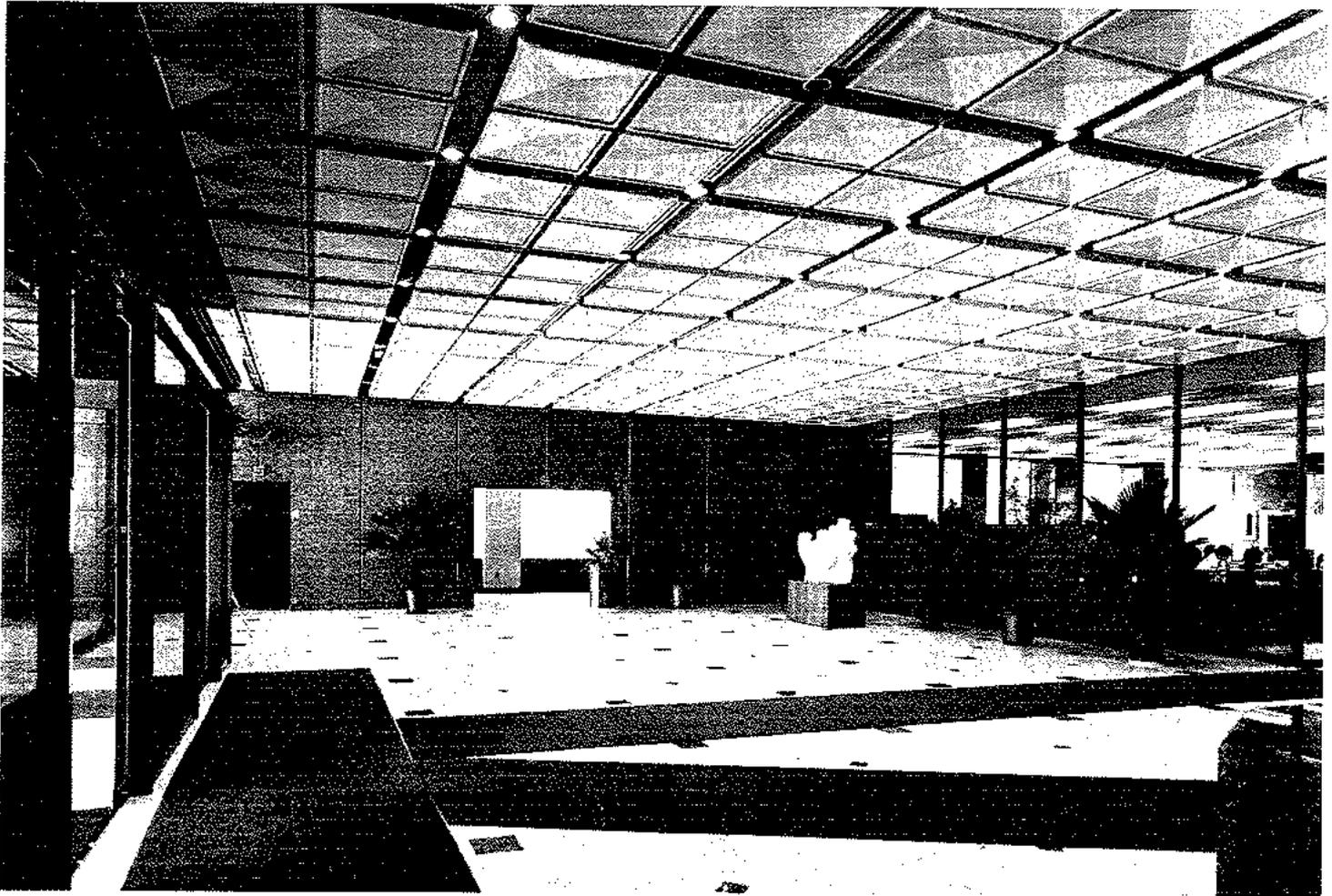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주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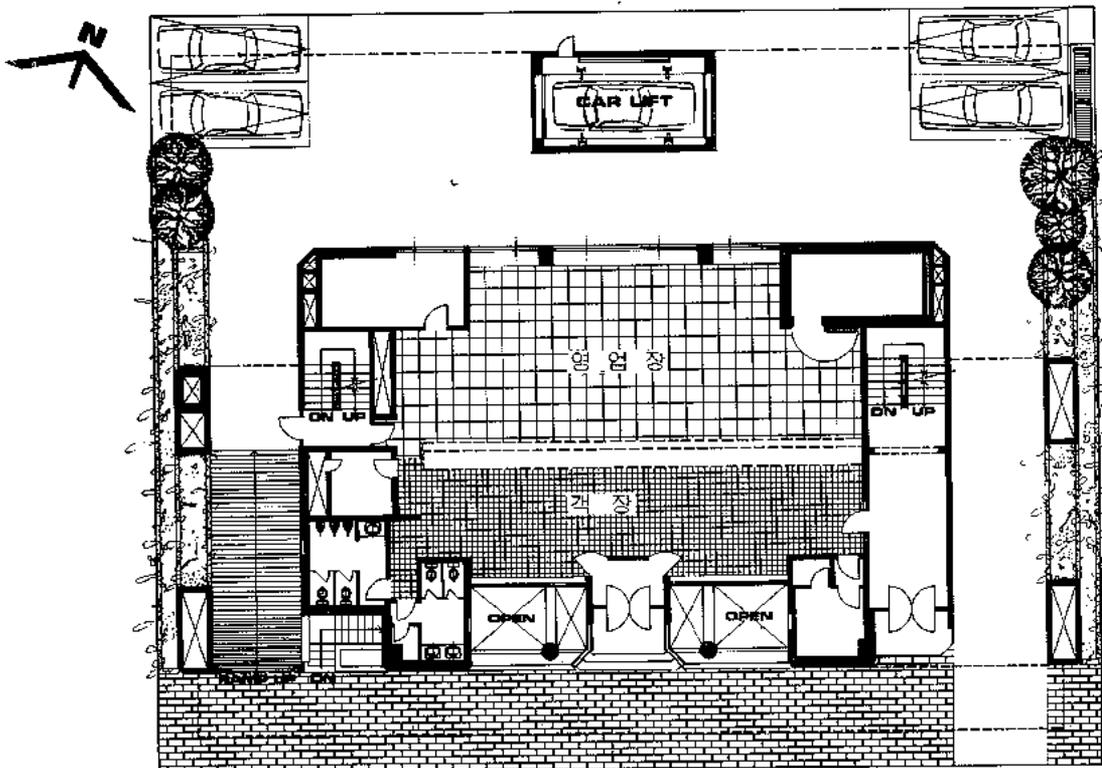


제일상호신용금고 논현동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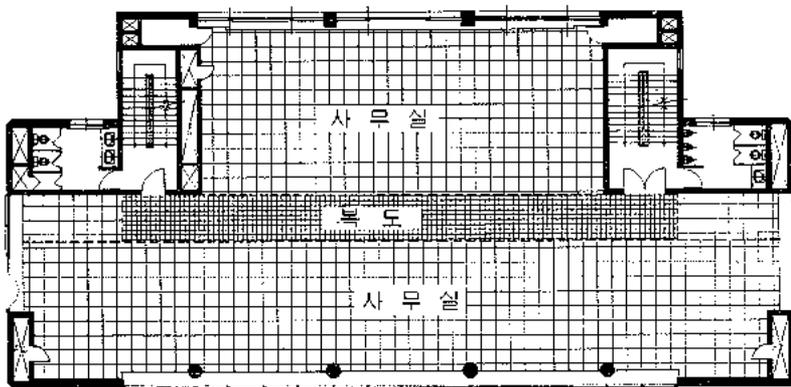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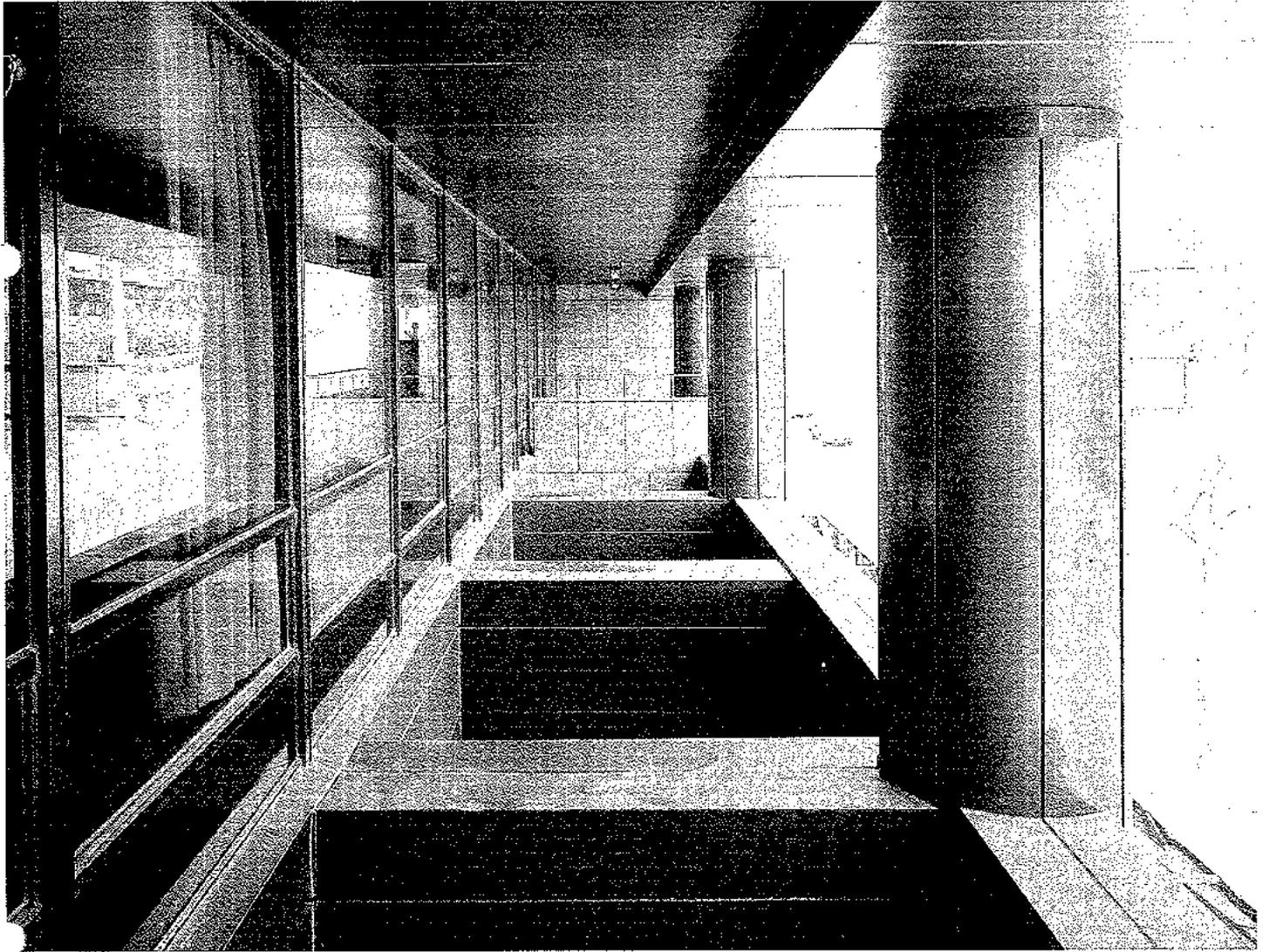
THE FIRST MUTUAL SAVINGS & FINANCE CO., LTD.
BRANCH OF NONHYON-DONG

임언현 / 영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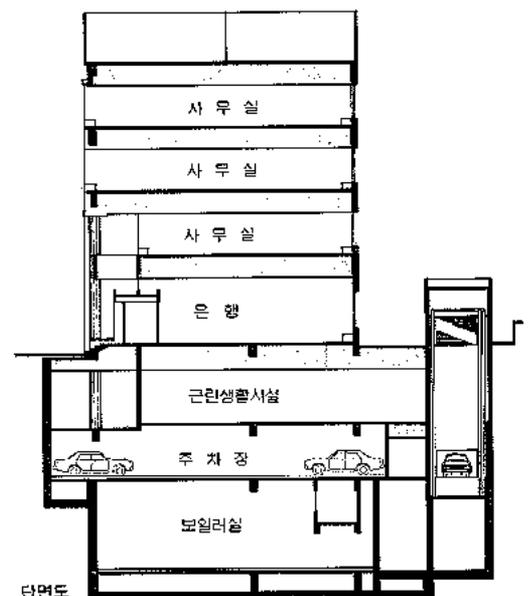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
- 대지면적 : 1,034.2㎡
- 연면적 : 4,055.19㎡
- 건폐율 : 49.57%
- 용적율 : 176.94%
- 규모 : 지하3층, 지상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장재료 : 화강석 및 타일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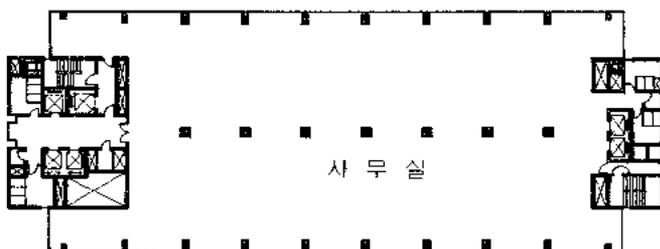
단면도

대신·신영증권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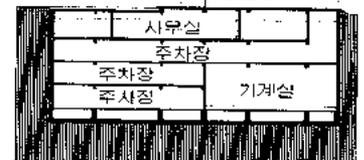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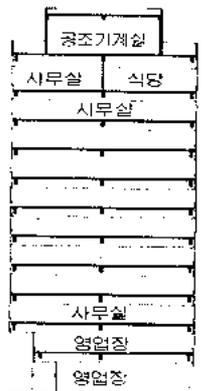
DAI SHIN, SHIN YUNG. SECURITIES CO., LTD.

송기덕 / (주)정일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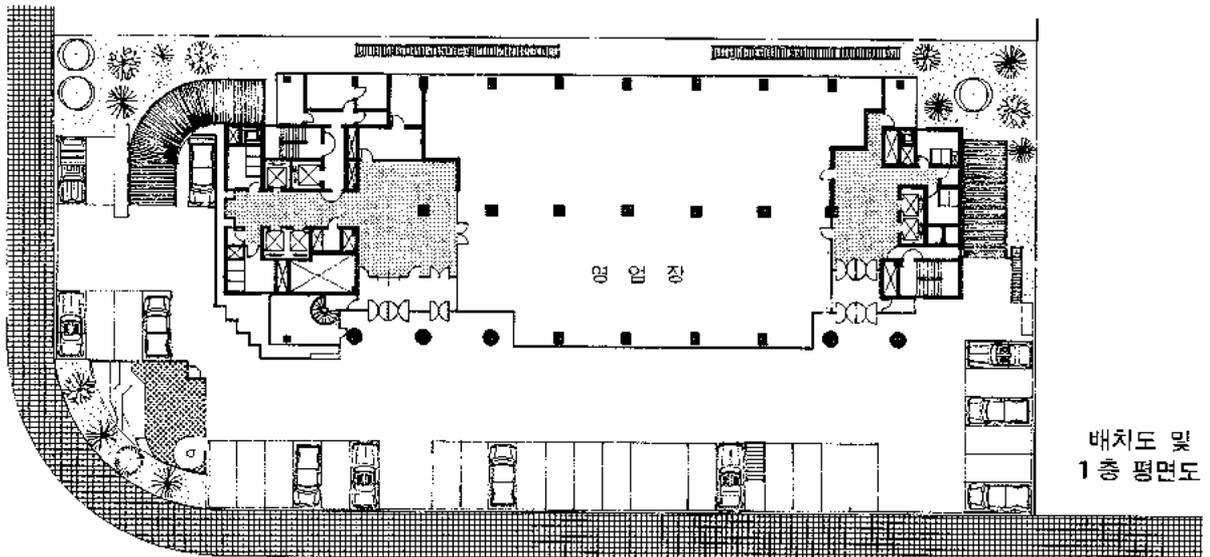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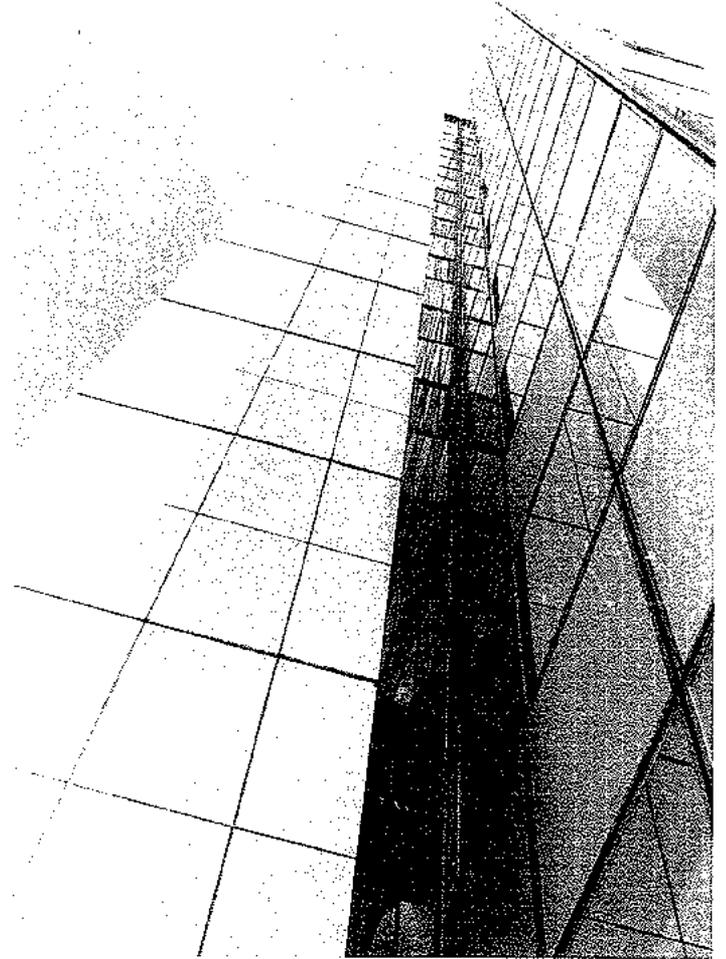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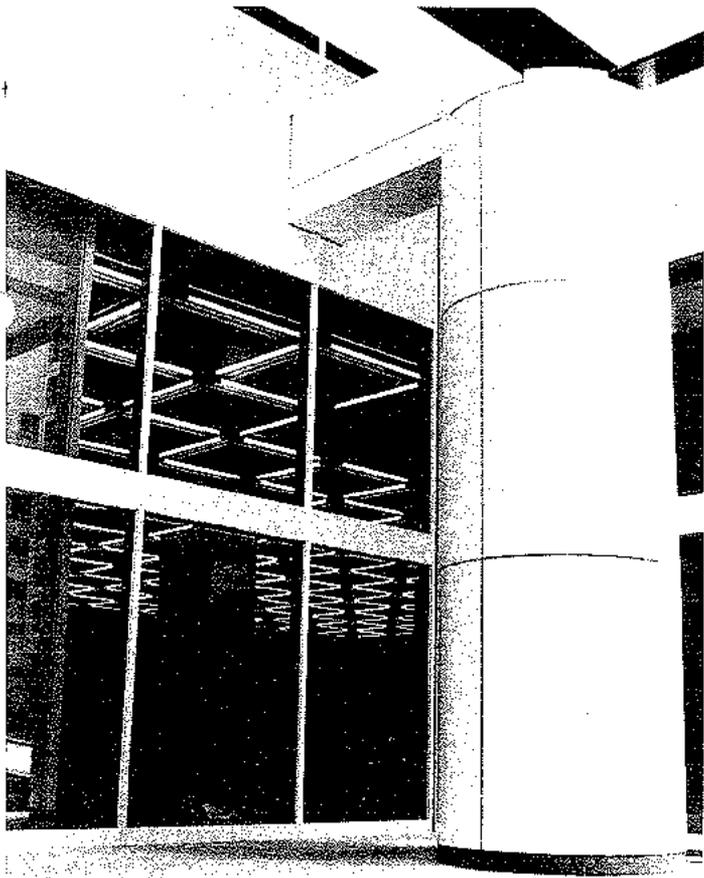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대지면적 : 3,602㎡
- 건축면적 : 1,497.7㎡
- 연 면 적 : 26,526.26㎡
- 규 모 : 지하4층, 지상12층
- 구 조 : 질골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외장재 : 법링 CURTAIN WALL



기준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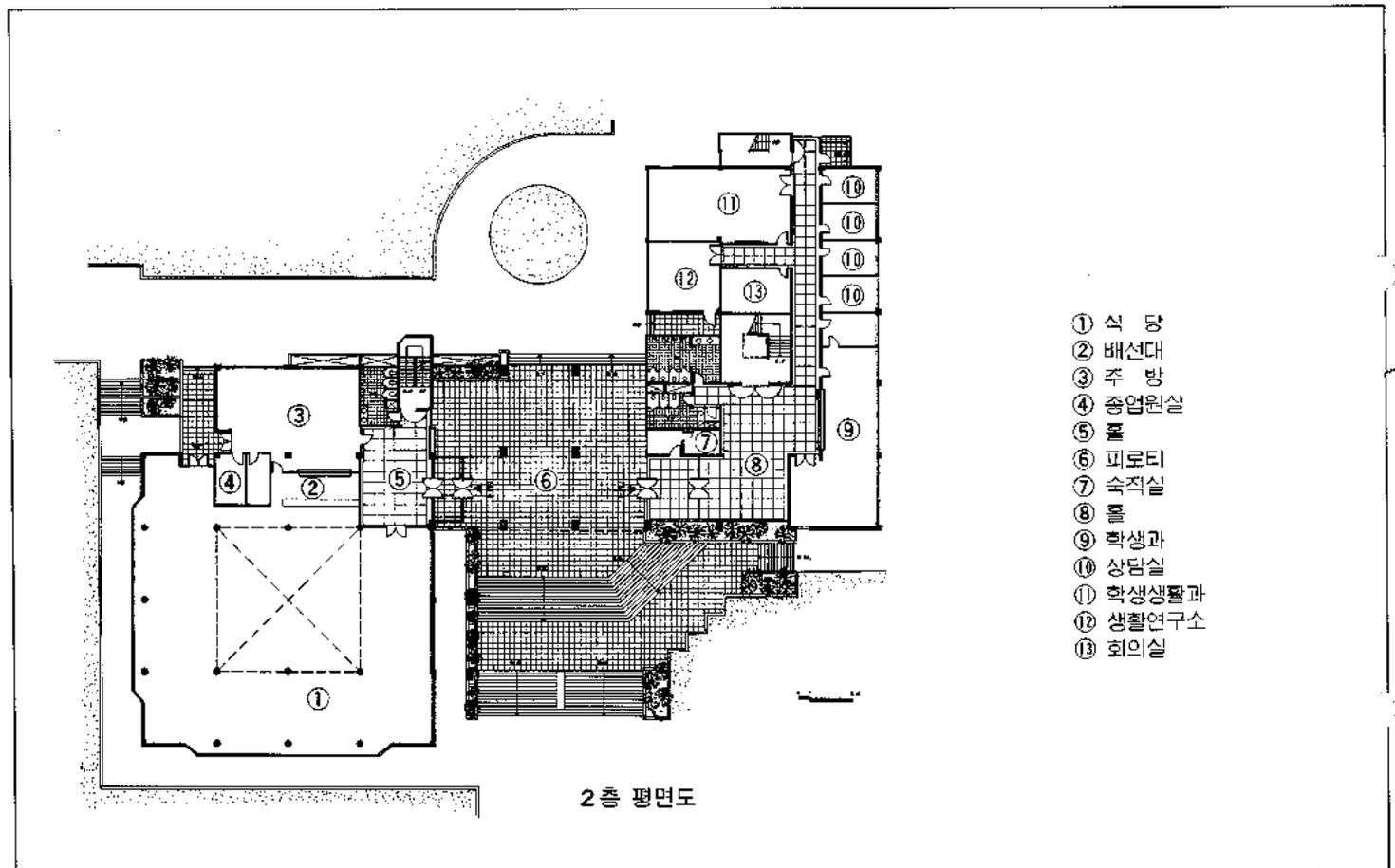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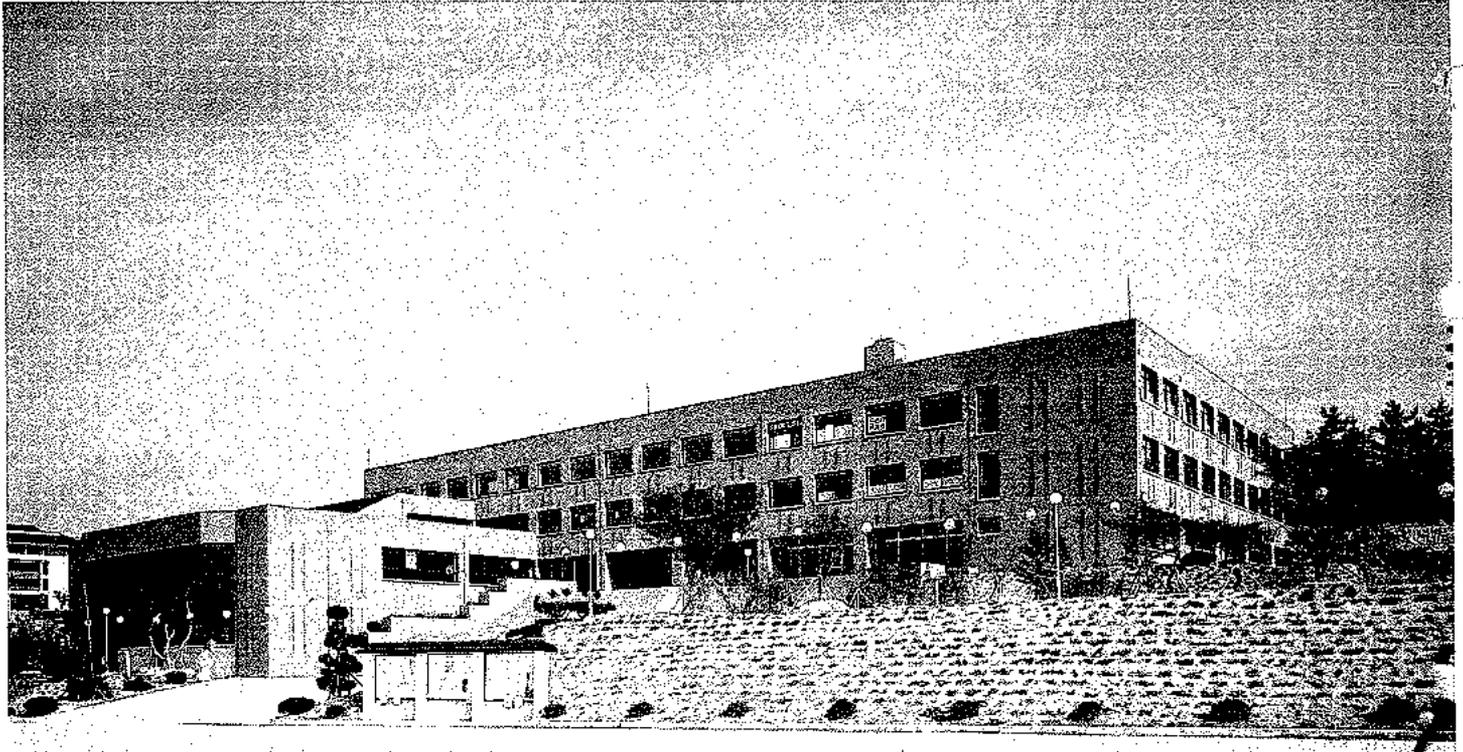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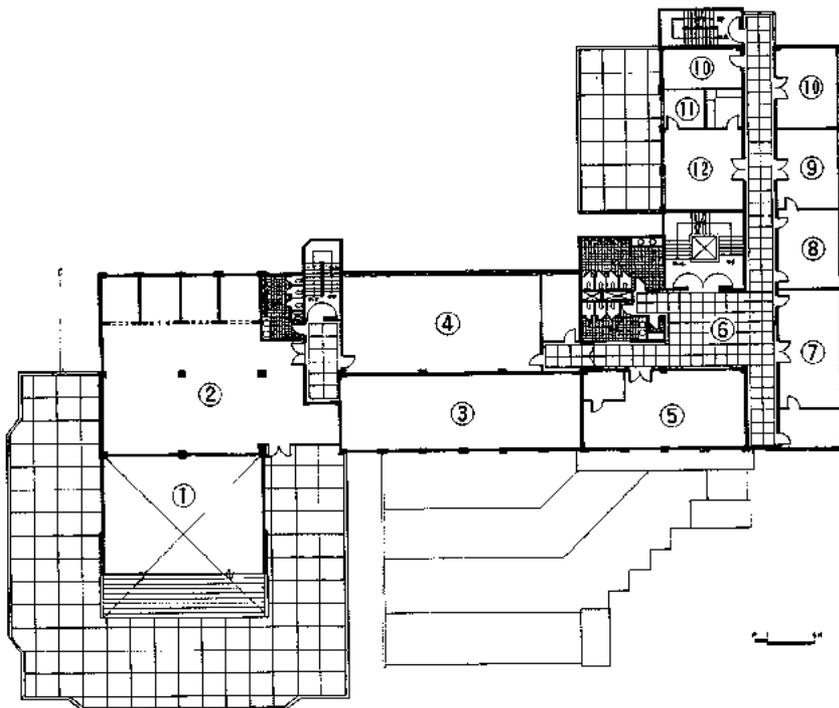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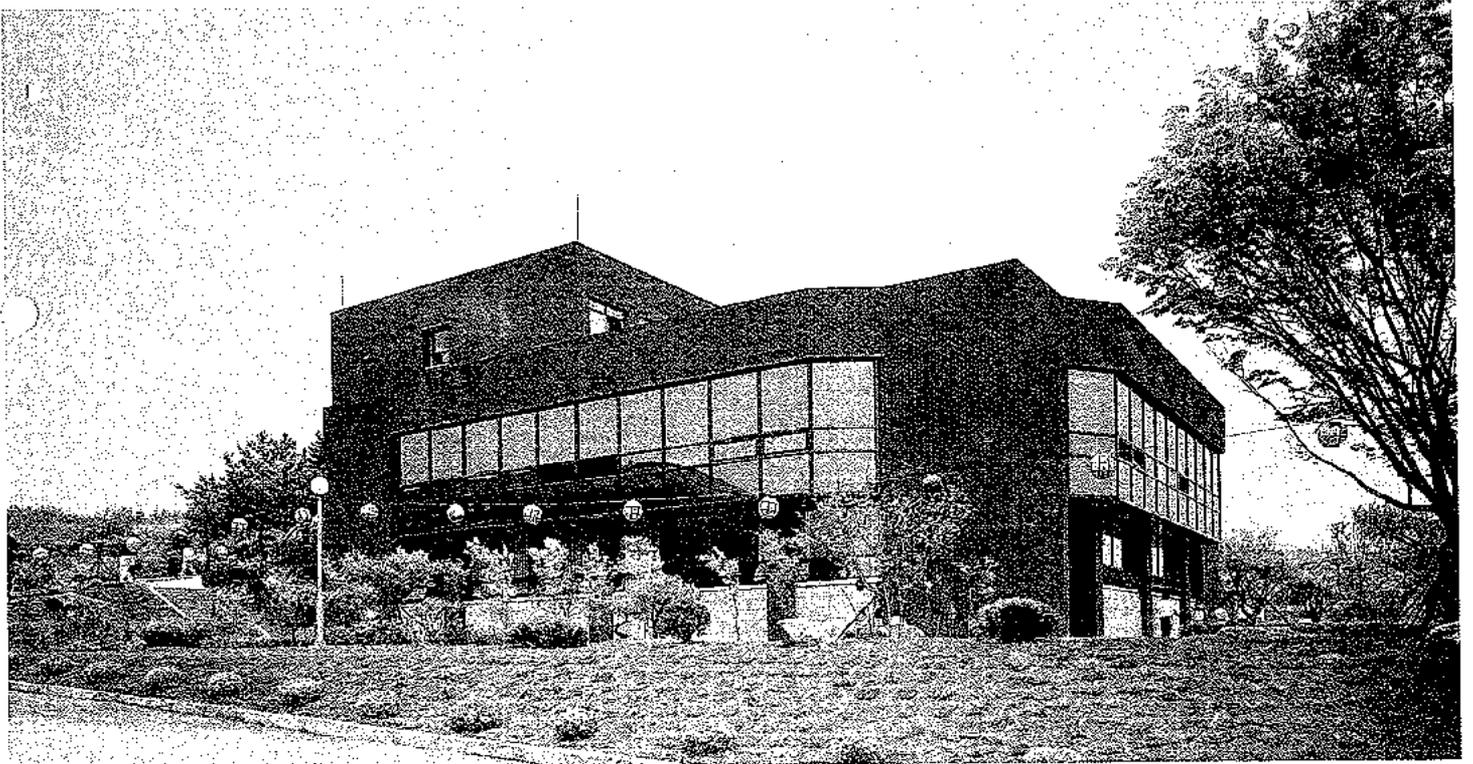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학생회관

STUDENT HALL, KYONG-JU COLLEGE, DONG-GUK UNIVERSITY

김인석 / 건축연구소 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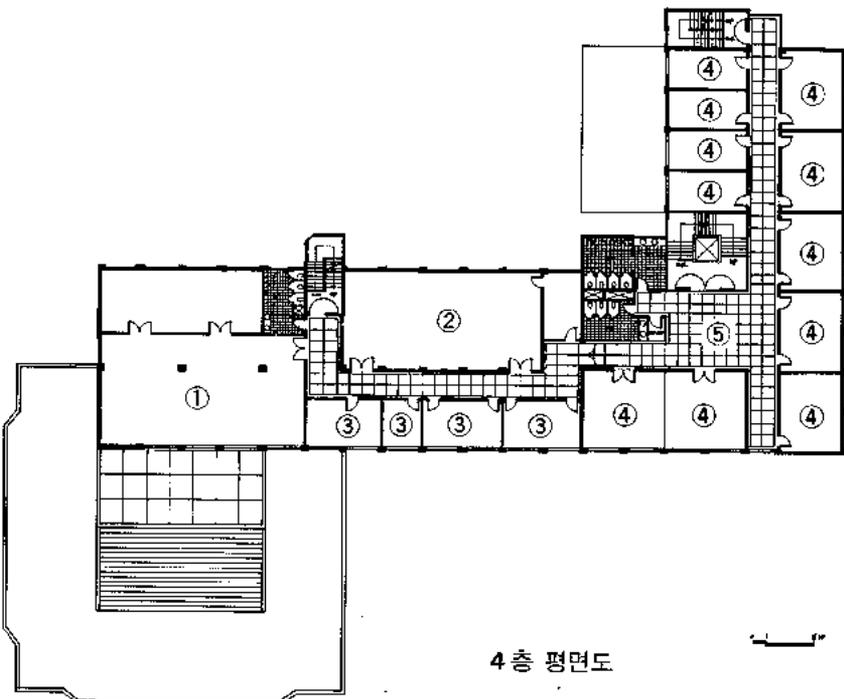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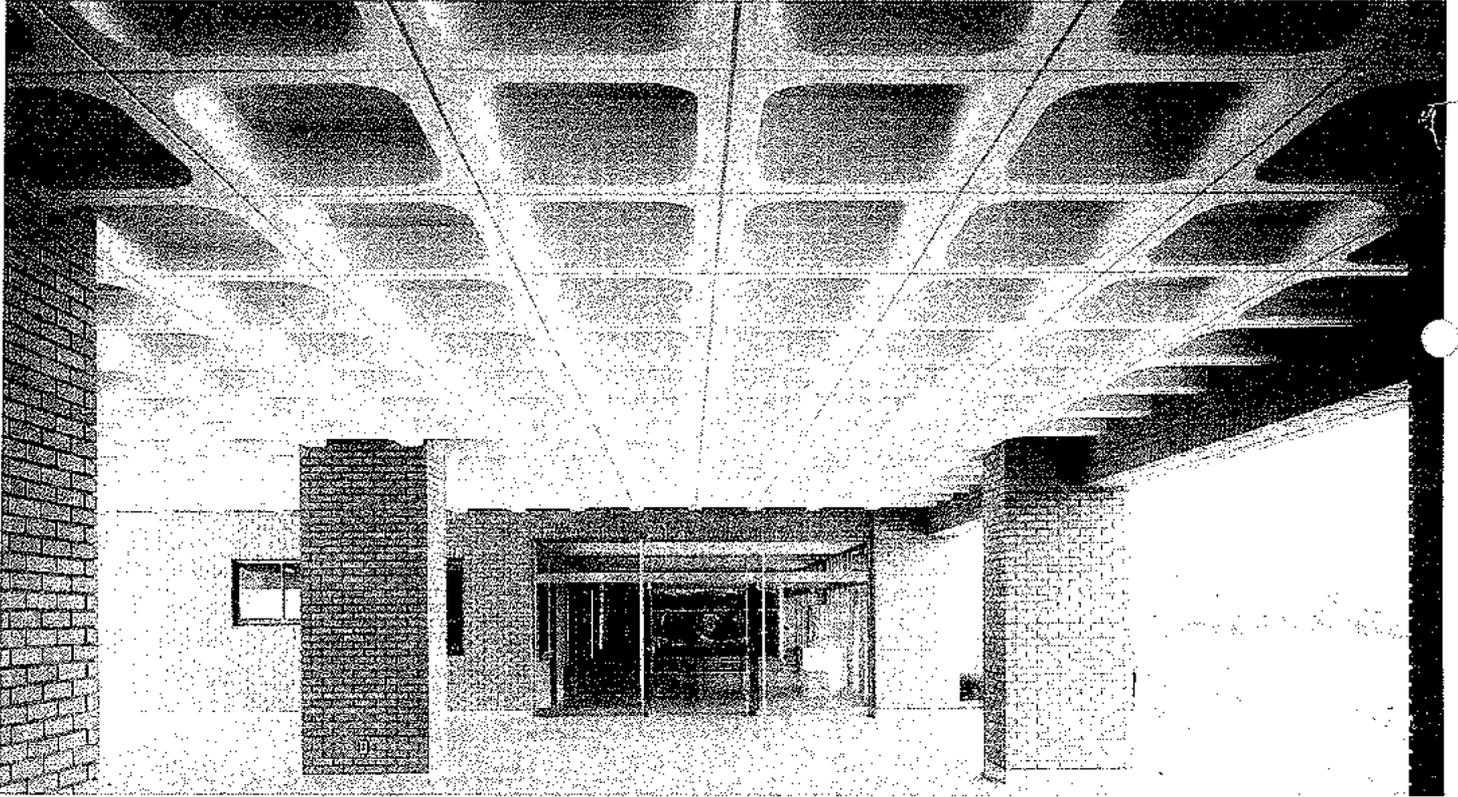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북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
- 대지면적 : 201,776㎡
- 건축면적 : 1,638.72㎡
- 연 면 적 : 5,346.08㎡
- 규 모 : 지상 4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외장재 : 붉은벽돌지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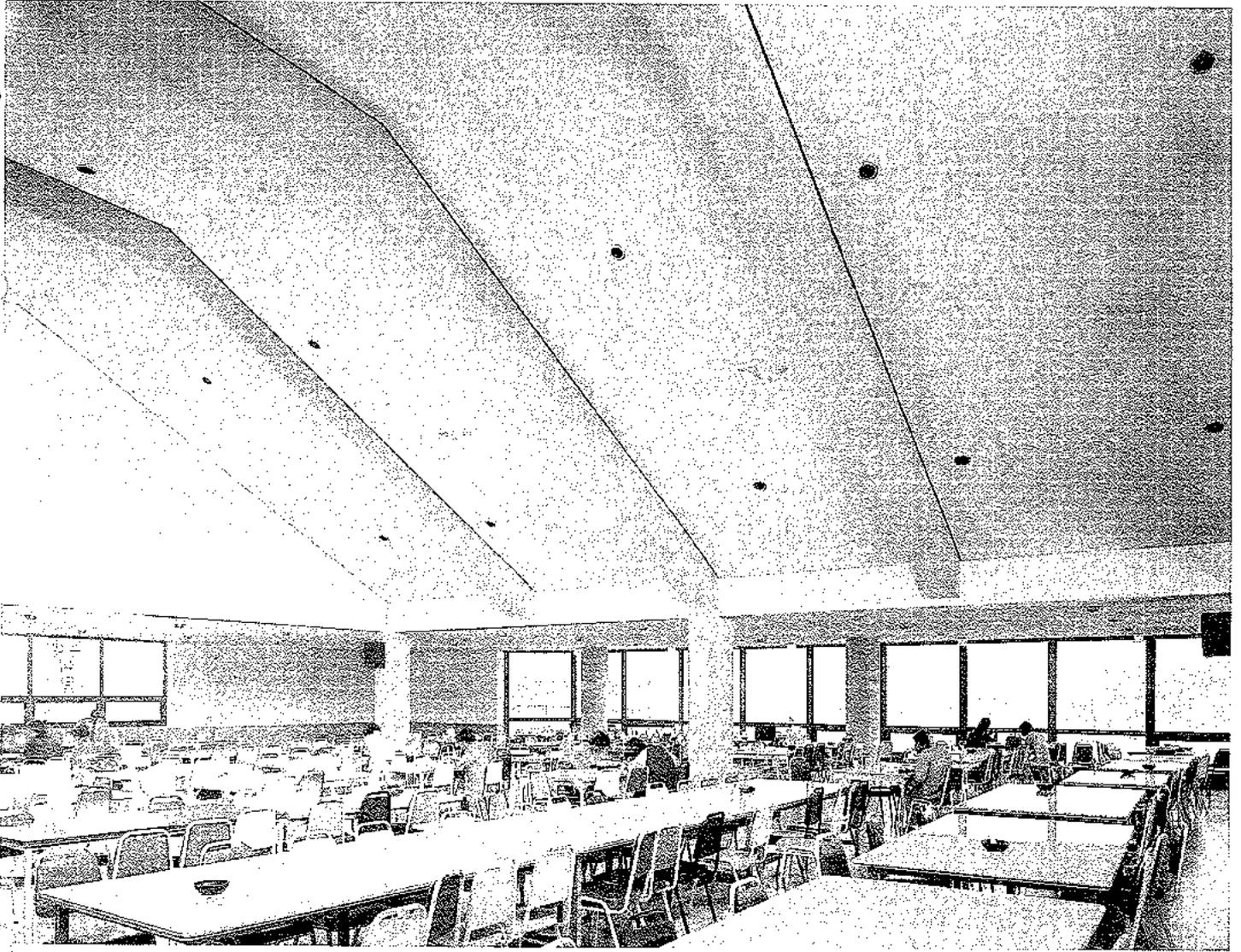
- ① 식당상부
- ② 남학생 휴게실
- ③ 회의실 및 전시실
- ④ 음악감상실
- ⑤ 서점
- ⑥ 홀
- ⑦ 학생회 사무실
- ⑧ 방송실
- ⑨ 방송사무실
- ⑩ 지도교수실
- ⑪ 부속실
- ⑫ 신문사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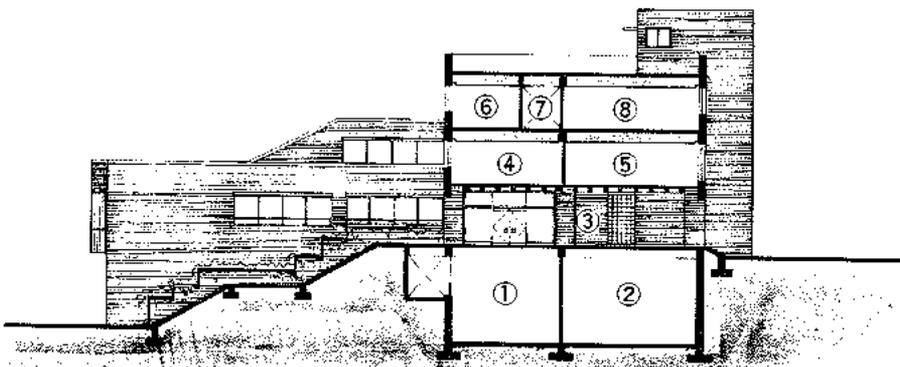


- ① 여학생 휴게실
- ② 회의실
- ③ 학생인원상
- ④ 씨름실
- ⑤ 홀

4층 평면도



학생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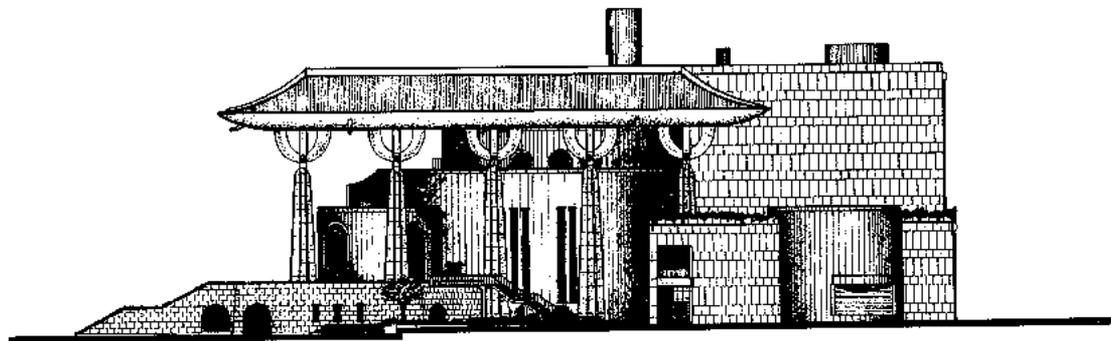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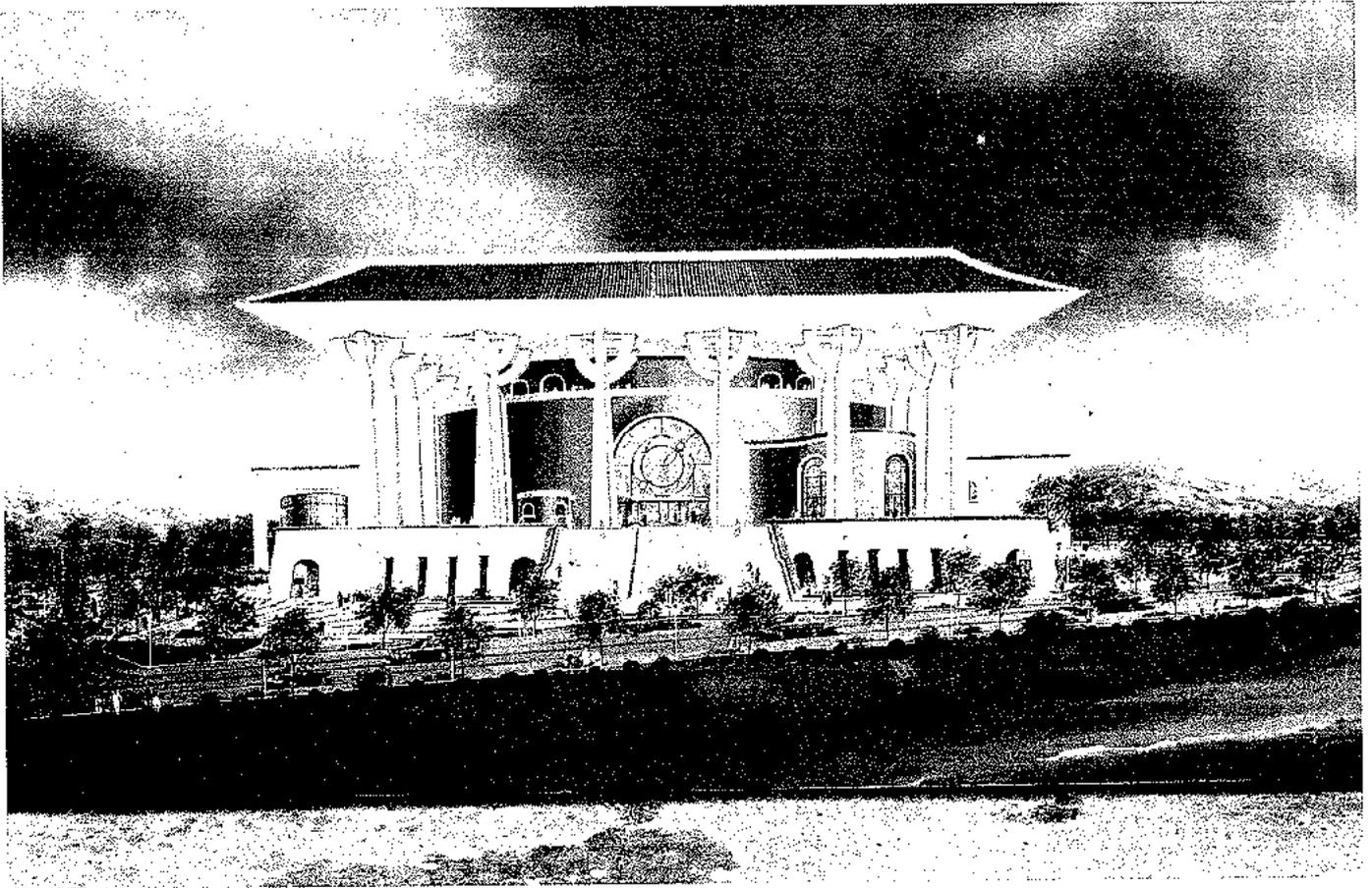
- ① 전기실
- ② 기계실
- ③ 파로티
- ④ 회의실·전시실
- ⑤ 음악김상실
- ⑥ 위원실
- ⑦ 복도
- ⑧ 옥외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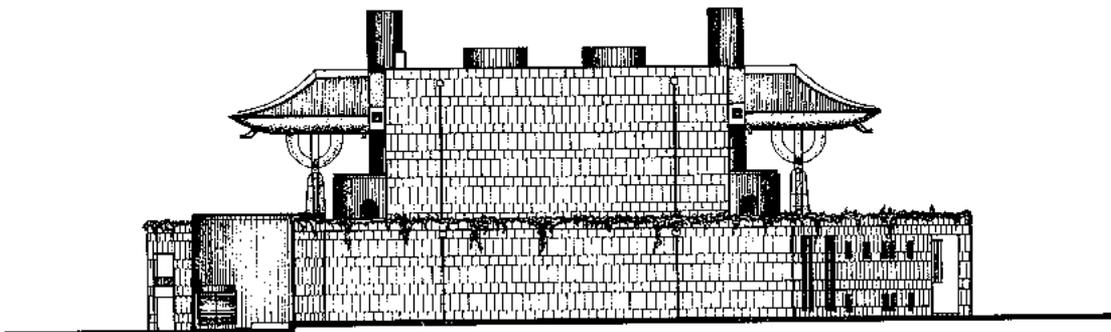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김중업 / 김중업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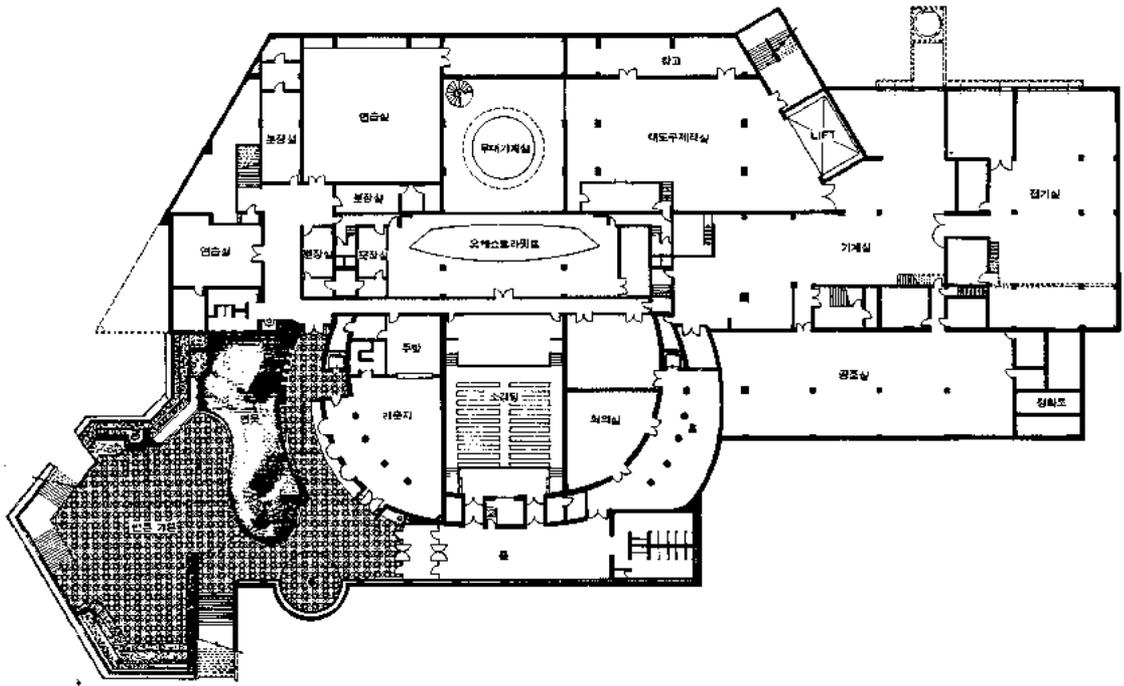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500 - 16 (남강변)
- 대지면적 : 12,295㎡
- 건축면적 : 6,086㎡
- 연면적 : 11,983㎡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마감재 : 화강석 및 삼각전타일 마감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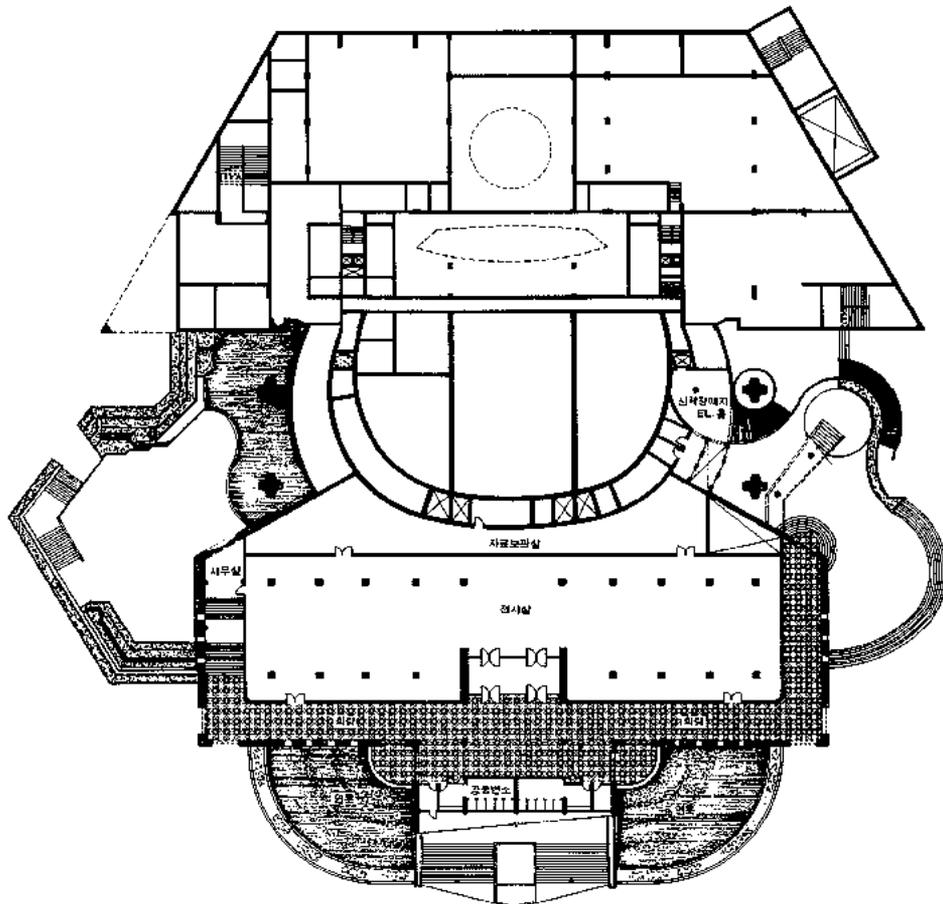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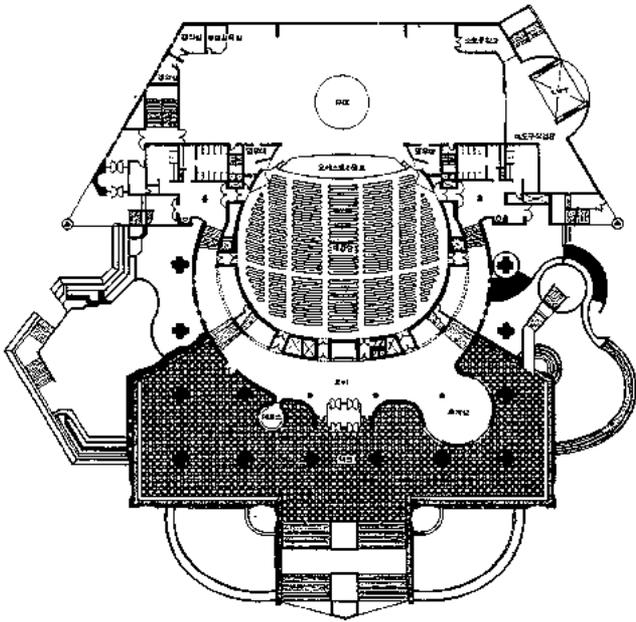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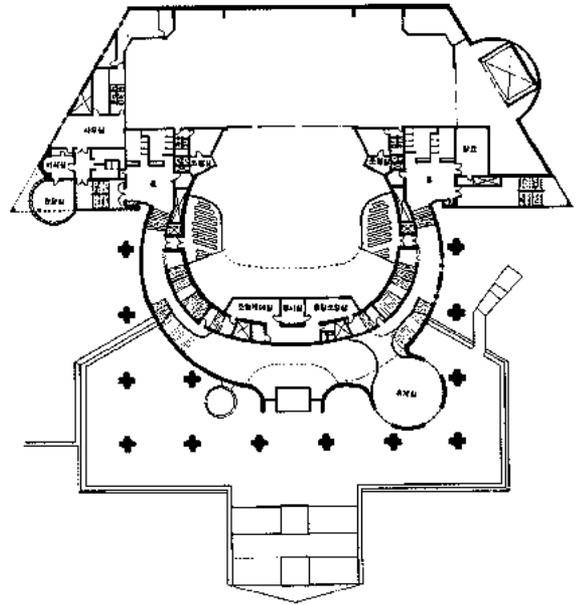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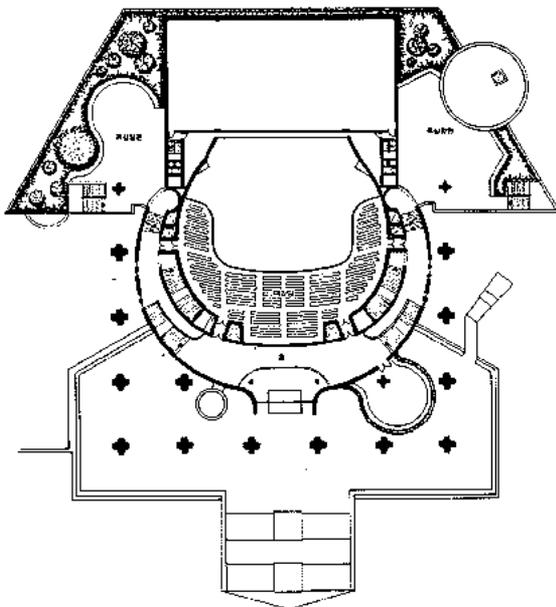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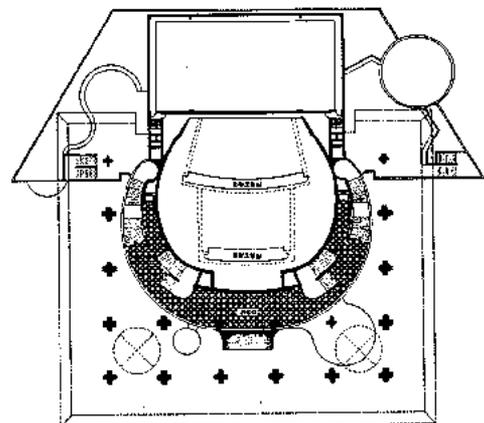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중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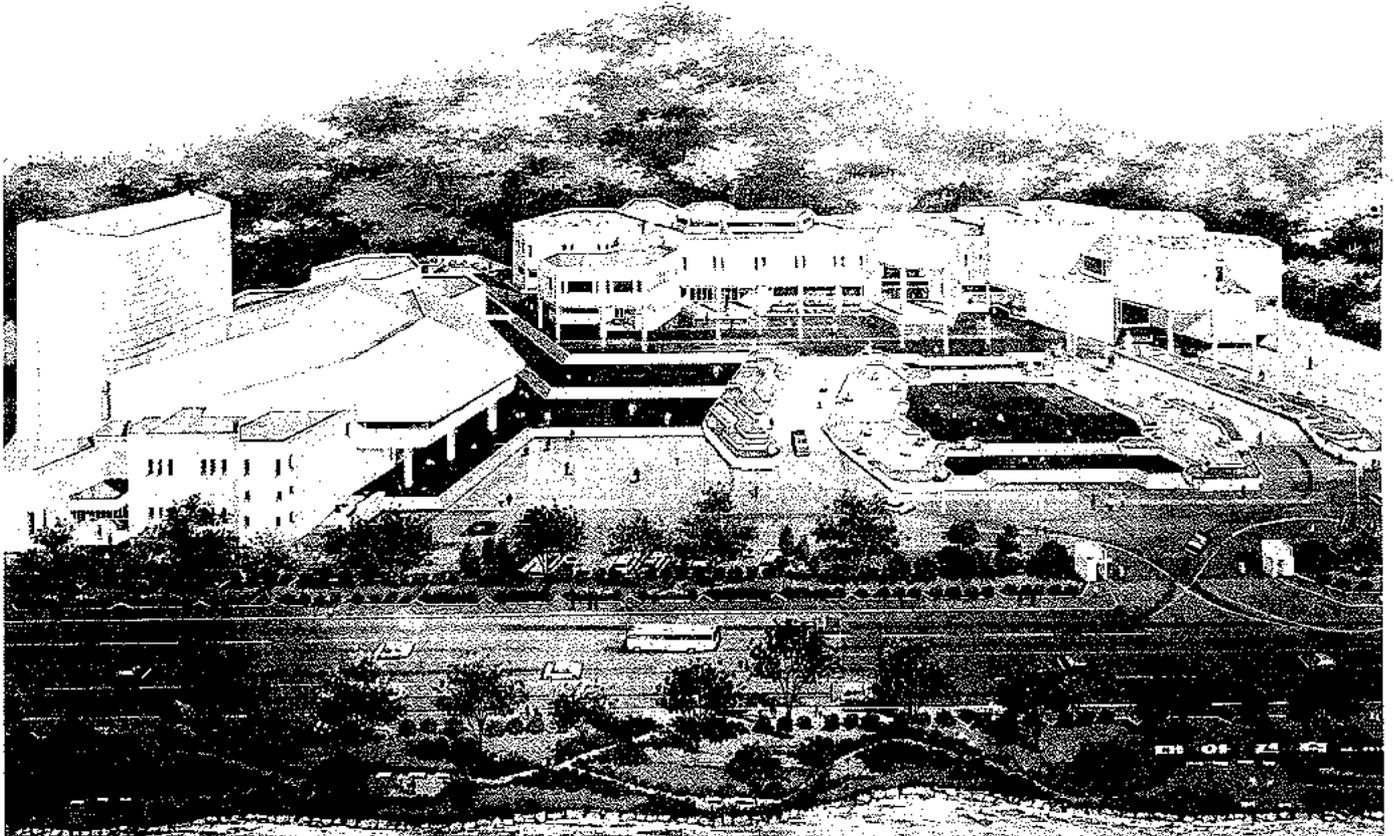


전망대층 평면도

대구직할시종합문화예술회관

김인호 / 대아건축설계사무소

- 대지위치 : 대구직할시 남구 성당동 두류공원
- 대지면적 : 20,000평
- 전체연면적 : 5,769평
 - 1) 전시장동 : 3,999.5평
 - 2) 공연장동 : 1,769.5평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 용도별수용인원 : 1) 대 강 당 : 1,200석
 - 2) 소 강 당 : 400석
 - 3) 국제회의장 : 200석



계획목표 및 계획원칙

1. 계획 목표

- 1)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갖는 상징성 부여
- 2) 향토 전통과 문물을 교육·전승시키는 교육장으로서의 기능
- 3) 대구직할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지전체의 공원화

2. 계획의 원칙

- 1)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써 상징화
- 2)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관계유지
- 3) 공간의 성장과 경제성 고려
- 4)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유도 공간 부여

의장계획

1. 전체 의장개념

한국 고유의 문양과 전통건축양식에서 추출한 육각형태를 그 기본으로 하여 입체적으로 구성, 모퉁화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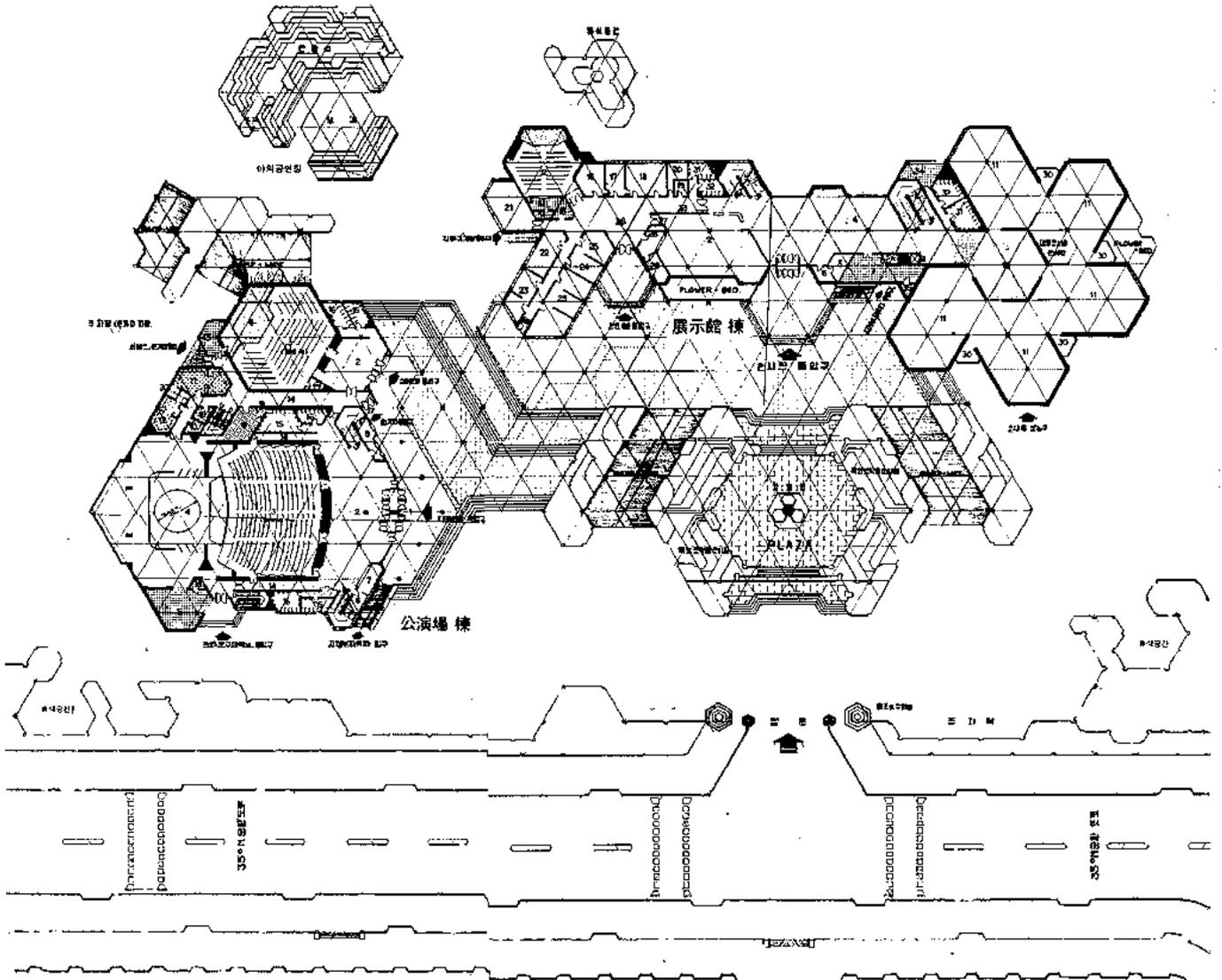
2. 의장요소

(육각모듈의 철학)

- 1) 인간 = 남(△) + 여(▽) = 인간적인 공간(⊗)
- 2) 육근 = 안, 이, 비, 설, 신, 의
- 3) 별집 = 육각의 연속(생물주거의 이상적 공간)
- 4) 연필 = 육면체(감각의 표현공간)

3. 의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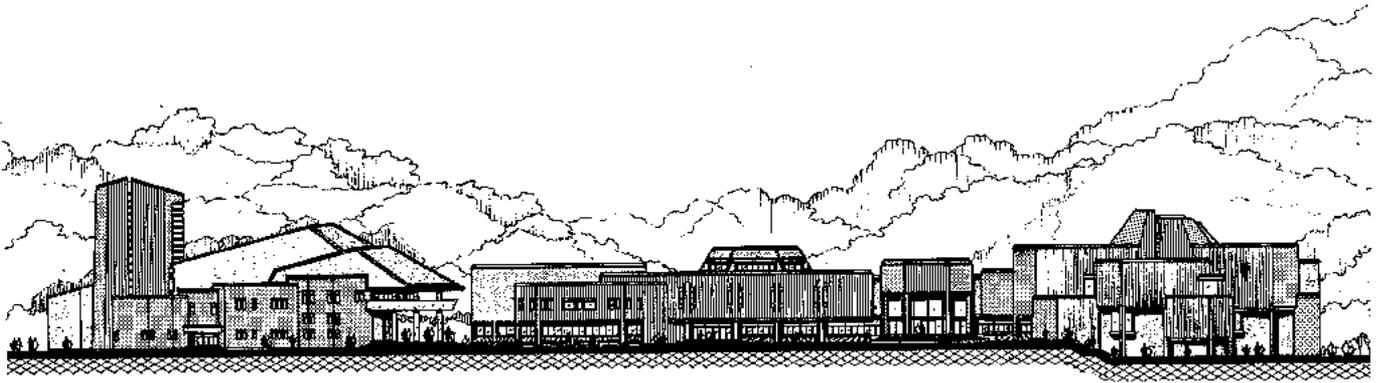
- 1) (공연장동 의장개념) = 지붕과 외부의장은 승무에서 사용하는 감사고깔의 우아한 선과 면을 조형화 했다.
- 2) (전시관동 의장개념) = 지붕은 농악에서 사용하는 상모의 형태를 도입했으며 대구시화인 목련의 꽃잎과 화심을 조형화하여 문화도시인 대구를 상징했다.
- 3) (광장 화단 의장개념) : 한국 전통문양인 아리랑 곡선으로 처리하여 활기찬 대구시민의 긍지를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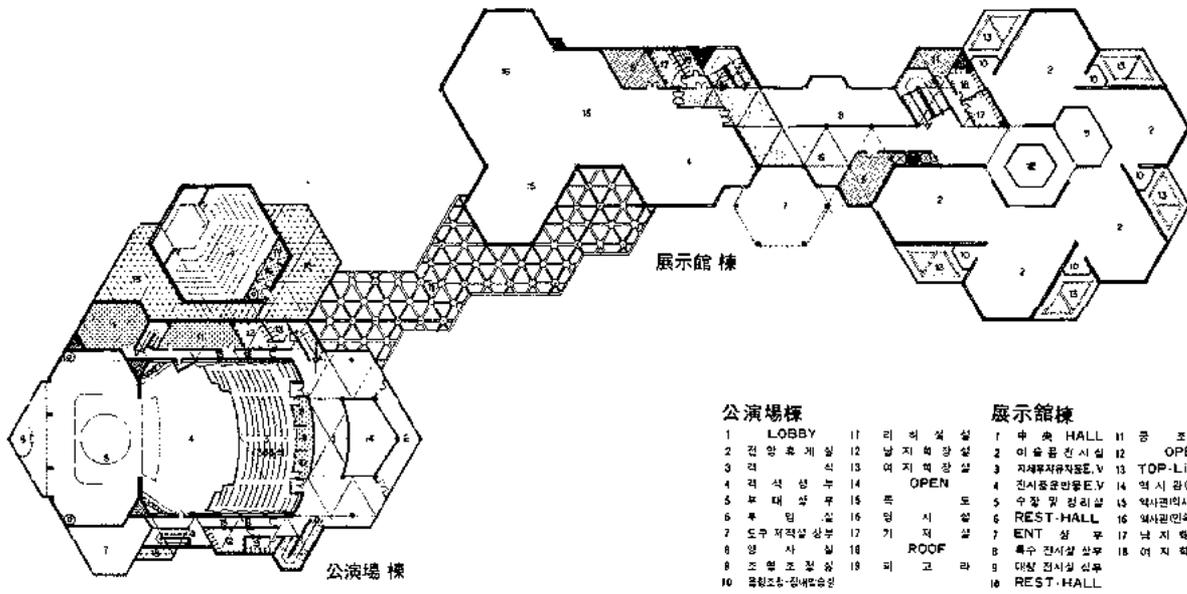
- 공연장棟**
- 1 MAIN-ENT
 - 2 LOBBY
 - 3 복도
 - 4 수납실
 - 5 대도구제작실
 - 6 매입실
 - 7 장비실
 - 8 매입실 2층
 - 9 귀빈실
 - 10 복도
 - 11 방수구
 - 12 여지공정실
 - 13 소도구제작실
 - 14 복도
 - 15 방화장실
 - 16 여지공정실
 - 17 휴반실

- 전시관棟**
- 1 MAIN-ENT
 - 2 식당 및 다방
 - 3 LOBBY
 - 4 접수실
 - 5 수납실
 - 6 전이실
 - 7 수납실
 - 8 전시로
 - 9 지시로
 - 10 동정수계실
 - 11 미술공작실
 - 12 비회실
 - 13 사무실
 - 14 기차보고
 - 15 상고
 - 16 관공
 - 17 관공
 - 18 관공
 - 19 세원관리실
 - 20 관공
 - 21 여공수납실
 - 22 계보실
 - 23 관리실
 - 24 미술사무실
 - 25 여공수납실
 - 26 HALL
 - 27 키문
 - 28 주차장
 - 29 식음실
 - 30 REST-HALL
 - 31 방화장실
 - 32 여지공정실
 - 33 복도
 - 34 방수구
 - 35 방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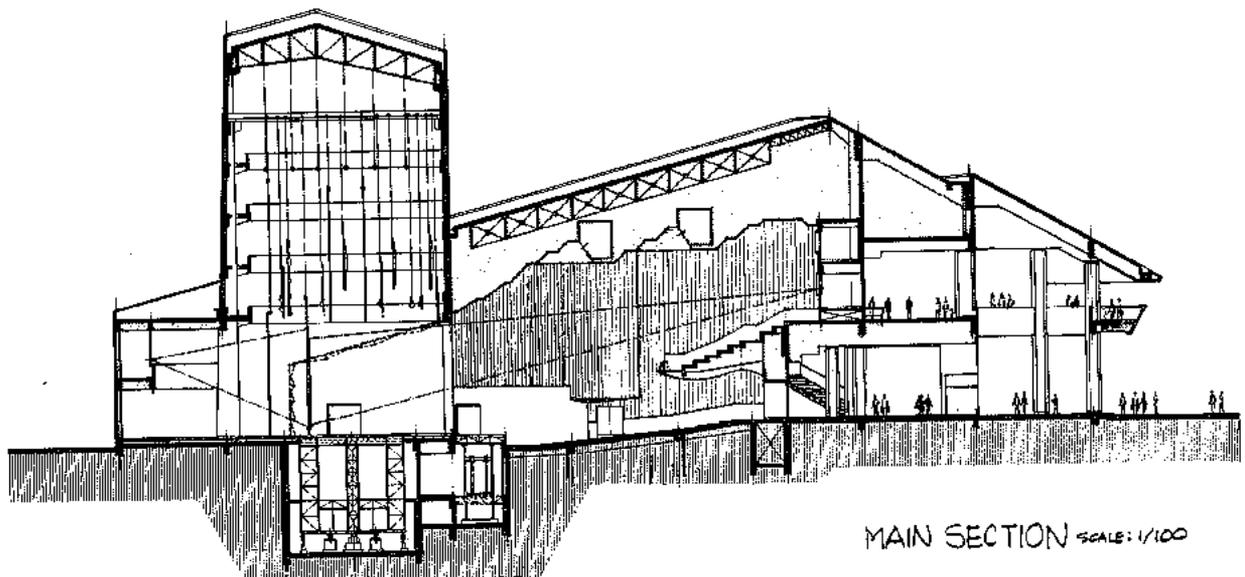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



2층평면도



MAIN SECTION SCALE: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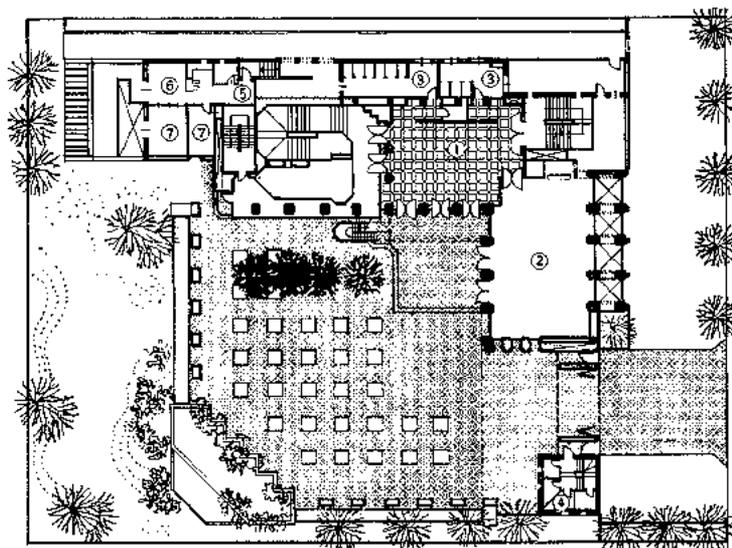
주단면도

사랑의 교회

THE CHURCH OF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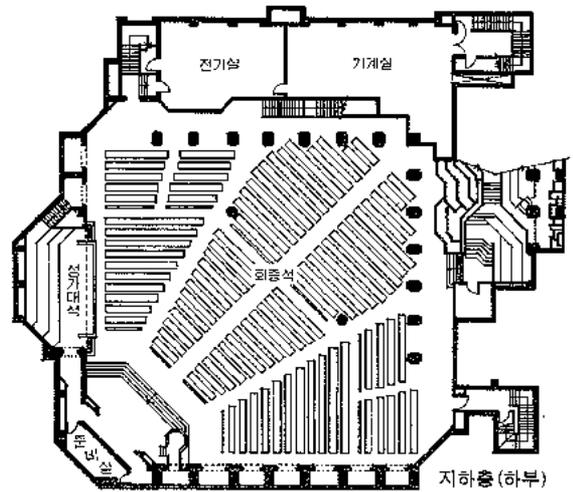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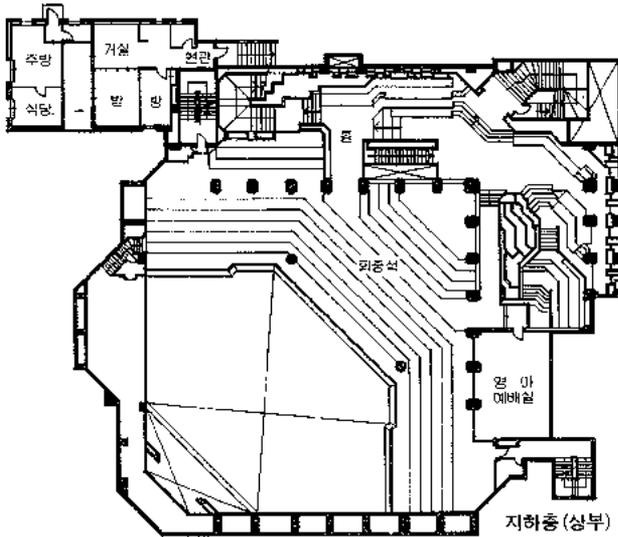
황일인 / 건축연구소 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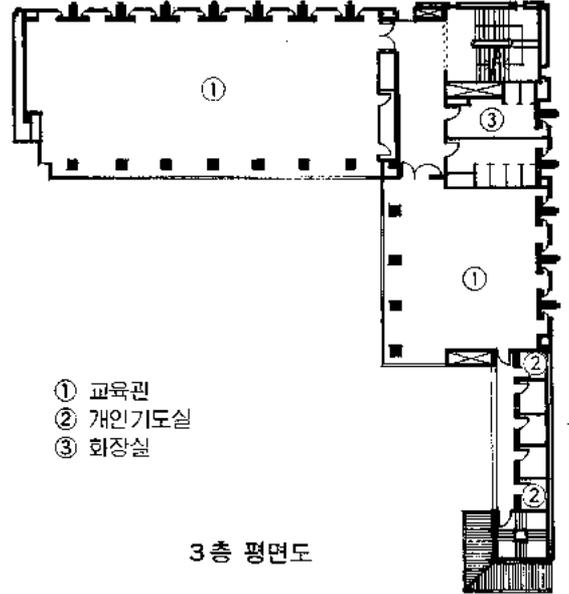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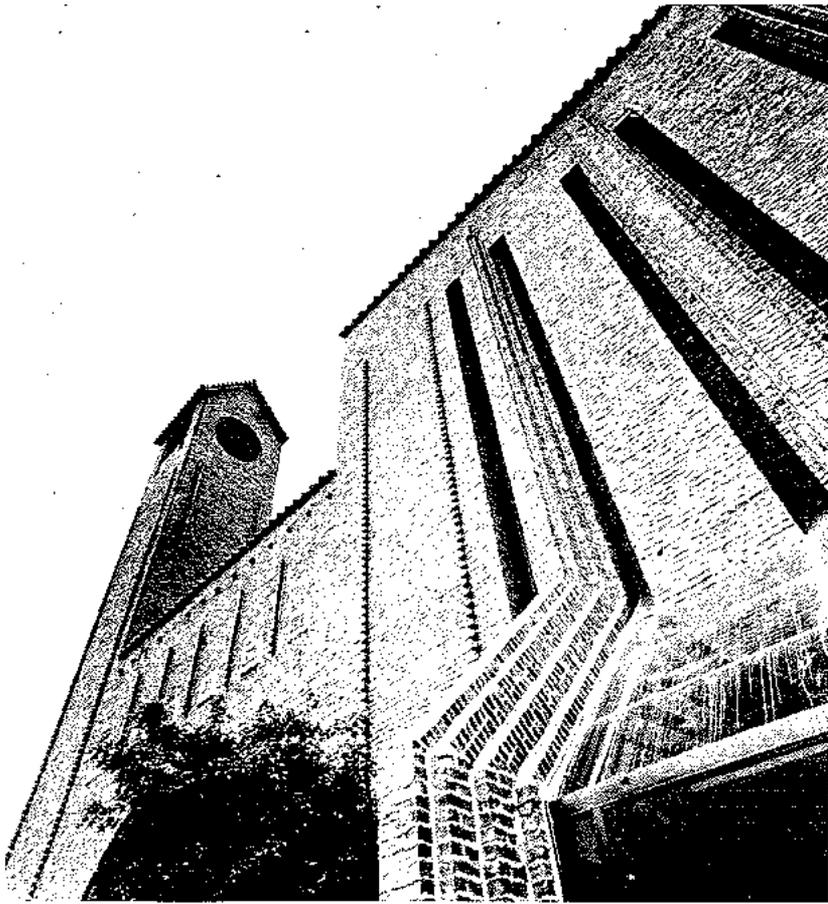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서초동 88-5
- 대지면적 : 2,454.2㎡
- 건축면적 : 682.22㎡
- 연 면 적 : 3,890.79㎡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 외 장 : 붉은벽돌 치장쌓기



- ① 홀
- ② 찬교실
- ③ 회장실
- ④ 개인기도실
- ⑤ 현 관
- ⑥ 기 실
- ⑦ 방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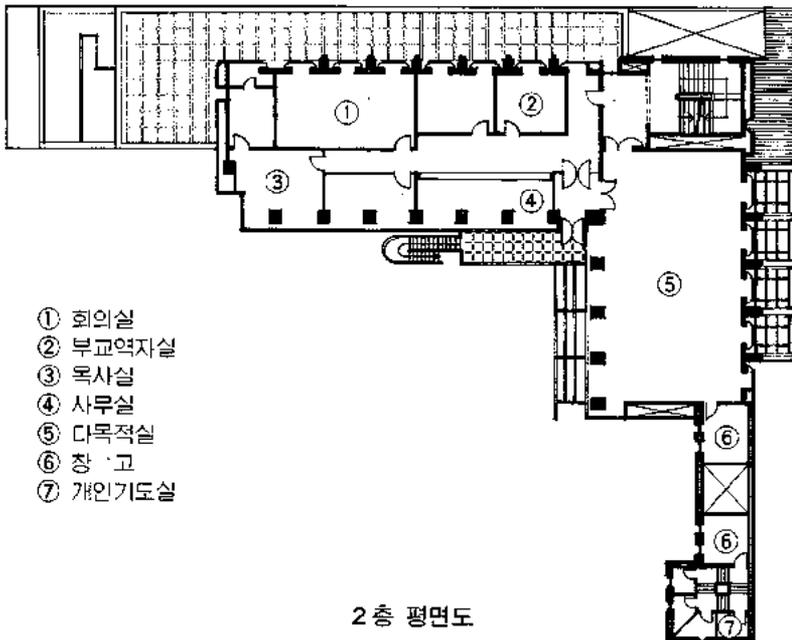


- ① 교육관
- ② 개인기도실
- ③ 화장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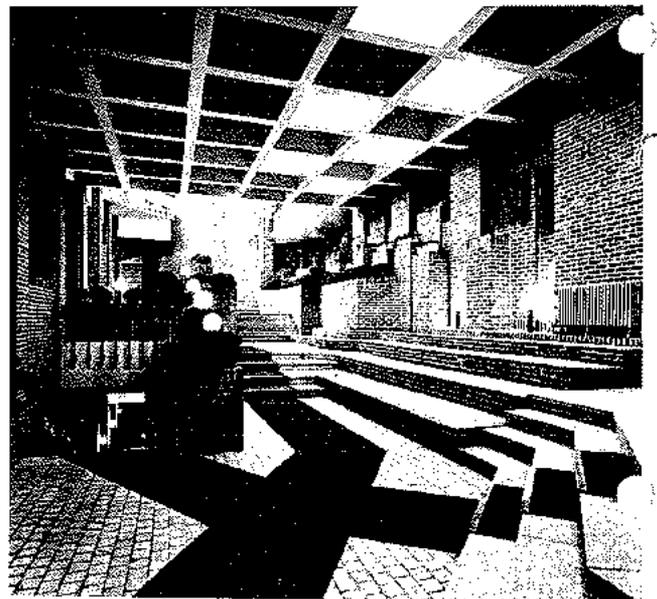
외경

현관 입구



- ① 회의실
- ② 부교역자실
- ③ 독서실
- ④ 사무실
- ⑤ 다목적실
- ⑥ 창고
- ⑦ 개인기도실

2층 평면도



任員協議會 개최

6월 4일 오후 4시부터 본협회 任員協議會가 吳雄錫 회장 주재하에 개최되었다.

본협회 任員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7개 議案이 부의, 심의되었는데 특히 東南亞圖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지역建築士 理事會 (ARCASIA)」에 本協會가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는 件에 대해서는 이번 會期에 汎아시아圖 국가들이 어느 정도 가입하는가의 여부를 관망한 후 가입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또한 日本國 視察團 과정의 件은 스쿠바 박람회 관람에 많은 會員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外務部와 교섭을 하여 시찰단을 모집하도록 추진하고 日本建築士會 聯合會와의 실무협의를 위한 대표단 과정은 日本 연합회의 초청을 받아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公職者精神教育刷新期間 설정 추진

本協會는 현충일, 6·25사변일, 재현절, 광복절이 속한 6·7·8월 3개월을 「公職者精神教育 刷新의 달」로 설정 운영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護國精神을 기리고 국토분단 40년의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여 公職者의 투철한 國家觀과 時代的 使命感을 새롭게 인식시키며

· 勝共安保意識의 고취, 民族史的 正統性의 발현을 통해 공직자 정신교육의 성과가 널리 사회 일반에 전파 확산되어 국민전체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 결의와 화합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를 조성케하며

· 종래의 정신교육을 보다 밀도 있고 심도있게 집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이 國民精神啓導의 先導集團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계획

가. 기존정신교육의 효과적 활용

각 市道支部別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정신교육을 차질없이 운영하되 가급적 동기간중에 집중적으로 강화 실시하며 정신교육 새신기간 설정취지에 맞도록 강의일정, 내용,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 운영함.

나. 현장학습 및 시찰기회 제공

각 市道支部는 회원단체대회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가급적 역사유물관, 반공기

吳雄錫 會長 A.I.A. 總會 參席

吳雄錫 본협회 會長은 6월 9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85년도 A.I.A. (미국건축학회) 총회에 참석키 위해 6월 5일 KAL 便으로 출국하였다.

吳雄錫회장은 85년도 국제위원회(위원장 송기덕) 사업계획에 따라 A.I.A. 총회에 참석하게됨을 계기로 A.I.A. 와 본협회간의 技術交流, 情報資料交換, 양국建築士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증진의 길을 아울러 모색할 것인데 吳雄錫 회장의 美國에서의 H程計劃은 다음과 같다.

6월 5일 김포공항 출발

6~7일 L.A. 韓人建築士와 懸案 논의

8일 샌프란시스코 도착

9~12일 총회참관 및 교류축진 협의

13~14일 시카고 韓人建築士와 懸案 논의

15일 뉴욕 A.I.A. 본회방문 懸案 논의

16~17일 韓人建築士와 懸案 논의

18~19일 A.I.A. 本部訪問, 양국협회 交流促進에 관한 협의

념관, 민족사적지, 전방부대 위문, 땅굴견학, 시찰 등을 포함시켜 6·25의 비극을 되새기고 통일조국의 성취를 위한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장교육의 활성화

각 市道支部는 직장교육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전회원이 참여하는 정신교육을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현충일, 6·25사변, 재현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슬라이드 상영, 영화관람, 대담과 토론, 귀순용사 초청간담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이 숭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

協會消息

라. 반공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영화 「죽음의 들판」(The Killing Fields) 관람

6·25 35주년을 계기로 반공의식 고취를 위해 긴급 수입한 「죽음의 들판(The Killing Fields; 공산치하의 캄보디아 국민의 참혹상을 그린 것으로서 1985년 아카데미상 2개부문 수상작품)」을 각 市道支部別로 가능한 한 전입직원과 회원이 관람토록 하며 그 감상을 상호 교환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함.

한편 本協會 직원과 서울특별시支部 직원 등 37명은 6월 12일, 일과후 「죽음의 들판」을 관람했다.

'85년도 建築士補修教育 실시

本協會는 건축사법 제3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부터 本協會 會館 대강당에서 교육을 개시, 6월 11일 현재 제 5기 교육을 마쳤다.

6월 17일~18일에 실시하는 제6기 교육을 85년도 끝으로 중앙집체교육은 모두 끝나는 데 그간의 교육성과는 회원으로부터 조사한 설문내용의 집계 분석에 따라 측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의 교육 출석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 1기 (5.13. ~5.14)

대상인원 364명

참석인원 331명

참석률 90.1%

제 2기 (5. 20 ~5. 21)

대상인원 392명

참석인원 366명

참석률 93.4%

제 3기 (5.28 ~5.29)

대상인원 374명

참석인원 352명

協會消息

協會消息

참석률 94.1%

제 4 기 (6.3~6.4)

대상인원 389명
참석인원 391명
참석률 100.5%

제 5 기 (6.10~6.11)

대상인원 363명
참석인원 340명
참석률 93.7%

누 계 대상인원 1,882명

참석인원 1,780명
참석률 94.58%

金重業회원 産業褒章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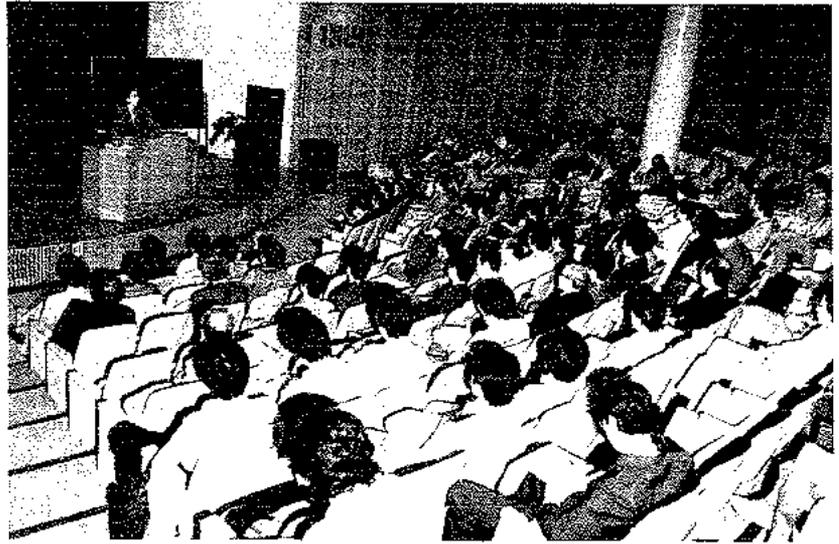
建設部는 6월18일 제8회 건설의 날을 맞아 국내외 건설에 功이 큰 8명의 유공자를 표창했는데 본협회 金重業 회원은 産業褒章을 수상했다. 金重業 회원의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1년부터 1965년까지 문화공보부의 문화재보존위원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문화를 길이 보존, 고유 건축문화의 계승 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

1980년도와 1981년도에는 제29회 및 제30회 국전건축심사위원장직을 비롯, 1956년부터 1965년까지 6회에 걸쳐 국전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훌륭한 작품을 선정발굴하여 건축계에 종사하는 건축가 및 전국 2,300여 건축사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축문화발전에 크게 기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1952년 7월 이태리비니스에서 개최한 유네스코주최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 및 1962년 7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한 유엔주최 제1회 국립공원의 한국대표로 참석.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 1971년부터 1975년까지 프랑스문화성·관광성 고문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해외에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선진국과의 상호기술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국내 유수의 많은 대학에서 교수 및 강사를 역임하면서 건축인 후진양성에 전력.

프랑스 파리 건축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하면서 프랑스정부 공인건축사자격(D.P.L.G)을 취득.

미국 로드아일랜드 미술대학교수, 하버드 미술대학원 비평교수를 역임하면서 한국 건축의 이미지를 해외에 널리 선양.

'85夏季 公職者 經濟教育 실시

本協會는 선진국으로의 지향을 위한 國民經濟力量을 결집하고, 최근의 경제동향과 경제시책방향의 이해촉진을 기하며, 공직자 교육을 통한 대국민 경제홍보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建設部가 시달한 '85夏季公職者經濟教育指針에 따라 다음과 같이 本會任員이 교육을 이수했다.

- 일시 85. 6. 19.
- 오전 09:30~11:40
- 오후 14:00~16:10
- 장소 과천종합청사 지하대강당
- 참석 김기수(상근부회장)
- (오전) 신정환(이사)
- 한중언(이사)
- 이강식(감사)
- (오후) 유경철(이사)
- 이영희(이사)
- 김봉훈(이사)
- 김형인(이사)

弘報委員會

弘報委員會(위원장 장종률)는 5월 21일 제 6 회 弘報委員會를 개최하고 향후 전개할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홍보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설문조사

목적: 회원의 의견을 각 분야별로 체계있게 수집, 종합, 분석하여 협회와 회원업무의 발전에 기여토록하고자 함.

설문작성: 각 분야별로 10항씩의 문항을 위원이 분담 작성함.

- 윤봉원 위원...건축사법과 관련한 설문
- 이세훈 위원...건축법과 관련한 설문
- 정정치 위원...건축행정과 관련한 설문
- 우남용 위원...협회운영과 관련한 설문
- 김기철 위원...홍보활성화 방안 및 기타

회원에 대한 設問調査는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연말에 建築士誌에 게재 발표함.

② 라디오·TV 프로그램 활용계획

가. 라디오 프로그램 활용계획

섭외담당: 정정치 위원

섭외내용: 대민상담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섭외 함.

協會消息

섭의가 성공할 경우 상담은 홍보위원 중에서 말되 상담자 소개시 대한건축사 협회 홍보위원 ○○○라는 소개가 나갈 수 있도록 함.

나. TV 프로그램 활용계획

섭외담당: 윤봉원 부위원장, 이세훈 간사
섭외내용: 일상의 생활주변 문제를 총괄하여 다룰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건축분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섭외 함.

· 섭외가 성공할 경우 협회 임원진과 홍보위원 중에서 출연진을 구성하여 평소 홍보해야 할 사항을 홍보토록 함.

다. 신문·방송기자단 간담회 개최

건설부 출입 신문·방송기자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신문과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들로 하여금 건축사와 건축사 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한층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함.

한편 홍보위원 일동은 6월 4일 건설부 기자실로 건설부 출입 기자단을 예방하고 격의 없는 간담을 하였다.

간담 내용은, 건축사가 설계사로 호칭되는 현실, 건축물 준공시 건축사가 소개되지 않는 현실, 위법시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의 책임이 없는 건축사도 억울하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 등등 개선되어야 할 여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간담을 마친뒤 홍보위원 일동은 간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으나 당장 물리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홍보적 측면에서 접촉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都市環境分科委員會

都市環境分科委員會(위원장 김인석)는 5월 24일 제 5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85년도 연구사업을 협의하였다.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환경과 조형예술

가. 자료의 수집 조사범위를 ①일본 및 동남아 ②미국 ③기타 이태리 불란드 독일 영국으로 한정.

나. 연구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판방법은 차후 결정.

다. 연구서의 본문은 150페이지정도, 표지는 원색 자켓으로 제작.

② 조경설계사례 조사연구

가. 김한근 위원이 전달하여 추진.

나. 「도시 환경과 조형예술」 연구진행 시기와 병행 추진.

傳統建築分科委員會

傳統建築分科委員會(위원장 박태수)는 5월 23일 제 5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85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였다.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 고건축물 연구

위원장이 자료를 수집, 연구를 진행중인 東軒에 관한 연구는 차기 회의시까지 검토 보완하여 사진과 도면을 제출토록 함.

② 고건축물의 防災方案 연구

가. 전국 도처에 산재한 풍부한 文化遺産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유실

委員會消息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나. 이관영 위원이 국내와 국외의 자료를 수집, 외국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防災方案을 수립.

③ 고궁 및 대사찰 등의 화장실 개선방안 연구

가. 국내엔 많은 고궁, 사찰, 공원 등이 있으나 화장실에 있어서는 그 시설이 절대수가 부족하고 주위 환경과의 부조화로 이용자뿐 아니라 외래 방문객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도 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나. 고궁과 대사찰 등의 전통적인 디자인 특징을 가미하고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보다 美的이고 機能的인 改善方案을 모색 함.

다. 차기 회의시 이관영 위원이 기초 자료와 세부적인 연구계획을 수립 발표함.



「농촌 모내기 일손돕기」(서울특별시지부)

서울특별시지부

① 회원고적답사 및 친목 뉘시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李春相)는 5

支部消息

支部消息

월 17일, 85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회원의 고적담사 및 친목 낚시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강화군 소재 강화 유원지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2백 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② 농촌일손돕기운동 실시

서울특별시지부는 정부시책에 따른 85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6월5일 경기도 남양만 일원에서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농촌 모내기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지부 임직원 및 경기지부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인천직할시

① 회원사무소직원 실무교육실시

인천직할시지부(지부장 高昌永)는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시간 40분동안 지부 회의실에서 회원 사무소직원 55명에게 직원정화교육을 겸한 건축행정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인천시청 송영길 건축과장은 주로 건축행정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지부 사무국장도 강의를 담당하였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공사 감리비 산출요령 및 그와 관련한 제반사항 ② 고운말 쓰기, 친절봉사, 전화송수화법 등 대민봉사자세에 관한 교육 ③ 각종 서식 기재방법 ④ 회원 행정처분시 수탁업무에 관한 교육

② 전회원회의 개최

인천지부는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제 7회 간사회의(85, 5, 10)에서 외결한 바에 따라 전회원회의와 겸한 소방교육을 실시하였다.

支部消息

회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감리운영세칙 개정」의 건이 부의되어 처리되었으며 소방교육은 인천시 소방본부 조성삼 소방경이 강사로 초빙되어 「건축허가 등의 업무에 관한 의의」제하의 강의를 실시하였다.

③ 자연보호 캠페인 및 체육대회 실시

인천지부는 5월 18일 인천시 남구 만수동 소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부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등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연보호 캠페인을 겸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지부회원및 사무소직원 3백여명은 이

날 건설기술교육원 주변의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하여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자연보호 실천의 모범을 보였으며 각 구별 거주회원과 직원이 팀을 이루어 축구, 배구, 줄다리기 등을 벌여 친목과 단합을 한층 굳혔다.

충청북도지부

충청북도지부(지부장 延寬欽)은 5월 17일, 지부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소재 여주 컨트리 클럽에서 제 1회 건축사 친목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7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트



제 1회 건축사 친목골프대회 (충북지점)



자연보호 캠페인 및 체육대회 (인천지부)

支部消息

로피와 기념품이 각 회원에게 골고루 돌아가 모두들 흐뭇한 표정들이었는데 이 골프대회는 앞으로 회원간의 단합과 충청북도지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징기적인 행사로 키워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지부

새마을 자매결연

전라남도지부(지부장 趙春元)는 5월 23일 함평군 나산면 신명리 신촌부락 마을회관에서 신촌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부락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날 결연식장에는 趙春元 지부장을 비롯한 역대 지부장, 간사, 정화위원 등

17명의 지부회원이 참석하였으며 함평군수, 함평군 새마을과장등 내빈 10명과 86명의 마을주민이 참석하였다.

趙春元 지부장은 신촌부락에 60만원의 새마을 성금을 비롯 삼 30지루, 호미 30지루, 기념타올 80매를 전달한데 이어 함평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결연식후 마을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마을 시찰을 했다.

'85全南建築上會員 設計作品集 발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南道藝術會館 1층 전시장에서 열릴 '85全南建築上會員 設計作品集 展示會의 개최를 준비중인 全羅南道支部는 그에 앞서 전시할 80작품을 수록한 154페이지 분량의 두툼한 作品集을 발

간하였다.

작품집 머리에는 金錫洪 전라남도 지사의 축사와 吳雄錫 本會 會長의 격려사, 그리고 趙春元 지부장의 개회사가 각 각 실렸는데 金錫洪 지사는 축사를 통해「우리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건축물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일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생활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귀중한 유산임을 생각할 때 건축물의 설계가 경제적 이윤추구의 수단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 한 다음「모든 건축물은 경제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가 조화된 조형예술 작품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吳雄錫 本會 會長은 격려사를 통해「전남 지부 회원들께서 합심협력하여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전시회를 마련함으로써 건축예술인으로서 유감없는 창작의욕의 발휘와 지방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계기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고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고 격려한다음「본 전시회의 마련과 그 성과가 전국 회원과 타지부간에 시범이 되고 창조적의욕을 한층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매년 더욱 발전하는 전시회가 되어나갈 것을 바란다」고 기원하였다.

한편 趙春元 支部長은 개회사를 통해「오래 전부터 全南會員만의 전시회를 가져보자고 하였던 회원 모두의 바람이 결실되어 늦게나마 그 첫번째의 막을 열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기 한량이 없다」고 소감을 피력하면서「이것이 계기가 되어 作品의 質面에서나 規模面에서 크게 발전되어 우리 全南의 건축문화창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 기대될뿐더러 우리가 회구하는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이 증증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전시회 개최의 의의를 새겼다.

작품집을 받아든 관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라남도지부의 이번「작품집 발간」이라는 煥擧는 분명히 다른 支部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삼가 弔意를 표합니다



全羅南道支部 金鎬瑾회원 別世

全羅南道 支部 金鎬瑾 회원이 5월 28일, 本會가 주관 실시하는 建築士補修教育을 이수하고 귀가도중 파로로 別世하였다.

故 金鎬瑾 회원은 제 5대, 제 6대 全羅南道 支部長을 역임하면서 道支部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그 功으로 77년 11월 25일, 본 협회 회장으로 부터 도지부운영 유공표창을 받았고, 78년 11월에는 소방관 자녀를 위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유공표창(소방서장)을 받는 등 평소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故 金鎬瑾 회원의 갑작스런 별세로 회원들은 인정 넘치고 성실하고 겸손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음에 안타까운 슬픔을 달래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경건히 머리 숙여 冥福을 빌고 있다.

故 金鎬瑾 회원의 약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생년월일 : 1922. 11. 10

학 력 : 충청공업공립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경 력 :

• 1942. 4. 5 ~ 58. 11. 6 광주시청 도시계장

• 1958. 11. 7 ~ 85. 5. 29 문화건축연구소 개설

• 1970. 4. 5 ~ 75. 4. 5 사격연맹 전남지부 부지부장

• 1971. 11. 19 ~ 73. 11. 28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장

• 1973. 4. 2 ~ 80. 4. 15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

• 1976. 7. 1 ~ 광주시 건축심의위원

• 1978. 5. 18 ~ 80. 1. 15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장

支部消息

江原道支部



閔庚秀 지부장

지부장 인사

본 지부순례단을 통하여 전국 회원 여러분과 건축사지 독자 여러분께 강원 지부를 소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지부 창설 이래 20여년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이룩해 놓으신 선배회원님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건축 설계 하나 하나가 작품과 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부실한 건축물을 자초하는 설계비나 감리비의 할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으며 경제가 발전하므로 건축주의 생활향상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도시 공간의 미화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분투와 새로운 구상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굳건히 하여 소형 창작예술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가일층 노력하여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을 다해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건축사로 지위 향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지난날에도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울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 드리며 꾸준한 노력으로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서 길이 후손에게 남길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 주시고 선배, 동료 회원님들의 끊임 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부소개

1964년 12월 16일자 법률 제1536호로 제정 공포된 건축사법에 의거 건설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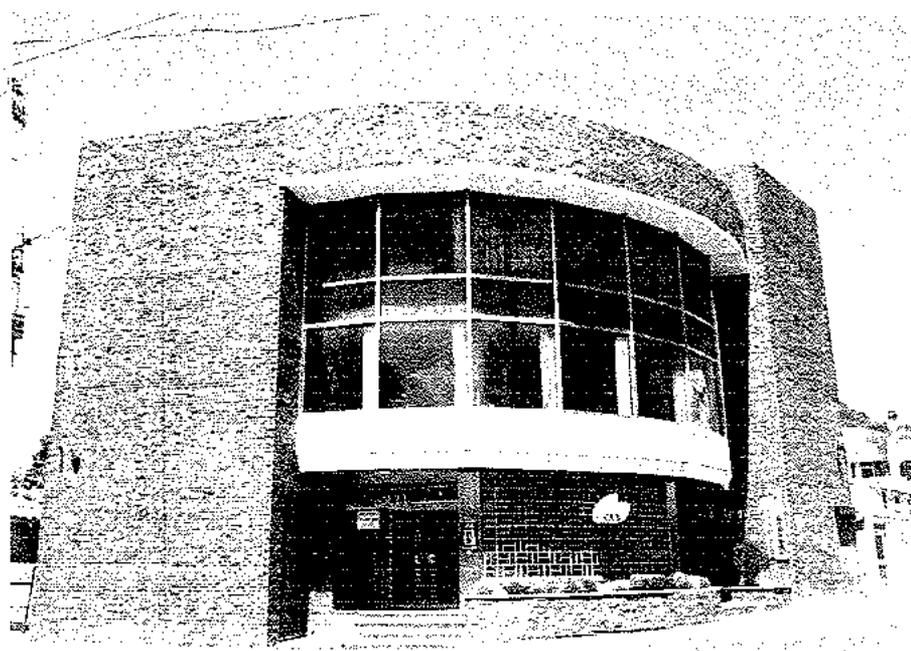
관의 면허를 받고 지방장관에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건축사를 정회원으로 하여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강원도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趙奎植의 11명이 1965년 9월 강릉에서 창립 준비 총회를 갖고 지부 창립 제반 준비를 완료 하였다.

동년 11월 13일 도내 총회원 13명중 발기인 대표 趙奎植의 10명이 참석 지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지부장에 趙奎植(작고) 씨 선출을 비롯하여 임원진 구성과 지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동년 12월 3일 본협회 등기 완료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에 등기를 필하고 춘천시 조양동 101 번지에서 지부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1967년 11월 30일 춘천시 중앙로 1가 84번지로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1969년 2월 1일 춘천시 조양동 98번지로 이전등 지부장이 개선되던 지부장 사무소를 따라 이전을 거듭하던 것을 1973년 4월 5일 춘천시 중앙로 1가 63번지로 독립 이전하였으며 1978년 1월 15일 춘천시 조양동 37-19번지로 이전 1983년 2월 16일 현 위치인 춘천시 옥천동 39-5번지에 강원도 건축사회관을 건립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재 도내 6개분소(원주, 강릉, 속초, 태백, 삼척, 영월)를 설치 회원 업무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업무 및

강원도지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회원이 산재해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따라 회원수가 증가 되었으나 특히 70년대에 접



강원도 지부회관 전경

어 들면서 회원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가 그 명맥유지에 급급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업무수탁을 위한 보수액의 과다한 할인 경쟁으로 회원 상호간 갈등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또는 시공업자의 횡포에서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로 인하여 부당 행정처분을 받아 사무소의 운영난은 더욱 압박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일대 시련기에서 헤어나고 격동하는 사회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동반태세를 갖추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회원의 우의와 신의로써 상호 이해하고 참여의식을 높이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복지회가 구성되었다. 복지회 운영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수시로 대두되었으나 회원의 협조와 지혜를 모아 보완 개선해 지역회원간의 신뢰회

복은 물론 건축사 업무질서 확립과 주변 의 비위사무소 정비와 회원의 지위 향상 에 기여하였으며 계속 회원의 노후대책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상호 신뢰와 협동으로 공존 공영을 기하는 한편 회원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할수 있는 체육대회, 산업시찰등 단합행사를 통하여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경조사에 전회원의 참석을 유도하여 화합 단결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회원의 경제력이 향상되었으며 따라서 일반 사회에서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건축에 대한 주인의식을 재확립 하였다.

강원도 지부는 타지부에 비하여 많지

않은 회원이 원거리로 분포되어 회원 결속에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사업 지원에 성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그 대표적 예로 1984년 8월 8일 회원 36명이 2천만원의 체육성금을 모아 강원도 지사에게 전달 강원체육 진흥에 출선하여 앞장섰으며 수시 발생하는 재해의연금, 일선장병위문 및 방위성금, 상이용사 자활촌 위문 및 원호성금, 불우이웃돕기, 새마을사업지원, 기능경기대회 협찬, 각종 사회사업 지원금을 전달하였고 또한 취락구조 개선 사업과 소도읍 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건축설계비를 할인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공헌하였으며 아울러 지부 이미지를 부각시켜 건축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거듭되면서 지부의 숙원이던 회관건립을 위하여 1982년 6월 26일 강원도 건축사복지회 총회에서 회관건립 사업계획 승인과 회관건립 추진위원을 선출하여 동년 7월 31일 춘천시 옥천동 39-5 대지 60평을 2천5백만원에 매입하고 당시 지부장이던 李國男회원에서 회관건립 예산을 절감키 위하여 회관설계 및 감리를 무료로 제공,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였으며 동년 10월 11일 춘천시장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수 1983년 3월 5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83.57㎡ 총공사비 6천5백만원을 투입 강원도 건축사의 전당을 완공함으로써 회원의 숙원이던 회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회관이 완공되기까지는 적은



자율정화확립결의대회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지 부 장	閔 庚 秀	대아건축설계사무소
간 사	趙 貞 鎬	현대건축설계사무소
"	李 國 男	국남건축사 사무소
"	崔 柄 郁	공간건축설계사무소
감 사	朴 世 振	박건축설계사무소
"	李 贊 浩	대담건축설계사무소

역대 지부장

구 분	성 명	사무소명
초 대	趙 奎 植	작고
제 2 대	孫 駿 燮	강원건축설계사무소
제 3 대	孫 駿 燮	"
제 4 대	趙 貞 鎬	현대건축설계사무소
제 5 대	李 相 哲	작고
제 6 대	趙 奎 植	"
제 7 대	李 相 哲	"
제 8 대	李 相 哲	"
제 9 대	李 國 男	국남건축사사무소
제 10 대	李 國 男	"
제 11 대	李 國 男	"

수의 회원과 취약적인 지역조건하에서도 회원의 일치 단합과 헌신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괄목할만한 사업이라고 과시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의 추세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보급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생활의 향상과 건축활동의 꾸준한 증가 등은 국가정책 및 회원 업무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주택과 건축물은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이자 사회안정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생활상을 담은 문화예술품으로서 후세에 전승될 유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전통미를 살리면서 생활에 편리하고 문화예술적인 주택과 건축물을 보유하고 창조하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건축사와 건축분야 종사자의 막중한 책무라 하겠다. 그리고 건축에는 수많은 각종 법규와 제도 및 시책, 행정절차 등이 복잡 다단하여 이를 이해 숙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행정과 도시 및 농어촌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처러질차, 기준, 관련법규, 지침, 유의사항, 조례, 질의, 응답사례등 실무 위주의 내용을 간편하고 알기 쉽게 편집 "주택건축업무편람" 책 400부(3,850,000원)를 발행 도내 각시군에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 및 회원에게 배포하여 100년 대계의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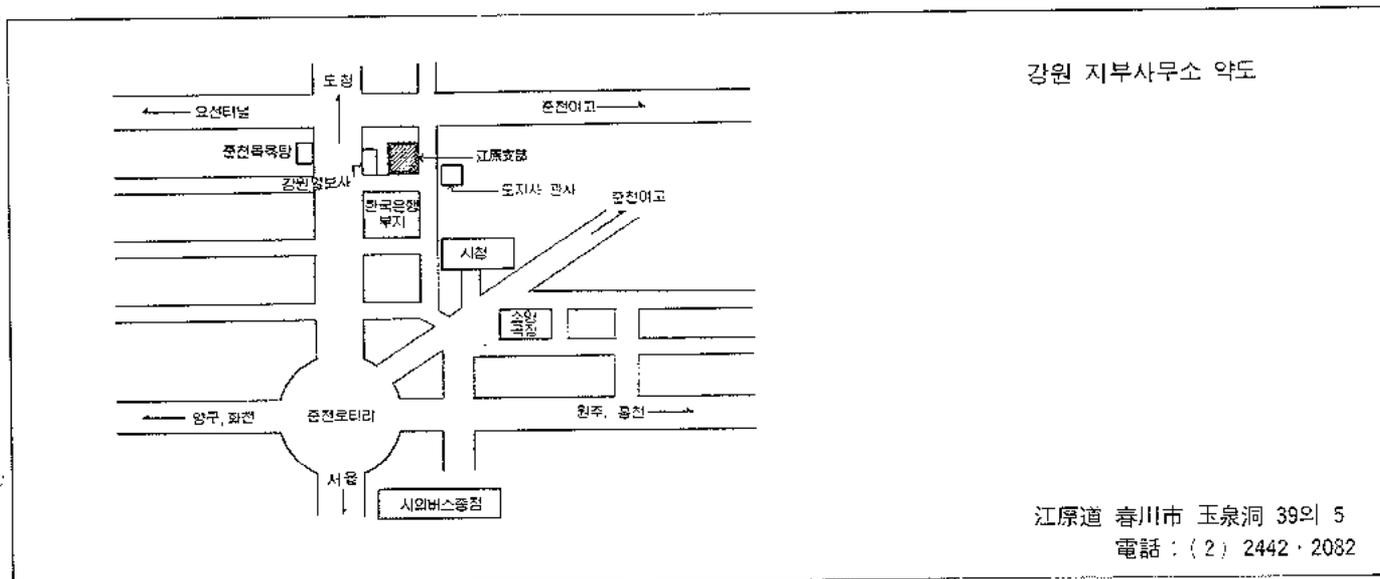
기타 지부의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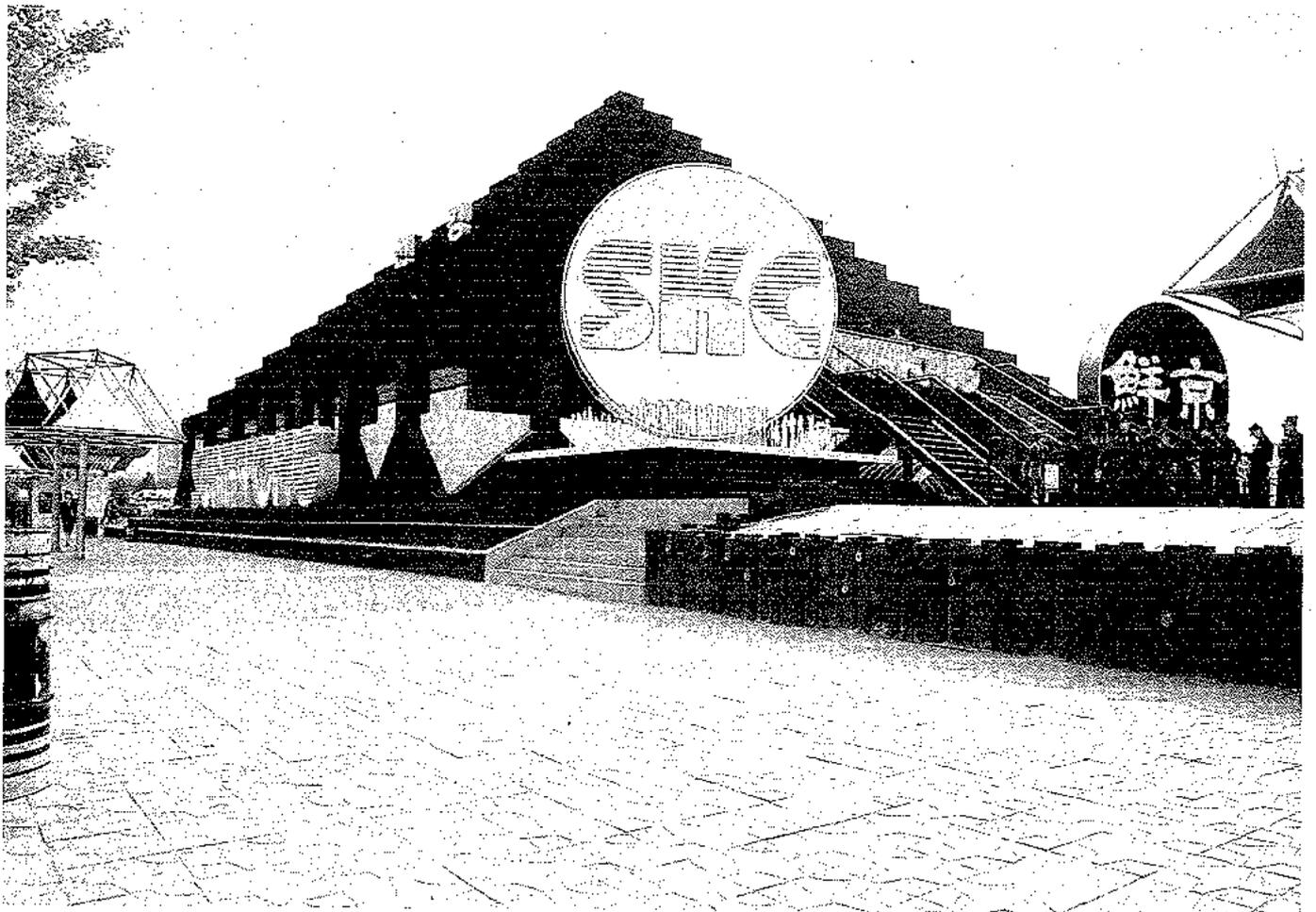
1.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 회원업무와 노후대책에 대한 사업
 - 부당한 업무처리 방지로 회원보호

연도별 회원수 및 설계도서 신고현황

연도별	회원수	도서신고현황
1965	12	
1966	13	
1967	14	
1968	17	
1969	19	
1970	22	182, 142㎡
1971	26	184, 929
1972	24	190, 780
1973	25	259, 062
1974	26	285, 153
1975	28	384, 341
1976	31	350, 773
1977	28	583, 875
1978	32	875, 819
1979	31	1, 129, 747
1980	39	1, 000, 397
1981	40	1, 012, 275
1982	41	1, 349, 032
1983	36	1, 685, 645
1984	35	1, 325, 645

- 복지회를 활성화하여 회원 상호협조와 경제력 향상
- 2. 회원 상호 친목도모를 위하여
 -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행사 개최
 - 관계 기관과 간담회 개최로 건전한 건축풍토 조성
 - 지역 복지회 운영으로 상호유대 강화
- 3. 건축사 업무 개선을 위하여
 - 회원 업무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제공 업무활동 지원
 - 건축관계 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연구 건의
 - 건축사 업무 및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연구
- 4.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 전국 회원 작품 전시회 도내 유치
 - 우수 건축자재 전시회 관람 권장
 - 보조원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취급 요령 교육
 -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 5. 지도 계몽 사업을 통하여
 - 회원 사무소 운영 실태 지도
 - 회원 업무에 관한 지도 계몽
- 6. 감사 활동을 통하여
 - 지부 및 분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사
 - 사장업무와 관련된 지도 및 특별감사
- 7. 사회정화 운동으로
 - 정화추진 위원회를 통하여 의식개혁 운동 전개
 - 자체 정화추진 위원회 활성화 및 강화
 - 직업 윤리관 확립과 보수요율 준수
 -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 8. 새마을 운동으로
 - 불우회원 및 이웃돕기 운동 전개
 - 자연보호 및 농촌일손돕기 운동 전개
 - 건축행정 상담실 운영으로 대민 봉사
 - 주거환경 정비 협조
- 9. 홍보 활동으로
 - 신문 및 방송에 회원업무 소개 홍보





선경 전시관 전경

창조공간의 도전

— 미래에너지와 정밀화학에 도전하는 선경의 전시공간 —

한도룡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인타 디자인연구소 대표

'82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84 서울 국제 무역 박람회(SITRA '84)는 '교역 확대를 통한 평화와 번영'이란 테마를 가지고, 산업 발전의 기술 교류와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축제의 장이었다.

특히 성장하는 국내 기업의 면모와 무역 입국의 의지를 표현하며,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개방 경제 체제의 기반 구축에 그 의의를 두었다. 즉 기업의 선량 및 성격을 서로 비교하는 기회로, 박람회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는 기업 활동에 직접·간접적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과 여론 조성의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

다. 따라서 기업관은 보다 효과적이고 새로운 관념의 커뮤니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시각·청각에 이르는 전달기법으로 전시 내용을 보다 빨리 강하게 전달하는 동적인 전시 요소를 도입, 종래의 진열식, 나열식의 전시 형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선경'은 SITRA '84에서 약 300평(1,000㎡)의 대지에 480평 규모의 선경 전시관을 꾸몄다.

전시 기본방향은, 과거의 섬유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여 「미래에너지와 정밀 화학에 도전하는 선경」의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였고, 심볼은미

래에너지인 「인공태양」과 SKC의 이미지인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으로 하였다.

외부 건물은 「선경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피라미트와 인공태양의 형태로 구성하여, 선경이 세계 첨단 정밀화학에 도전하여 안정·성장코자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피라미트의 건물은 28M×36M 대지에 28M×28M, 높이 14.5M의 이중구조 건물로 외부는 인공잔디로 처리하고 심볼인 인공태양과 SKC는 직경 9M의 대형으로 네온을 이용, 빛을 발하도록 하고, 전면 좌측에는 분수대를 설치, 뿜어나오는 물은 생동감과 미래 인류의 유토피아 건설

을 위한 선경의 이미지가 표현 되도록 하였다.

전시관 내부 공간 구성은 크게 종합 에너지관, 정밀 화학관 I, 정밀화학관 II, 영상관, 꿈의 동산으로 나누어진다. 도입부는 선경관의 전시 평면을 넓히기 위해 지면에서 2M를 파서 계획하고, 원통형 파이프를 이용 통로를 구성하였으며, 조명 효과로 「선경」 글자체가 점멸 되도록 함으로써 선경관의 안내 표지를 겸하도록 하였다.

도입부를 지나 종합에너지관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섬유에너지 생성대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공룡과 화산, 원시림의 모형을 제작하고, 조명과 효과음이 보조함으로써 흥미를 갖고, 에너지관을 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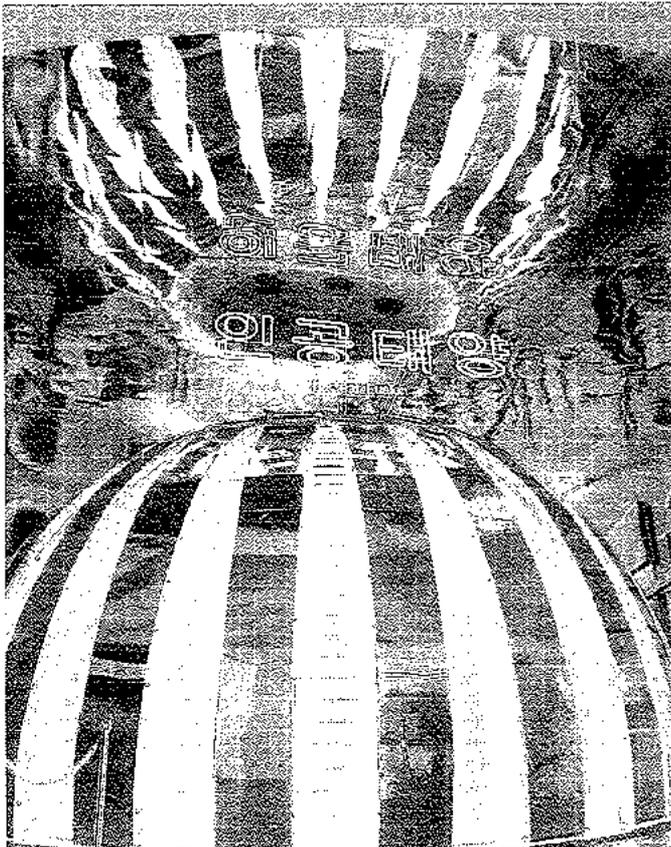
또한 시추선과 지층 단면도를 모형제작, 석유의 채굴·광경을 보여줌으로써 현장감을 전달토록 하며 유공해운의 대형 유조선 모형과 함께 세계 원유 도입 루트를 연출하여 나타내었다.

미래에너지에 도전하는 표현으로, 대체에너지인 핵, 태양광, 태양열, 조력, 풍력, 수소등을 벽면에 부조로 표현하고, 앞면에 미래충전소와 밧대리 Car를 모형제작, 작동시킴으로서 충전소의 미래형태와 수송에너지의 미래를 보여준다. 또한 직경8M의 인공태양 모형은 FRP와 스텐레스 음각으로 제작, 걸면은 네온으로 점멸시키고, 천정면은 붉은색으로 경면처리하며, 벽면에는 21세기의 미래도시 형태를 표현, 인공태양과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내부는 태양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비비도선으로 바닥면을 처리하고, 9개 프로젝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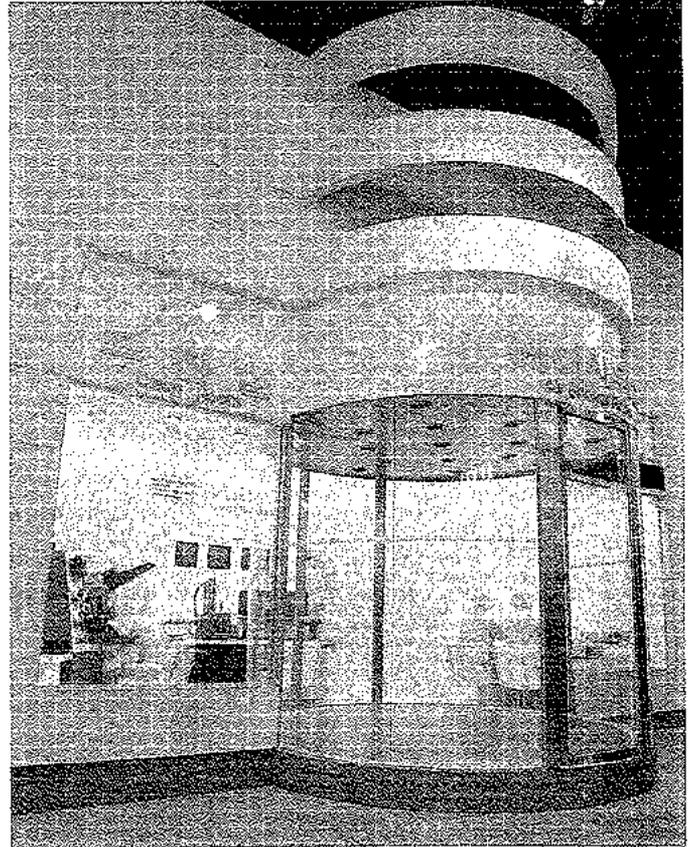
멀티화면을 구성, 인공태양의 원리를 해설 하였다.

정밀화학 I 관에서는 입구에 Air Shower 2대를 설치, 백색으로 처리된 공간에 무진폭 상태의 마네킹을 전시, 초정밀성의 상징과 함께 전시공간에 활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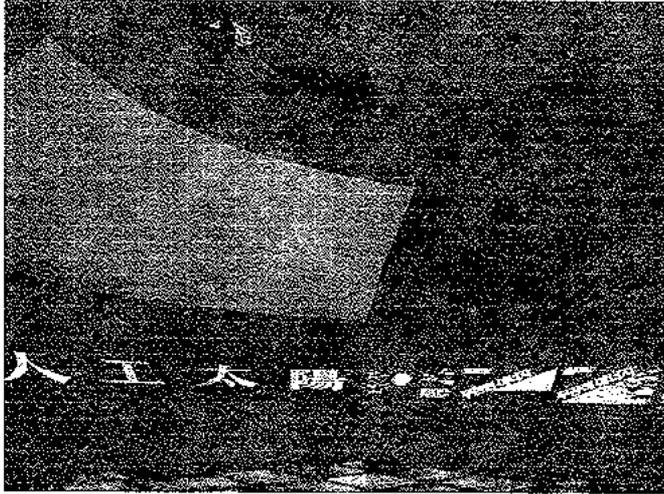
플리에스텔 필름을 소개하는 장에서는 베이스 필름으로부터 다운스트림이 되는 전제품을 나무모양을 이용, 와이드칼라 사진으로 전시하고, 필름의 강도를 테스트하는 장면으로 오토바이를 필름 위에 설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SKC브랜드 이미지장은 비디오 카세트 실물을 이용하여 만든 대형 첩성대를 통해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기술의 뛰어난을 표현하며, 여기에 수출지역을 연출 세계적 브랜드인 SKC의 우수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인공태양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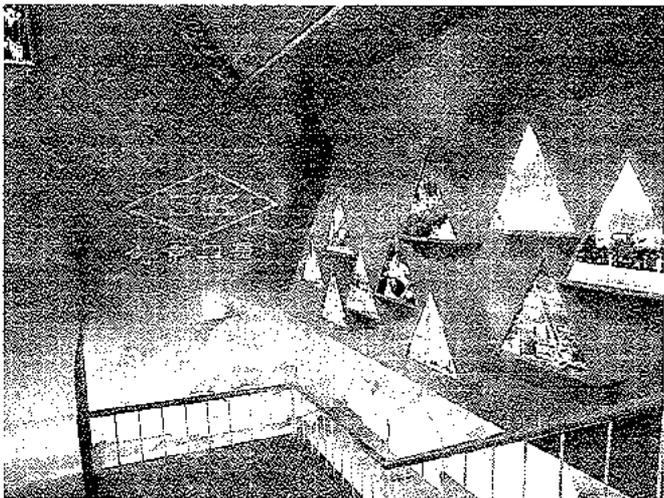
Air Show코너



인공태양의 내부



꿈의 석유 카멜레온코너



꿈의 동산



2층 영상관 대기실 및 홍보코너

플로피 디스크코너에는 관객이 직접 성능을 시험토록 설치하고, 비디오 테이프의 색상과 화면의 선명도를 보여주기 위해 모니터 45대의 다중영상코너를 설치, 다이내믹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정밀화학Ⅱ관은 I관과의 구분을 위해 입구에서 천정까지 대형 볼형태의 섬유로 전시관의 분위기를 밝게하고, 바닥·벽면에 섬유발달 과정을 실루엣과 모노톤사진으로된 와이드칼라를 설치하였다.

꿈의석유 표현으로 카멜레온 동물을 모형으로 제작·조명으로 색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주변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탄소섬유 코너에는 국내최초로 개발한 탄소섬유를 특수조명으로 실물전시하며, 섬유의 다양한 용도를 모형으로 전시하고, 이들의 실제 테스트 방법을 소개, 즉, 미사일, 우주기지, 비행기등에서의 사용으로 미래 우주항공산업의 이용도를 보여줌으로써, 2천년대의 첨단섬유기술을 개발하는 선경의 의지를 연출하였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은 꿈의 동산으로 50여 마리의 새와 대형 와이드칼라의 어린이 사진과 인형들로 동산을 꾸미고,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으로 하여 보dana은 미래를 위한 소망을 표현하였다.

2층은 영상관 대기실과 그룹홍보코너로 대기실에는 앉으면 음악이 흐르는 청

음의지가 설치되었고, 세계 곳곳을 우리의 장터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들을 사진으로 연출하며, 종합의욕의 연출로 와이드칼라와 인제양상에 노력하는 선경의 두뇌를 배운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의 전시관 연출은 과거의 구태의 연한 Show Room의 형식에서 탈피, 모든 형태미의 통일된 느낌을 구사하며, 동선의 흐름과, 각 전시물의 시각효과를 높여, 연속적인 전시태마 연출과, 효과장치와 함께 관객에게 전시의 효과를 어필시킴으로써 함축된 기업 이미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建築界 元老 李均相 教授 逝去

韓國人으로서 최초로 現代建築物인 京城帝國大學 本館 構造設計를 担当하는 등 여 명기 우리나라 근대 건축 개척에 큰 공을 이룩한 서울대 李均相 名譽教授가 6월 9일 급환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82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故 李均相 教授의 略歷은 다음과 같다.

本 籍 : 서울特別市鍾路區明倫洞 1街73

生年月日 : 1903年 10月 14日

經 歷

-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教授
- 서울大學校 工科大學長
- 學術院 會員
- 大韓建築學會 會長

•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同窓會長

• 서울特別市 古蹟保存委員會 委員長

褒 賞

- 서울시 文化賞 (56年)
- 殖産褒賞 (63年)
- 國民勳章 冬栢章 (70年)
- 國民勳章 牡丹章 (82年)

李均相教授님의 逝去를 哀悼함

尹 張 燮

서울대 教授



故 李均相 教授

李均相교수님의 갑작스런 逝去 소식을 듣고 선생님의 지도와 보살핌을 받은 1280여명의 제자들은 놀라움과 슬픔과 아쉬움을 한없이 느끼게 됩니다.

인자하시고 자상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는 대할 수 없게 된것을 생각하니 이 별의 애통함과 선생님 은혜에 보답을 못다 한 아쉬움의 悔恨이 북받쳐 오릅니다.

선생님은 旧韓末 과란많은 과도기에 태어나서서 日帝시대를 거쳐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우리 나라 建築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42년간 서울대학교 建築學 教授로 재직하시면서는 우리 나라 건축분야에 많은 공헌을 하시었고 수 많은 우수한 人材를 교육양성하시었으며 계속 이들을 지도하고 편달하셨을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학계와 건설분야 및 복지사회발전에 공헌한바가 매우 크셨습니다.

특히 스승으로서의 李 선생님의 薰陶와 보살펴주시는 음으로나 양으로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었으며 그 은혜는 바다와도 같이 넓고 깊으며, 태산과도 같이 높고 큰것임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기억에 새로운 것은 日帝下의 京城工業專門學校 시절 선생님께서 建築材料學 강의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과반수가 日人 학생이고 韓人 학생은 몇명 안되는 교실안에서 한국산 목재의 樹木名을 한글로 낱말이 호칭하면서 설명하셨을 때는 일인학생들을 모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한인학생들에게는 한국인의 열이 생동함을 느끼게 하시던 그 때의 선생님의 의연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8.15에 해방이 되던날 동숭동 옛 建築科校舍였던 붉은 벽돌집 앞에서 대한민국만세를 드높이 외치시어 日帝의 질곡에서 벗어

나는 기쁨을 폭발하셔서 日人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이 회오를 느끼게 하신 선생님의 행적은 또한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의 學長으로 재임하실 때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모든 교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하시었으며 이것들을 수렴하여 衆意에 따르시고 무책을 상책으로 삼아 대범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시던 선생님의 工大學長 시절을 회상하여 보게 됩니다.

초창기에 大韓建築學會의 會長을 다년간 역임하시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건축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힘쓰셨으며 건축학회가 현재와 같이 성장할 수 있게되고 장차 눈부시게 도약하려는 차비를 갖추어 가게 된 것도 선생님의 숨은 공로에 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1954년 부터는 學術院會員으로 임명되시어 건축학계를 대표하여 우리나라 학술분야 발전에 또한 계속 이바지 하시었습니다.

1969년 停年이 되어 名譽教授가 되신후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위해 강의를 나와 주셨으며 1980년 공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나서는 출강을 사양하셨지만 항상 선생님의 마음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건축학과의 발전과 제자들의 성장을 지켜 보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계시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강력한 성품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높은 기개를 갖고 계시었으며 元亨利貞과 仁義와 禮智의 정신을 생활의 신조로 삼으셨습니다. 잔재주와 기교를 배격하고 근본이되는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신조로 삼으셨고 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永眠하시어 비록 육체는 저희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선생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오르사 전과 같이 저희들을 굽어보시며 보살펴 주실것을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흠으로 되돌아갈 선생님의 육신을 영결하는 마당에서 저희 제자일동은 선생님께서 생존하셨을 때에 보여주신 훌륭한 행적을 생각하고 그 高邁한 人品과 가르치심을 추모하게 되으며 선생님의 뜻과 덕을 계속하여 이어가함으로써 우리 나라 建築文化 창달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攄心하여서 기약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밝고 아름다운 저 하늘위 樂園에 이르시어 한없는 永生의 福樂을 누리시게 될 것을 믿고 또한 축원하면서 哀悼의 뜻을 포함합니다.

1985년 6월 13일

외부 환경설계

—수직 · 천정적인 요소—

최 기 수
서울시립대학 교수

외부공간에서 수직적인 요소는 공간이 주위의 환경에 비추어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추한 視界를 차폐시킨다든가, 대지경계 부분을 한정시킨다든가, 소음이나 바람, 오염으로부터 보호시킬수 있음은 물론 적게는 교통의 통제 및 조절을 할 수 있는 요소이다. 미적인 면으로 수직적인 요소의 사용으로 공간에 위치한 점경물에 대한 배경적인 요소(그림-1)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공간을 위요 시킴으로 인간에게 사적(私的)인 기분을 줄 수도 있다. 공간의 구성요소중에서 수직적인 요소는 가장 조절하기 쉬운 것이기는 하지만, 시선(視線)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공간을 창조하는 기술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있다. 이 수직적인 요소는 공간이용을 담장이나 벽과 같은 구조적인 것으로 혹은 관목이나 산울타리같은 식물적인 재료나 혹은 상호조화에 의하여 한정시키거나 분절시킨다. 우리의 정원에서도 수직적인 요소인 담장을 이용하여 공간이용을 다른 기능을 가진 마당으로 한정시키고,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담장을 이용하

여 왔으며, 또 담장의 문양은 정원설계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였다. 수직적인 요소와 같이 공간을 구성하는 천정적인 요소도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면으로 설계될 수 있다.

그림 - 1. 담장을 배경으로 늘어 선 야외조각물



1. 경관으로 수직적인 요소

공간은 외부와 내부의 수직적인 요소에 의해 기능에 따라 경관이 조성된다. 수직적인 요소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분석단계에서 결정되어진다. 외부적인 수직요소는 부지 경계 주위를 한정하고, 대부분 환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 수직요소마다 동시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설계자들은 부지를 구획시키는 작업과 더불어 우세한 바람방향, 오염된 공기의 근원, 소음의 원천과 다른 것을 보호시키며, 어떤 지역의 이용을 제한시키기 위해 조성하지만, 일단 조성이 된 그 수직적인 요소는 주위 환경을 미화시키는 배경적인 요소로 혹은 그 자체를 아름답게 구성하려고 한다(그림-2).

우리의 정원은 먼곳의 경관을 끌어들이는 경관의 요소로 하는 일차(逸借)를 비롯하여, 인근부근의 경관을 빌어쓰는 인차(隣借), 높은 곳의 경치를 빌어 쓰는 양차(仰借), 낮은 곳에 전개되는 풍경을 부감하는 부차(俯借)와 같은 차경수

법(借景手法)이 중국으로 부터 전해져 내려와 이용되었다. 이 때의 수직적인 요소는 경관을 하나의 틀로써 한정하므로써 한 쪽의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조의 상류주택의 외부공간은 크고 작은 여러채를 담장과 행랑채로 둘러 막고 그 사이를 낮막한 담장으로 구획하므로써 여러개의 마당이 형성되었다. 담장은 장대석으로 기반을 만들고 사괴석으로 쌓거나 검은 벽돌로 쌓고 위에는 기와지붕을 하였는데, 때로는 밑 부분만 사괴석으로 쌓고 윗 부분은 검은 벽돌이나 붉은 벽돌로 쌓아 줄무늬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들 담장에는 여러 모양의 장식문양을 넣어 이른바 화초장(花草牆)을 만들기도 한다. 또 벽체에 연해서 혹은 떨어져서 굴뚝을 세웠는데 대개 담장에 사용하였던 벽돌로 쌓고 장식문양을 놓아 담장과 같은 의장을 하고 있다.

담장이나 굴뚝에 장식한 문양들은 대개 건물 정면에 대부분을 이룬 창호의 살 짜임새와 같은 주제로 반복되어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이 화초담은 조장(彫牆) 또는 조장(照牆)이라고 불렸으며, 우리 이름으로는 꽃담장 혹은 화문장(花文牆)이라 불리는 것이다.

꽃담장은 여러가지 채색으로 글자나 무늬를 놓고 치레한 담이며, 담의 면(面) 주위로 근자, 䄑자 또는 뇌문(雷文) 초용(草龍) 등의 선을 두르고, 그 가운데에 십장생(十長生)이나 화초의 모양 등 민화적인 그림을 그려 놓았다. 또 벽돌로 간단히 당수복(唐壽福)을 넣어 쌓기도 한다. 그러한 담장문양이 현존하는 예는 우선 고궁의 경우를 볼 수 있고(그림-3), 또 사찰의 담장에서 볼 수 있다.

2. 차폐로서 수직적인 요소

공간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은 그 공간의 시각적인 기능이다. 위요된 공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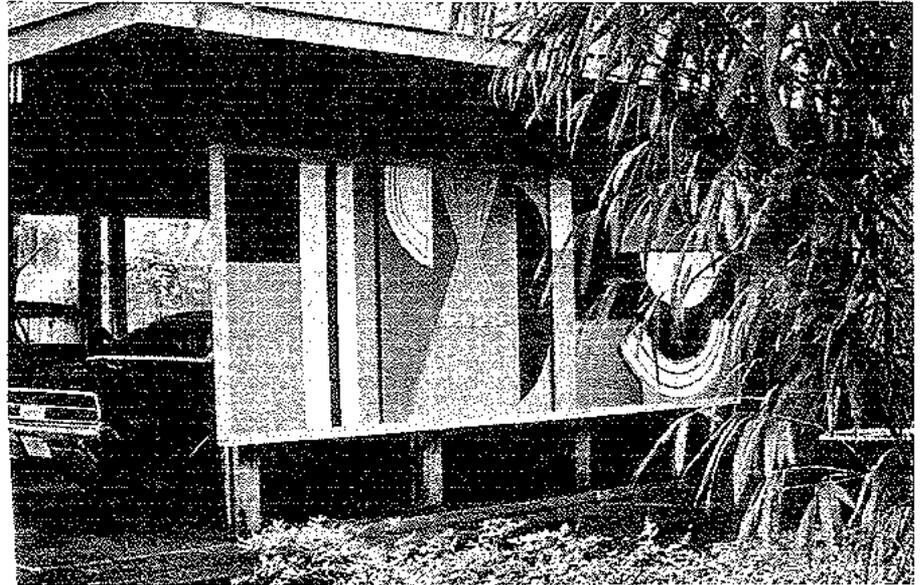


그림-2. 주차공간의 단순함을 그래픽으로 미화시킨 수직적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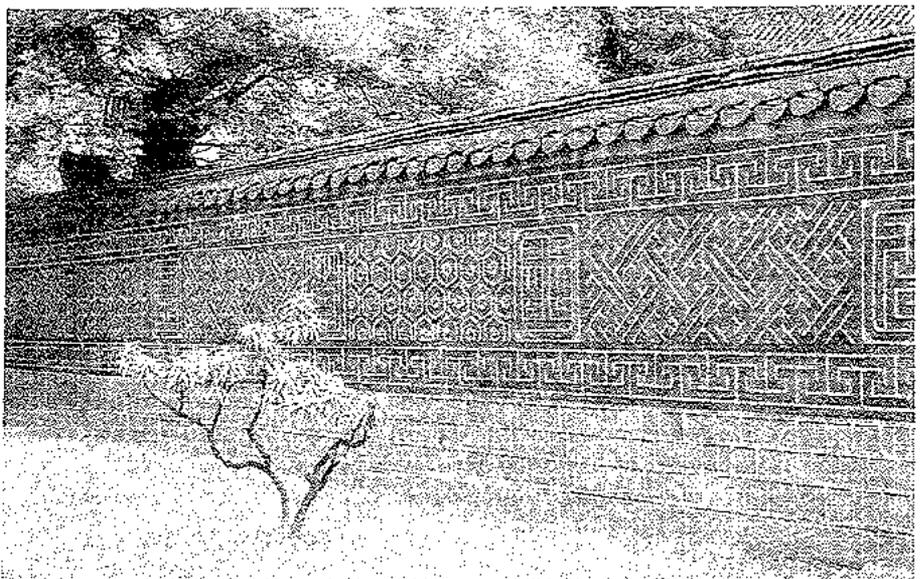


그림-3. 경관요소로서의 담장 문양

크기와 성질 뿐 만 아니라 개방된 공간의 크기나 성질은 틀에 짜여진 공간의 이용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공간으로부터 보여지는 모든 것은 시각적으로 공간내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의 주위 환경에는 가능한 보지않아도 되는 대규모 주차장이나 복잡한 도로 교통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건설 현장과 같은 활동 그리고 외부에 설치된 냉방장치나 방치된 교압변압기 같

은 대상물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지역, 활동이나 대상물을 차폐시켜 전체적인 환경을 적어도 받아들여질수 있게 만들기 위한 수직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차폐는 어떤 조화적인 요소나 적어도 덜 눈에 거슬리는 요소를 갖고 시선이 멈추는 곳을 가리는 것이다. 차폐는 시선의 방향에 있는 경관에 대해 시각적인 조절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단순히 감춤에 의해 추한 부

분을 없애는 것이다. 차폐는 경관의 다른 부분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고립·한정된 은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차폐도 추한 부분을 차단하여 시계를 증진시킬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과 단순히 차단만 시키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차폐에 대한 가능한 여러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설계자들은 대상물이나 지역, 활동에 대한 크기, 규모나 넓이를 알아야 한다. 어떤 지역은 계절적으로 더욱 불유쾌한 시계를 갖출수도 있다. 차폐는 불만족스러운 시계(視界)의 방향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은 부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부지를 쳐다보는 시각분석과정에서 얻어진다. 접근하는 방향이나 쳐다보는 시선의 각도는 효과적인 차폐를 위한 재료의 간격및 길이를 결정하게한다. 또한 불쾌한 시계를 보며 통과하는 움직임의 속도도 효과적인 차폐방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폐 재료는 더욱 넓은 간격을 유지시켜야 한다. 관찰자의 높이와 거리, 위치는 차폐 재료의 선택과 위치를 결정하게 한다.

환경설계자들에게는 차폐를 조성할 수 있는 수 많은 재료들이 있다. 그 재료는 구조물, 지형의 변경, 담장, 조각물의 설치등 여러 방법과 재료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재료는 주위의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식물재료일 것이다. 다른 차폐재료와 비교하면 식물은 성장하고, 계절의 다른 변화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재료이지만, 자연스러운 외관과 형태나 질감, 색의 다양함으로 각양각색의 특질을 갖고 있다. 크고 먼 거리에 있는 물체는 차폐를 위해 비교적 큰 식물을 선택해야 하고,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밀실된 식물재료나 간격을 촘촘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인식의 능력 때문에, 관찰자의 상대적인 거리와 더불어 대상물체나 지역, 활동상태의 크기는 차폐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움직임



그림 -4. 인공재료를 자연재료를 이용한 차폐

의 속도는 직접적으로 인식능력의 폭과 관련이 있다.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계는 더욱 좁아진다. 그런고로, 불투명한 식물의 차폐는 정지된 관찰자에게는 불유쾌함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겨울에 낙엽수의 투명성은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적절하다(그림-4).

3. 위요로서 수직적인 요소

폭발적인 인구의 팽창은 한정된 공간에서 복잡하기만하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개인의 사적인 공간은 환상적이고 외부공간에서는 아주 얻기 어려운 장소가 되었다. 사적(私的)인 공간은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단체에게도 필요하다. 사적인 공간을 개인이나 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외부사람으로부터 적리를 의미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 언급한 차폐와 사적인 통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차폐는 단지 시계만을 가리며 자유스러운 접근을 허락할 수 있지만 사적인 조절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공간 이용자로 하여금 사적인 공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장 공적인 공간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도시나 주택, 구조물에서 연속적인 위계 조직을 언급한 사람은 「서쥬 셰마이프(Serge Chermayeff)」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가 「Community and-Privacy」에서 언급하였다. 그 위계는 도시의 공적인 공간, 반 공적인 공간, 단체의 공적인 공간과 단체로서 사적인 공간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6단계로 설명하였다. 사적인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종류에서 다른 단계를 넘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장애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활동사이에 전이적인 요소로서 「록(lock)」의 개념이다. 사적인 「록」은 실제적으로 일종의 지역으로서 공적이고 사적인 지역을 보존시키기 위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대도시에서 주거지역을 위한 대규모의 「록」인 전이적인 공간은 공원이나 녹지지역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러 구조적인 재료가 사적인 공간을 더욱 완벽하게 창

출해낼 수 있지만, 식물재료도 지역사이에 전이적인 역할로서 사용된다(그림-5). 식물은 완충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어떤 방법에서나 어떤 규모에서 사적인 장소를 제공하며, 심지어는 전체적인 대지도 사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사적인 공간의 정도는 그 공간 내부를 사용하는 사람의 희망과 그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

그 정도는 시계와 소음의 완전한 차단으로부터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다양하다. 요구되는 사적인 공간의 감흥 정도가 재료를 선택하기 전에 결정 되어야 한다. 사적인 분위기의 침해 방향, 양과 원천이 사적공간 요소의 형태, 크기, 모양이나 위치에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다.

수목의 이용에 의한 사적인 장소는 요구되는 울타리의 방향, 높이, 넓이와 정

도에 따른다. 허리높이 자라는 식물은 부분적으로 사적인 공간을 만들며, 밀실되고 간격이 촘촘하며 시선 위까지 성장하는 산울타리는 완전한 사적 공간을 창출한다. 그런고로, 효과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식물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상호 조합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4. 천정적인 요소

일반적으로 외부공간은 내부공간의 완전한 폐쇄성과 비교하여, 하늘에 노출된 지붕이 없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만일 외부공간에 구조물인 지붕의 연장으로서 피난처 기능을 갖추어 준다면, 부분적이거나 완전하게 보호되어질 수 있다. 보호받아야 하는 요소인 태양, 빛바람, 햇빛, 복사열, 소음이나 심지어는 벌레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은신처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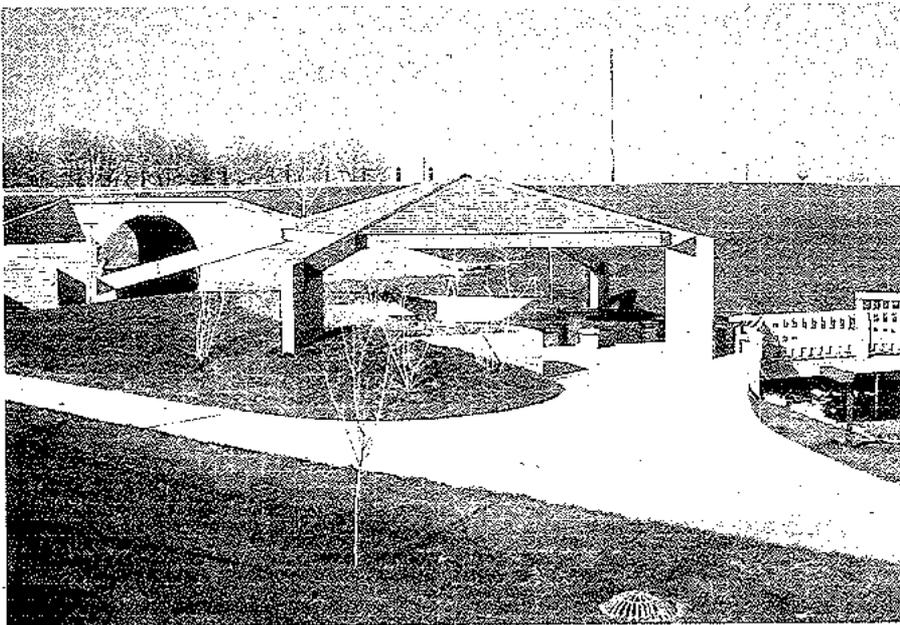
개방된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목 한 그루일 것이다. 오래된 고목나무 밑에 뜨거운 여름 한 낮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면 충분한 은신처 역할을 한다고 여길 것이다. 수목은 그 자체가 갖는 특질이 다르므로, 무엇 때문에, 언제, 왜, 어느 정도의 조절을 원하느냐에 따라 선택되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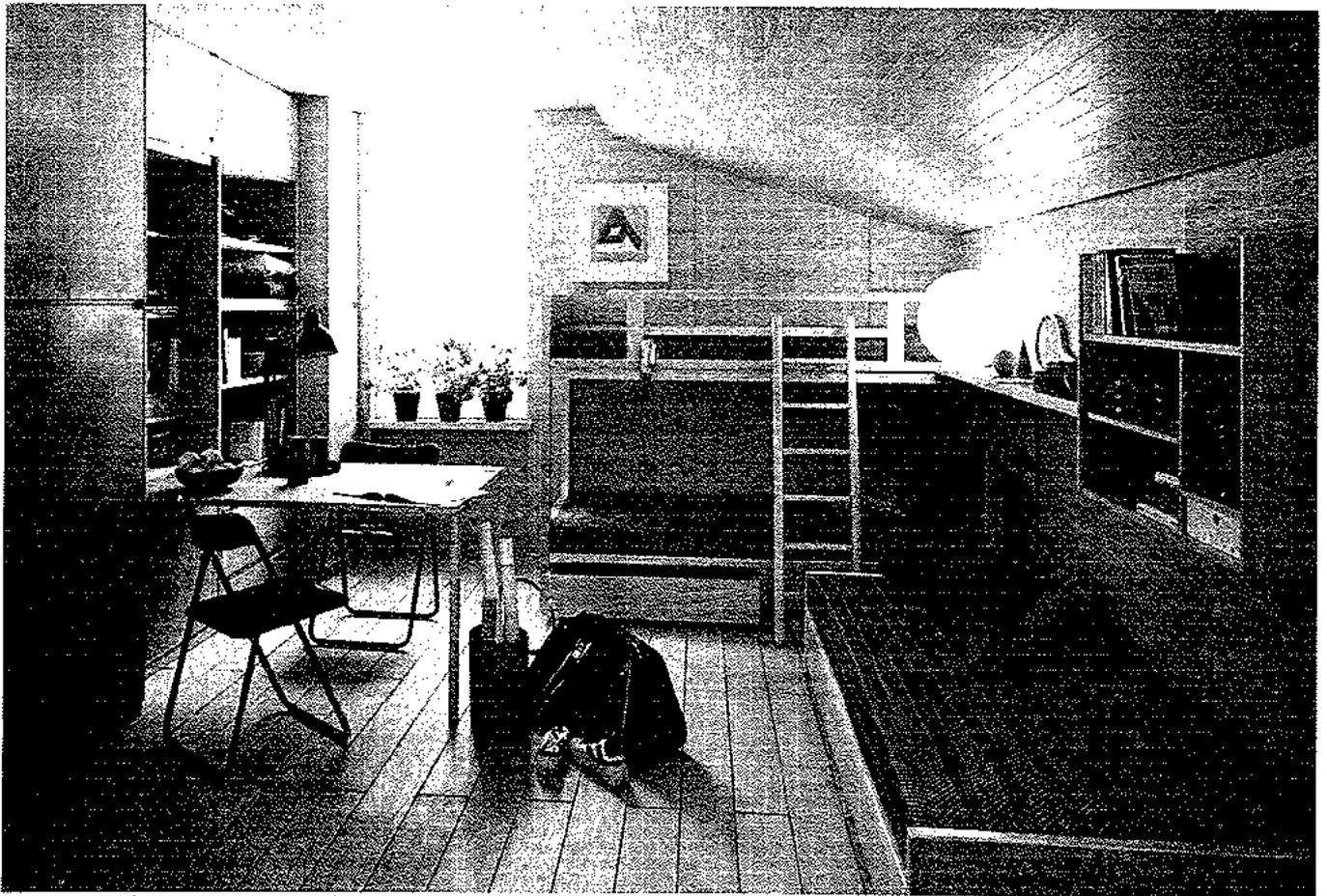
주택의 연장으로 격자형태위에 등나무와 같은 만정목을 올리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햇빛을 방 내부까지 끌어들이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수목 대신에 발과 같은 인공재료의 사용도 바람직하다. 이런 은신처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등나무를 올려 놓는 「퍼골라」만 생각하게 되지만, 격자 무늬만으로 햇빛을 가리우는 기능을 갖게 한다면 그 무늬가 바닥표면에 떨어져 태양고도의 변화와 더불어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낸다. 또 완전한 구조물로 주위 환경에 어울리는 모양과 질감·색채를 갖춘 천정적인 요소도 설계해 볼 수 있다(그림-6).



그림-5. 가로변에 세워진 사적인 공간

그림-6. 주거단지내의 「셉터」





인테리어 디자인

가 구

조성렬
큐빅디자인연구소대표

아파트를 비롯해서 모양과 재료가 비슷한 오늘날의 주택에서는 무엇보다도 주택 내부의 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주거가 이웃과 똑같을지라도 가구 거의가 대량생산되어질지라도, 가구는 우리 생활공간에 각자의 개성적인 취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주택 설계에 있어서 실내 마감이나 배색의 결정과 함께 가구 선택과 배치는 실내 디자인의 최종 단계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다.

주택의 가구는 생활 공간에 따라 거실 가구, 침실 가구, 어린이방 가구, 부엌 가구, 식당 가구, 욕실 가구 등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가구의 용도에 따라 식탁, 커피 탁자, 보조 탁자, 게임용 탁자, 부엌 탁자, 책상 등의 테이블 종류, 책장, 서랍장, 옷장 등 수납용 가구, 의자류, 소파류, 침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요즘은 특별히 용도가 뚜렷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목적으로 디자인되어 생산되고 있다.

주택에서 다목적 가구의 대표적인 것이 거실의 종합 선반장이다. 거실의 선반장은 주택의 실내에서 생활 기능, 저장

기능, 진열 기능 등을 동시에 단위벽면에 수용하는 다용도적 가구이다.

불박이 방식은 우선 가구를 최소한도 필요한 것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시도이다.

처음에는 불박이 가구라 하면, 막힌 장소를 찾아내 앉거나 잠자는 곳으로 사용 하였던, 건축 구조적 필요에 의해서 붙쑥 튀어나온 단단한 선반 형태였다. 건축상의 외형으로서 합쳐진 가구가 수세기 전에도 많이 쓰였던 것은 아니고 19세기에 와서야 좀더 집약적으로 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 시대 전의 건축 양식과 일체였던 값비싸고 장식적인 옷장 등에 대신하여, 오늘날 서양 주택에서는 극히 보통으로 사용되는 벽에 붙여서 만든 불박이장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의 아파트 주거에서도 이미 불박이장이나 선반류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불박이 방식의 다양한 수납법에 관한 것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부엌과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다른 방의 경우는 이사를 간다거나 실내의 사용법 변경이라는 문제 때문에 불박이 가구 형식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왔었다.

가구의 기능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료하다. 우리들은 가구를 눈으로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직접 접하며 감수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가구는 아주 분명한 반응을 거쳐 육체적 물리적 쾌적감을 느끼게 하고 혹은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건축의 실내 공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리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구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보다 친밀한 연관을 갖는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다루게 되는 가구나 또는 몸에 닿는 의류와 같은 요소는 사람의 오감에 밀접하게 작용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가구의 특징에 집착하거나 명확하게 싫고 좋음을 감정을 품는 것은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인지도 모른다.

또한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일반적으로 가구의 선택 및 디자인에 가장 관심을 나

타내는 것은 가구가 건축과 인간의 매개 혹은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혼 가정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구들을 사들이는 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완전한 식탁 한 세트는 식탁 하나와 네 개의 의자면 되고 여분의 의자와 찬장은 시간, 공간, 경제가 허락될 때 구입하면 된다. 거실의 경우도 책상과 책장, 두세 개의 안락의자는 장차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소파와 커피 테이블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혼수 가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옷장이나 화장대 등 침실 가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같은 재료로 된 세트인데, 가능한 한 소요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작은 부피의 것을 택한다. 또는 여러 기능이 한데 합쳐져 알맞은 크기의 유니트로 나뉘는 하나

의 침실 가구가 더 합리적이고 다른 것들과도 잘 조화될 수 있다.

새 집을 꾸미기 위해 가구를 구입할 때는 양적이 아닌 질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부수적인 가구들이 예산에 비례해 좋은 것으로 얻어질 수 있다. 행복된 가정의 기쁨은 먼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이루기 시작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들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된 가구를 체스터필드(Chesterfield), 카우치(Couch), 세티(Settee), 세틀(Settle), 대번포트(davenport), 디벤(divan), 라운지(lounge), 그리고 소파(Sofa)라고 부른다.

체스터필드는 천으로 씌운 팔걸이를 양쪽 끝에 가진, 속을 두껍게 채운 소파를 말하고, 카우치는 한쪽 끝이 말아올려지고 낮은 등받이로 된 소파를 말한다.





대번포트는 미국에서의 경우 침대로도 쓰일 수 있는 업호울스터리로 씌워진 소파로, 원래 이 용어는 작은 책상을 뜻하며 제작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디벤은 터키어로 누울 수 있게 모피류의 양탄자를 드리운,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크고 낮은 침상이다. 라운지는 침상 형태로 기댈 수 있는 높은 팔걸이가 있는 것도 있다. 러브 시트(love seat)는 두 사람을 위한 작은 소파 또는 2인용 의자를 말한다. 등받이가 있고, 메로는 팔걸이도 있는 세터는 길고 가벼운 의자를 말하는데 천으로 씌우기도 한다. 세틀은 모두 나무로 된 세터를 말하며, 소파는 아라비아어에서 유래했고, 미국에서는 한 사람 이상 앉을 수 있는 길고 업호울스터리로 씌워져 모든 의자를 다 가리킨다. 소파의 변형은 수없이 많다. 직선, 곡

선, 또는 네모난 방에 맞도록 된 사각, 팔걸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한 덩어리로 된 것과 분리된 것, 180cm 이상의 길이로 늘어놓게 된 것과 그렇게 길지 않은 것, 무겁고 든중한 것과 섬세하고 우아한 것, 가볍고 단순한 것 등등.

소파를 선택할 때는 늘어놓기에 적당한 길이,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한 나지막하고 폭신한 것, 그러나 혼자서 스스로 쉽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이고 목직할 것, 편안한 팔걸이, 여분의 잠자리 공간이 필요해졌을 때 침대로도 전향할 수 있는 것, 가구를 자주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분리형으로, 그리고 아름다우면서 내구성이 크고 견고함을 동시에 갖춘 업호울스터린이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보기에 편안해 보이는 것이 소파

의 진정한 생명인데, 시각적인 매력에만 압도당해서도 안 되겠다.

의자 앉음판의 높이는 앉은 사람의 무릎 아래 다리 길이보다 다소 짧아야 발이 바닥에 놓여지고 다리힘이 느슨해진다. 앉음판 깊이는 무릎 위 다리 길이보다 약간 짧아야 무릎 아래 압박받는 부분을 없게 하고, 앉음판 폭은 작은 움직임 정도는 기능하게 하는 넓이어야 한다. 모양을 이루고 탄력이 있는 앉음판이어야 작은 무게만을 지탱하게 되어있는 골반의 가장자리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앉음판과 등받이 둘다 무게 지탱을 위해 약간 뒤쪽으로 기울어야 하고, 앉음판과 등받이 사이의 각은 95°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의자 등받이는 앉은 사람의 허리 부분을 받쳐 주어야 하고 앉음판과 등받이의

위치는 구식 의자에서 최신 안락 의자에 까지 휴식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적당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가구들을 특정한 하나의 방만을 그리고 한 가지 사용 목적만을 위해서 디자인되어 왔다. 테이블과 찬장 그리고 서랍식 식기선반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식당 가구 세트는 넓고 따로 독립되어 있는 식당을 채우고 있었다. 오직 의자만이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었지만, 그 의자는 어디에 놓여지든 식당용이란 특성을 드러냈다.

이제는 많은 종류가 다목적용이다. 어느 방에서나, 그리고 또 여러가지 배합으로도 알맞은 수납장 유니트와 장농 유니트가 있고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의자들이 있다. 테이블은 접었다 폼다 할 수 있고 의자나 소파는 침대로도 된다.

이러한 방법은 돈과 공간을 절약하고 개방된 평면 계획으로 집을 넓어 보이게 한다. 가구들이 차지하는 소요 면적이 집들이 작아짐에 따라 점차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뛰어난 몰딩이나 곡선진 다리를 피하고 가구들을 서로 붙여 놓을 수 있게 하고, 바닥과 벽을 수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

게도 한다. 재료로서는 금속, 유리, 합판, 스펀지 고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접고 겹치고 포갠 테이블과 의자를 개발하는 등 크기와 스케일을 줄인다.

내부분 모든 재료 자체의 자연스럽고 정직한 색채는, 그대로의 솔직한 표현을 살려 사용될 때 인공적으로 착색된 경우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요즘 가구에 있어서 다색 가구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어린이 의자의 다리와 팔걸이에 색을 넣는다든가, 서랍장의 한 칸을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여 색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다색의 가구를 만들 때도 기본 주조색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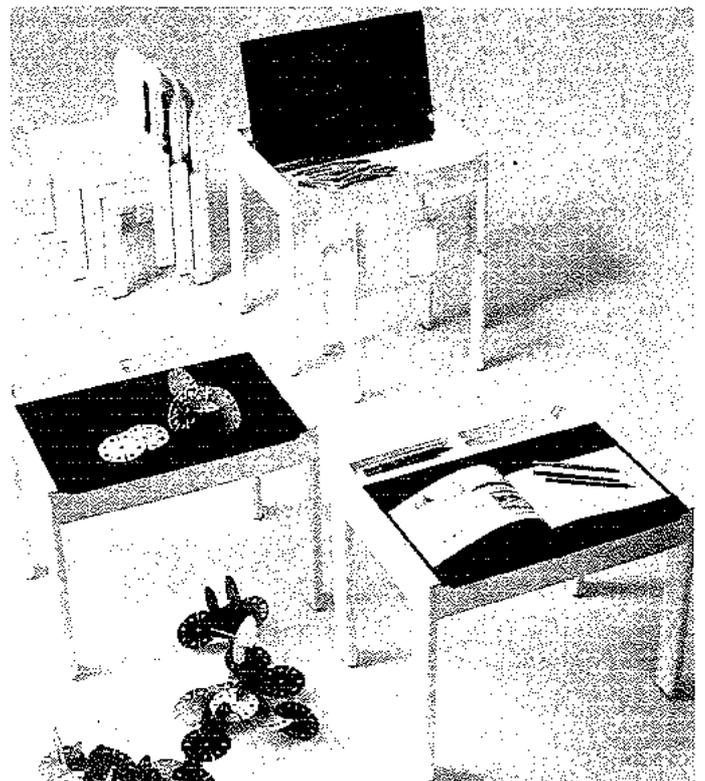
생활에 극적 효과와 자극을 주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 적절한 색채를 사용하는 일이다. 가구에 색이 입혀지는 경우는 실내 색채 배합의 악센트와 대비효과로서 다색 가구가 선택될 수 있다. 이때 가구의 색채 구성은 방 전체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생기가 넘치는 기본적인 색채 구성이어야 한다. 기본색 가운데서도 가장 싫증이 나지 않으면서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색은 흰 색이나 또는 흰 색 계열이다. 흰 색의 세트 내에서 빨강, 노랑, 파랑을 연관시키는 기본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식 가구의 경

우 가장 성공적이다.

각 가구의 기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 형태는, 또한 여러 종류의 통일성 있는 다양함과 밸런스, 리듬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 강조점(emphasis)을 가진 형태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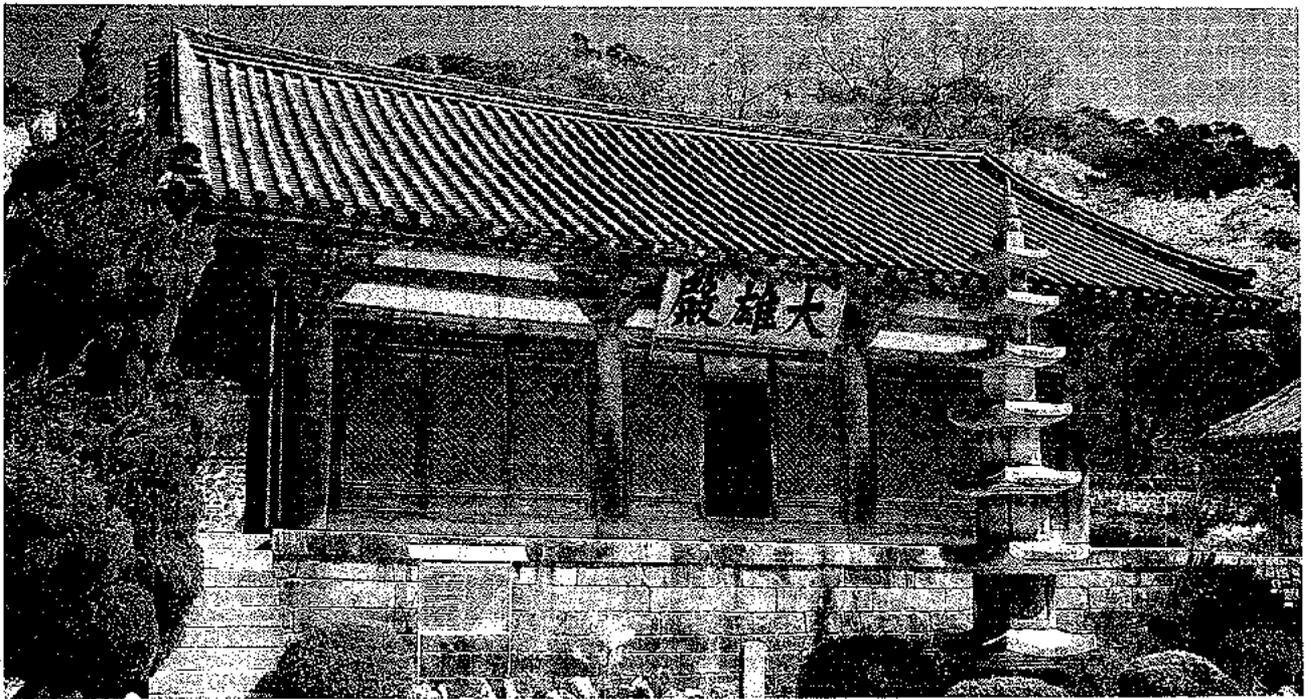
가구의 심리적 수명이란 여러 측면에서 균등하게 그러나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 만큼 값을 매기기가 어렵다. 가구의 장식성과 그 만족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통성 있게 주위에 잘 들어맞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타당성 있고 적절하게 보이는, 균형이 잘 잡힌 가구가어야 한다. 또한 재료가 정직하고 또 용도에 알맞아야 그 장식성을 더 할 수 있다.

가구의 장식성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 가구의 배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의 좋은 가구일지라도 중심을 흐리게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 산만하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가구의 집단 주위에는 동선의 자유와 그 가구의 외양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유도되어야만 한다. 가구는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과 맞아야 하며, 다른 가구나 방, 그리고 그 가족의 규모나 균형에 어울려야 주어진 아름다움과 개성이 드러난다.



修德寺 大雄殿

장기인
삼성건축설계사무소



수덕사 대웅전 건축양식 해설

1. 위치

修德寺는 禮山郡과 瑞山郡의 分界嶺인 伽耶山의 連峰으로 元曉峰·龍鳳山·三峻山·日月山 등으로 三面이 둘러싸였으며 수많은 溪流가 臥龍川으로 합류하여 瑞山灣으로 흐르는 上流 伽耶山 南麓丘陵에 서 있다. 東南向한 구릉지대는 山地寺刹의 절경을 이룬 곳이라 할 수 있다.

2. 창건연대

정확한 기록이나 문헌은 별로 없고, 전하는 말로는 百濟 枕流王 2년(383)에 印度僧 摩羅難陀가 東晉에서 入來하여 百濟國에 佛敎를 傳授한 바 있다고 하나 믿을만한 資料가 없으며, 또 新羅 統一後 智明大師의 創建으로 보고 있으나 확증이 없고, 다만 절 앞에 있는 五層石塔은 文武王 5년(665)에 建立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大雄殿 內的 벽화는 高句麗 畫僧 曇瑩(曇徵-고구려 26대 寧陽王 때의 名僧, 寧陽王 21년, 서기 610년 百濟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증 法定

과 함께 불법을 강론하고 채화·공예의 기술 및 紙筆墨과 맷돌 등의 제조법을 가르치면서 奈良의 法隆寺 金堂 內에 壁畫 四佛淨土圖를 그린것으로 유명함)이 殿內에 壁面를 그렸다고 전하나 현 건물은 高麗 忠烈王 34年(1308)에 建립(重建)되었으며 그後 朝鮮 中宗 23年, 英祖 27年, 同 46年, 純祖 3年에 數次의 보수가 있었다. 高麗때의 壁面는 日政末期에 工事中斷으로 解体된 채 破失되고 模子圖 一部가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大雄殿은 1937年 修理工事時에 발견된 墨書銘으로 元의 至大 6年(1308)의 建립으로 밝혀져서 建립연대가 확실한 건물중의 하나이다.

3.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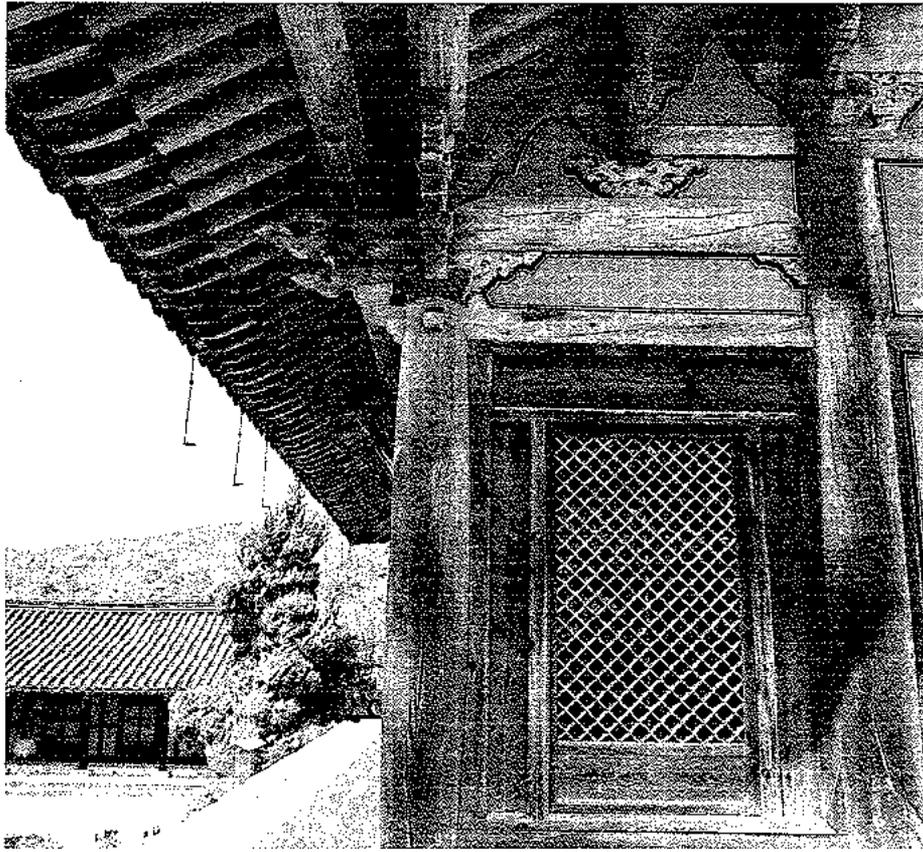
修德寺는 일찍부터 이름난 古刹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百濟 또는 新羅 初瓶 當時나 高麗 重建時의 옛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더욱 1900年代 後半期에 再建하기 시작한 諸佛殿·門樓·寮舍 등은 옛 격식과 풍모는 찾을 길이 없게 된듯하다. 다만 대웅전만이 그 옛 雄姿를 간직한

唯一無二한 존재로서 우리들의 눈길을 매혹할 따름이다.

建物地는 3段으로 구분하여 마당(平庭)을 이루고 전면의 第1段은 雜石을 맞대어 쌓아 높이 3m에 이르고 寺域入口에서 이곳까지는 완만한 傾斜路로 연결된다. 제 2단과 대웅전이 서있는 제 3단은 모두 높이 2.40m의 석축으로 되어 있다. 제 3단의 축대는 0.30×0.35×1.25m 가량의 長臺石을 바른층 쌓기로 하고 6단을 쌓았으며 최우측에 계단을 두고 있다. 후면은 두벌대 쌓기로 하여 近陵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前面 築臺 下部에는 落水 물도랑과 화단을 꾸미고 있다. 礎石은 주로 自然石 柱礎를 쓰고 있으며 일부에는 柱座를 세긴 礎石을 쓰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흔히 사용된 것으로서 柱座彫刻도古拙한 느낌이 있다.

4. 구조개요

大雄殿은 正面 3間(총길이 46.75尺), 側面 4間(총길이 35.56尺)이고 면적은 46.18평이다. 따라서 평면형은 전면과 측면의 길이 비가 1:1.315로서 장방형



수덕사 대웅전 귀기둥

을 이루고 있으며 柱心包系 樣式을 지닌 現存하는 한국 最高의 건물중의 하나이다.

正面, 側面 모두 等 間隔의 柱間 配列로 되어 있으며 正面은 東魏尺으로 정확히 40尺, 側面은 30尺 남짓하다. 따라서 전체 寸수를 三分 또는 四分하여 기둥간격을 잡은 듯하다(여기 東魏尺 1尺은 1.17曲尺).

내부 좌우쪽에 雙高柱(前後高柱)를 세워 前後退間을 둔 九梁집 구조이고 單層 맞배지붕(박공지붕)이며 물매는 5.0寸~7.5寸이다.

前後面 平기둥 높이는 11.5尺이며 上端지름 1.15尺, 下部지름 1.48尺, 중간부 최대 지름은 1.72尺의 강한 배흘림으로 上端 지름과 중간최대 지름과의 차이는 0.57尺이나 되고 기둥높이와 기둥지름의 비는 1:0.15가 되며 이는 江陵 客舍門의 기둥 다음가는 柱心包系 建物 기둥의 굵기를 가진 것이다.

內 高柱의 높이는 16.20尺이며 처마 중심도리의 높이는 16.08尺이고, 처마추리(처마내밀기)는 7.85尺 총 건물고는 28.21尺이다.

拱包樣式은 外 一出目 柱心包系 拱包로서 平枋은 없이 昌枋만을 돌리고 외부 기둥 上部에는 翫첨차(虛檐遮, 柱頭出拱)를 만들어 退梁 簷목인 二諸工과 行工檐遮를 받도록 하였다. 이것은 翫보머리와 短長欄를 받아 外目道里(出目道里)를 받치고 있다.

기둥머리에 끼이어 내린 翫첨차는 끝이 斜切되고 前面 線刻은 蓮花頭飾(雙Z字, 雙S字)形으로 되어 있어 初期柱心包系의 양식을 다르고 있다.

첨차(檐遮, 簷遮)의 楅(材高)과 나비(材幅)의 비는 3:1.67이고, 安東 鳳停寺 極樂殿과 비슷한 수치로 되며 行工첨차는 一枋三升의 基本形을 하고 있다.

拱包帶에 뜬 長欄가 있는 것은 鳳停寺 極樂殿이나 浮石寺 無量壽殿과 같으나 다른 점은 翫첨차가 있고 그 위에 初諸工(初出拱)이 直交하는 첨차와 同一形十字로 짜이지 않고, 전면으로 길게 늘어 밀어 쇠서(垂舌)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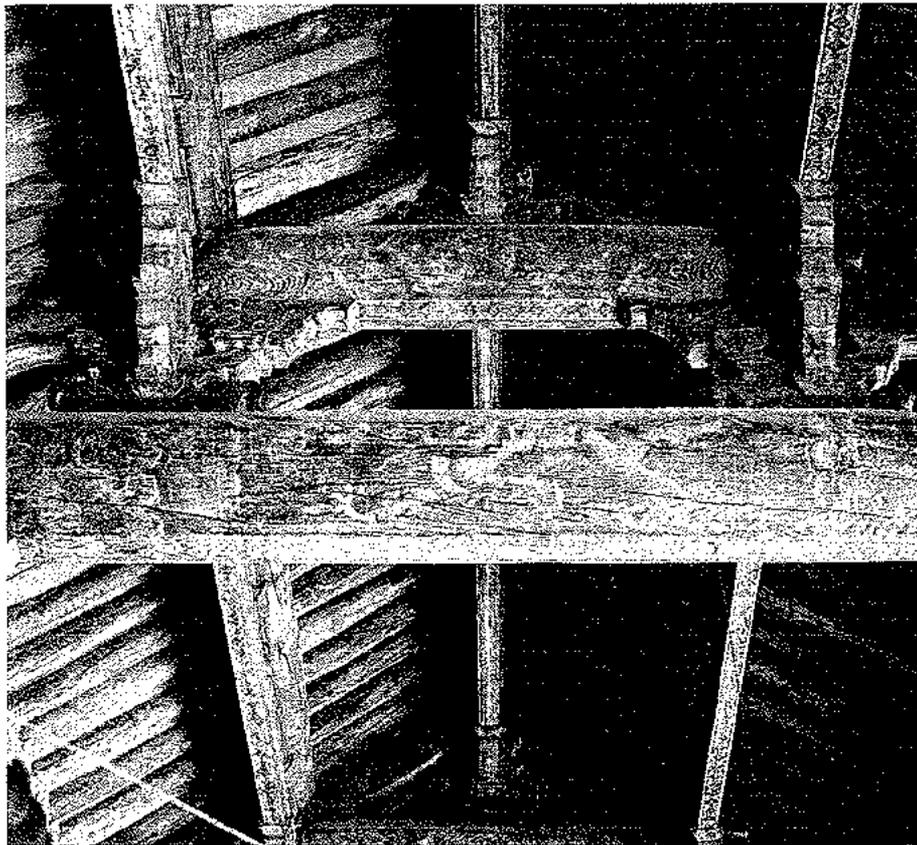
拱包(枋拱)에 있어서 주두(柱頭, 柱枋)와 소로(小累, 小櫨)의 굵은 오목굽으로 內反된 곡선을 이루고 굽받침을 두고 있다. 소로의 굵은 拱包材의 폭과 같이 하

고 있어 浮石寺 無量壽殿의 소로와 같은 형식이며 中國 宋氏營造法式에 나타나는 比例를 갖고 있다.

內拱包는 翫첨차 위에서 初諸工이 草刻한 보아지(梁奉)로 되었으며 退梁 위에는 波蓮 草刻한 華盤이 草枋을 받치고 있다. 柱心도리에서 宗보(宗梁) 밑까지는 前後에 三組씩의 牛尾梁(牛尾梁, 虹梁)으로 연결되었으며 宗보위에는 초각한 화반과 包蓋工을 짜서 上中道里와 마루도리(宗道里)에 연결되는 曲率이 큰 斗를 합잡(人字臺工)과 함께 마루도리를 받치고 있어 前後退間 九梁閣으로 하고 있다.

退梁이나 高柱에 걸리는 長梁과 宗보의 단면은 梨瓜形(栗瓜形)을 이루고 있어 우람한 보가 시각적으로는 날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 端部에서 중간은 약간 밀을 들어 올린듯이 깎아낸 것도 보의 強度를 드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의 簷목은 斷面이 부채꼴(扇形)로 되었으며 拱包材의 일부가 되게 한것도 특이하다.

退梁 위에 얹힌 草枋의 바깥 끝머리를 銳角斜切한 것도 고건물에 나타나는 手



수덕사 대웅전 들보

法이며 처마도리 장여와 직교하는 牛尾梁(曲梁, 曲草枋)으로 중도리의 공포와 결합시킨 수법은 木構造 架構의 화려함의 최고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下中道里的 단면은 梯形을 하고 있어 다른 中道里 마루대가 円形 斷面인데 비해 특이한 경쾌감을 보이고 있다.

上中道里는 大梁 위에 草刻 華盤을 놓고 栱包를 짜서 宗梁(宗梁)을 받고 그 위에 草刻한 받침(脚頭)과 直交하여 짜여지고 있다.

마루도리는 草刻한 華盤臺工 위에 栱包를 짜서 栱 창방과 장여를 받치고 또 도리를 받고 있으며 마루도리 좌우에는 활모양의 곡선재로 上中道里에 빚터어 놓아 안정을 꾀한 솜을 합장도 柱心包系 架構의 特異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 건물의 특징을 요약하면 平枋없이 昌枋만을 돌리고 柱頭와 小累는 오목굽에 굴받침이 있고, 또 첨차 端部 下面에는 雙Z字形의 새김질을 하고 깊은 草刻(波蓮刻)을 쓰고 있으며 灣曲된 牛尾梁과 솜을 露工 等を 들 수 있다. 또 기둥은 강한 배흘림을 나타내고 또 大梁·退梁·宗梁의 斷面은 모두 향아리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建立年代가 확실한 최고의 현존 건물로서 安東 鳳停寺 極樂

殿, 榮州 浮石寺 無量壽殿과 같이 고려 조의 건축양식인 전형적인 수법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의 화사한 架構의 구성은 조형미에 충만된 듯하며 側面 架構는 彫刻物과도 견줄만큼 아름답기만 하다.

大雄殿은 1937년부터 4년에 걸쳐 解體·修理되었다. 林泉(1908~1965)은 丹青·壁面模寫의 所任으로 이 공사에 참여하였는데 模寫 중에 白粉으로 朝鮮朝 中宗 23(1528)년에 丹青을 改彩하였다는 記銘을 발견했고 壁面模寫 중에 壁 내면에 밑그림이 있음을 찾아내었는데 밑그림은 원래의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 벽화가 그려진 壁體를 분리하는 중에 묵서명이 발견되었는데 내용은 '至大元年 戊申四月十七日立柱'로 밝혀졌다. 고려 忠烈王 34(1308)년의 글씨였다. 이로써 건물과 壁面의 제작 연대가 분명해졌다. 원 위치(插圖 106)에 있었던 벽화와 그 명칭은 별표와 같다.

이들 벽화는 그후 일인들에 의하여 放置됨에 따라 흩더미가 되어 光復以後에 없어졌고 模寫品도 日人들이 가져가 현재 國內에는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지금은 대웅전에 가 보는 사람들도 壁體에 壁面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었다. 단지, 古色蒼然한 丹青이 内部 各部

材에 남아 있어 옛스러움을 맛볼 뿐이다. 墨書銘에서는 英祖 27(1751)년과 46(1770)년에 重修한 사실과 純祖 3(1803)년에 補修한 기록을 알 수 있다.

● 동쪽 벽화

名稱	位 置	크 기	數 量
水生花園	高柱中枋 위	7.20×4.90尺	2
青極樂鳥圖	高柱 위 包壁	5.50×1.60尺	2
蓮華唐草圖	高柱樑 위	6.00×0.90尺	1
小佛三體圖	宗樑 밑	6.00×1.30尺	1
羅漢圖	虹霓樑 밑	3.00×2.50尺	6
小佛三體圖	退樑 밑	7.00×2.50尺	2

● 서쪽 벽화

野牛花園	高柱中枋 위	7.20×4.90尺	2
白極樂鳥圖	高柱 위 包壁	5.50×1.60尺	2
牡丹唐草圖	高柱樑 위	6.00×0.90尺	1
小佛三體圖	宗樑 밑	6.00×1.30尺	1
羅漢圖	虹霓樑 밑	3.00×2.50尺	6
小佛三體圖	退樑 밑	7.00×1.40尺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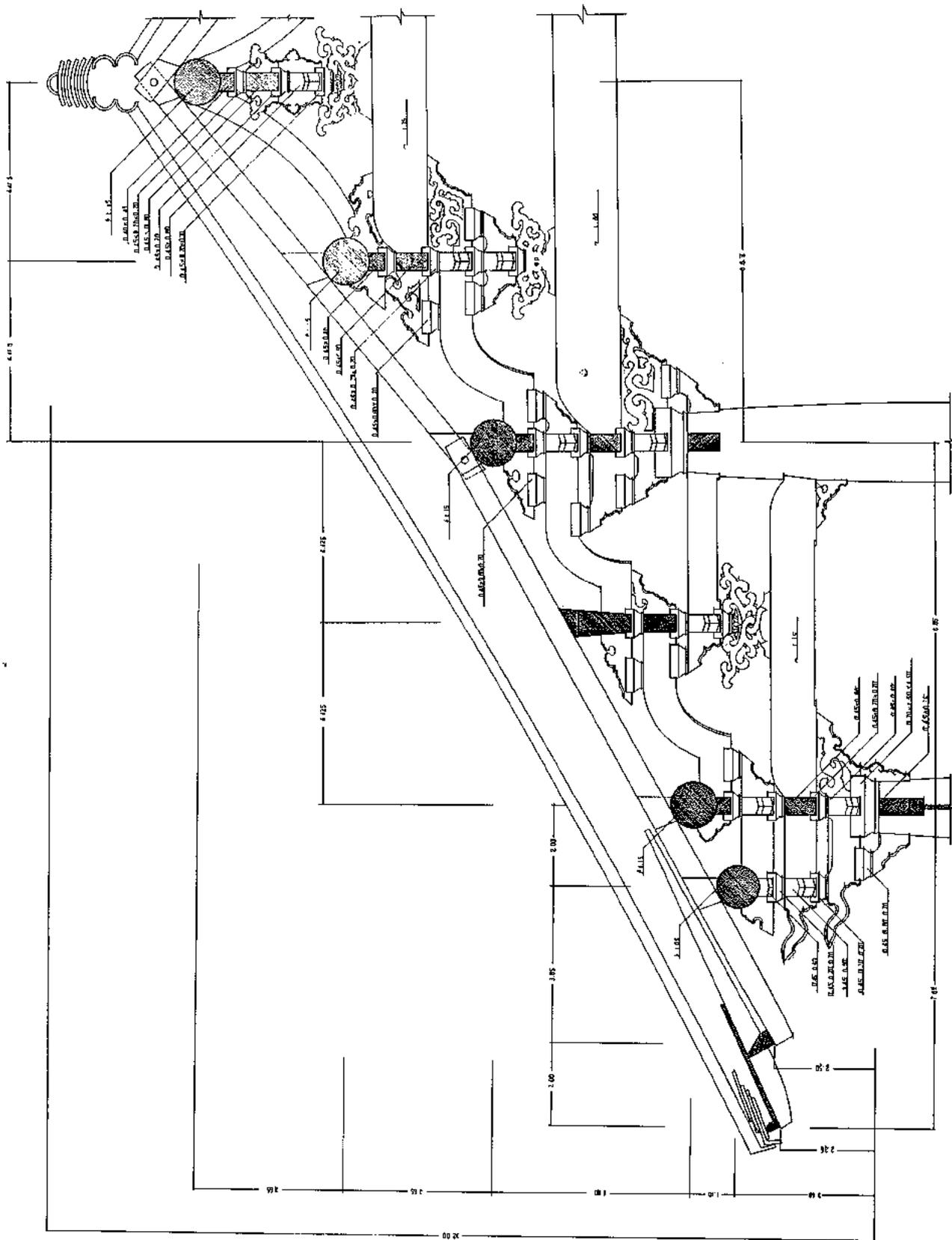
● 남쪽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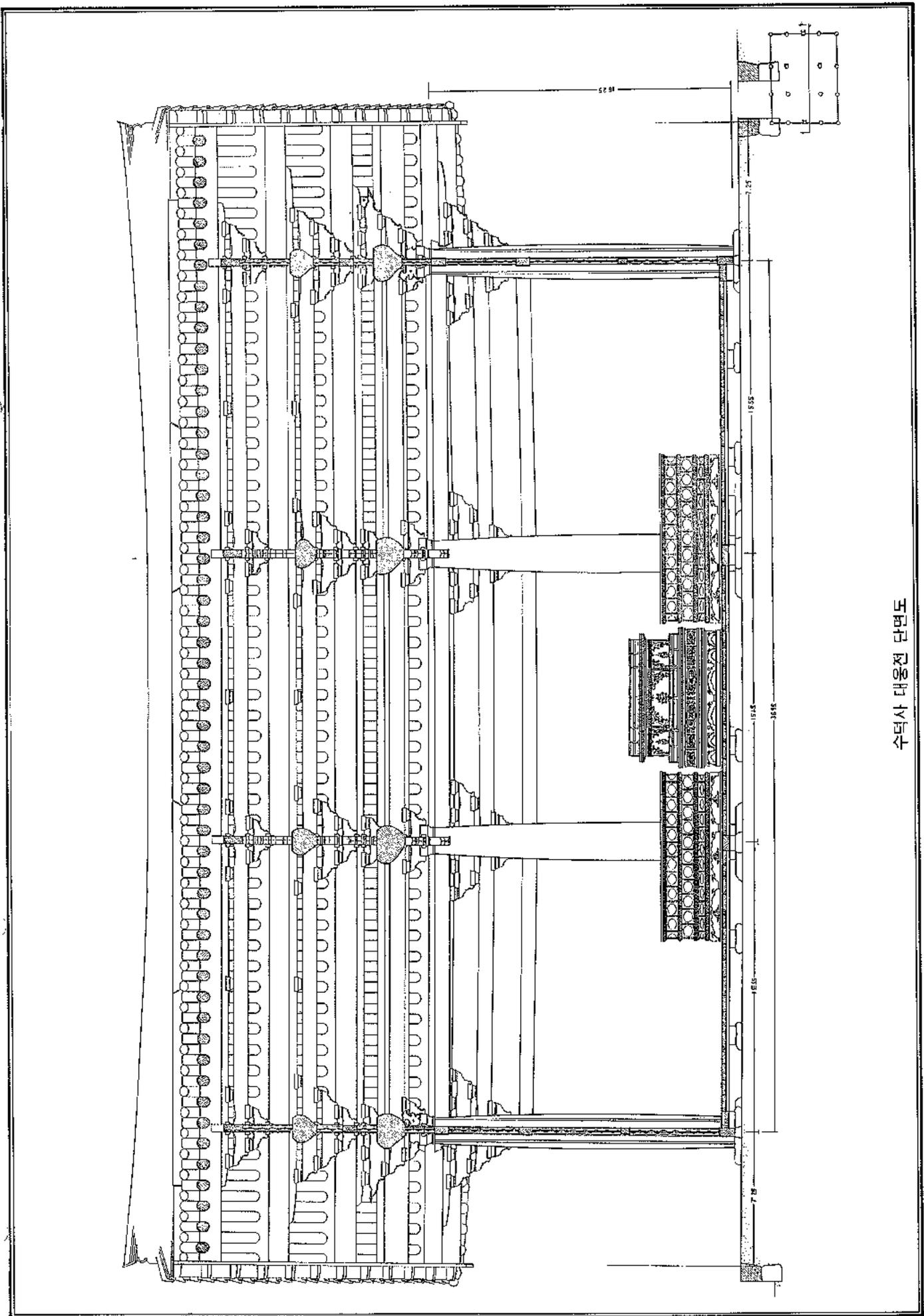
小佛五體圖	昌枋 위 包壁(上部)	1.20×1.40尺	3
飛天樂舞圖	昌枋 위 包壁(下部)	1.50×1.40尺	3

● 북쪽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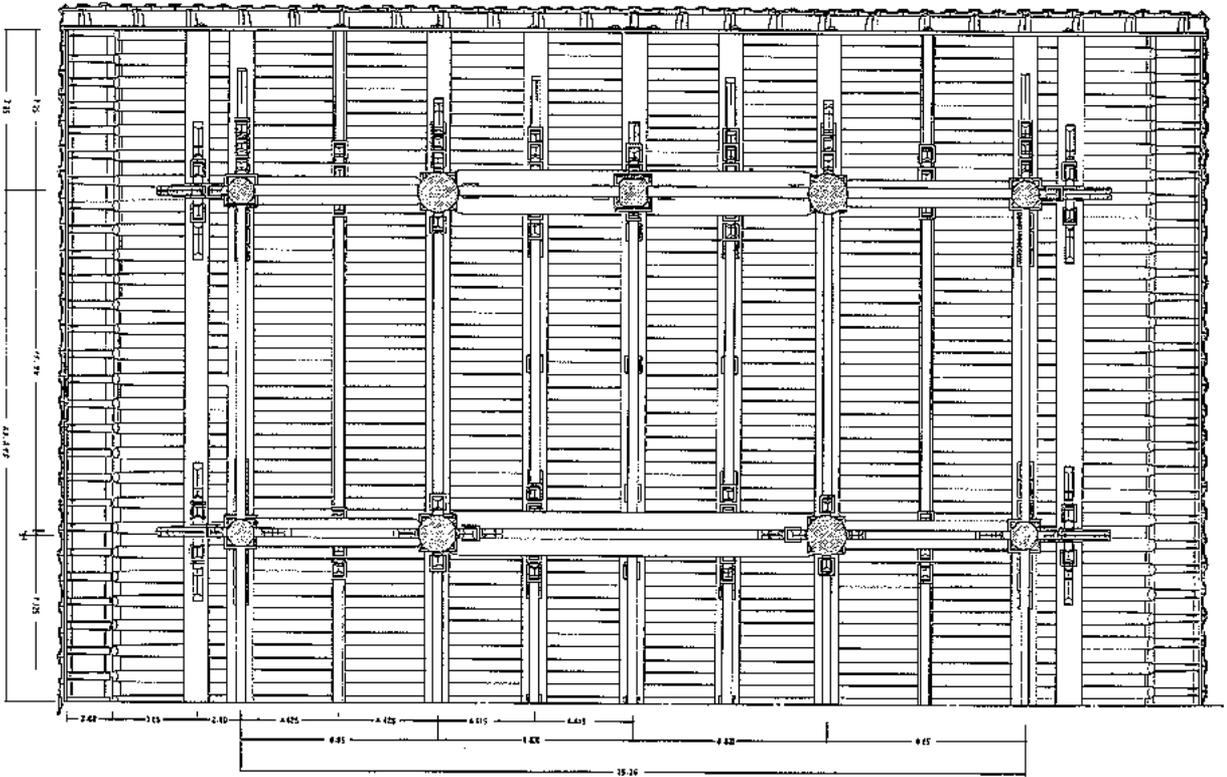
小佛五體圖	昌枋 위 包壁(上部)	1.20×1.40尺	3
飛天樂舞圖	昌枋 위 包壁(下部)	1.50×1.40尺	3

수덕사 대웅전 기구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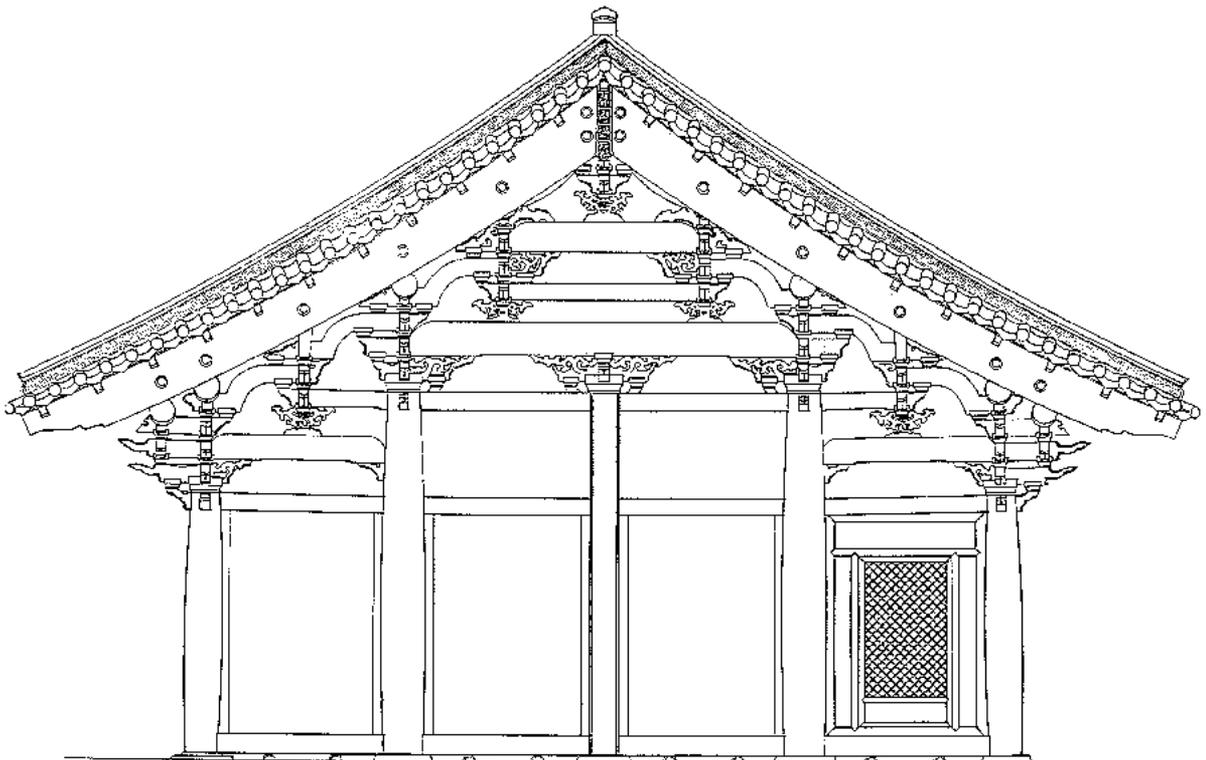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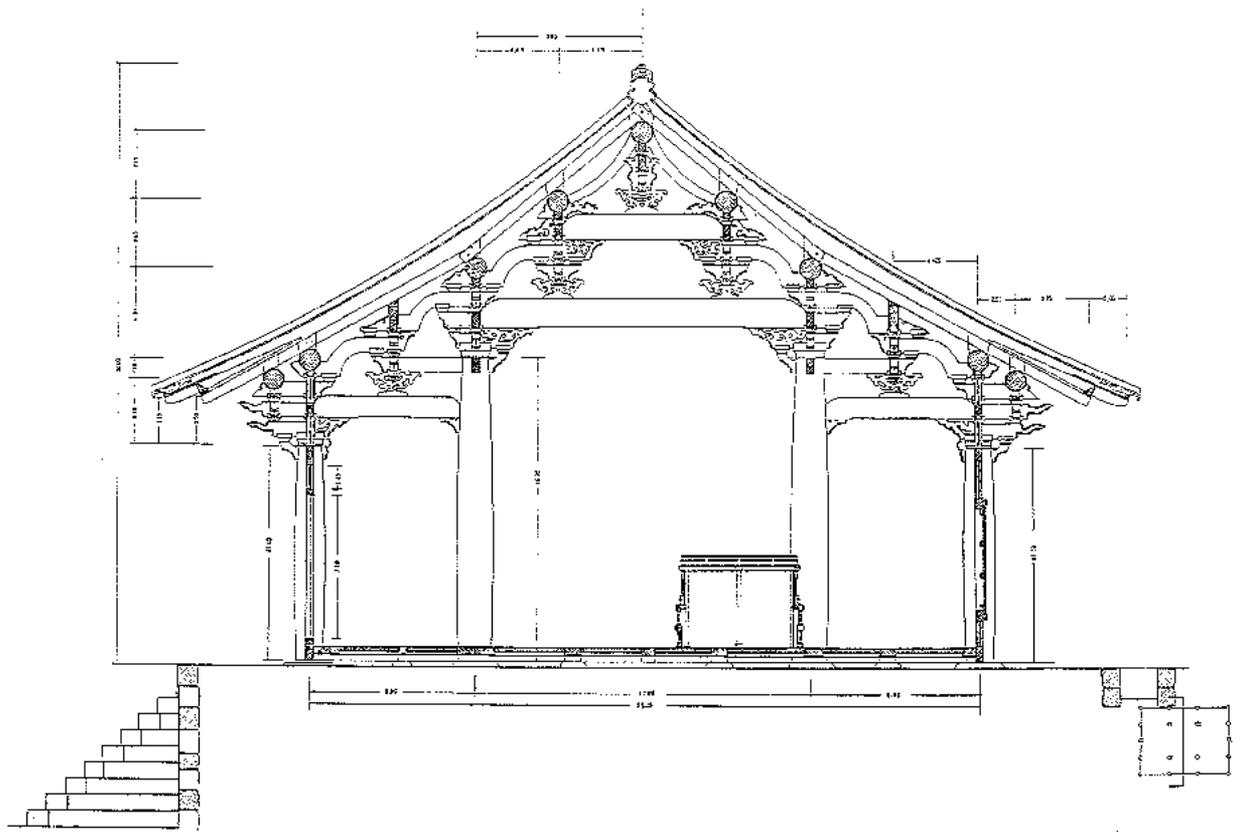
수리사 대웅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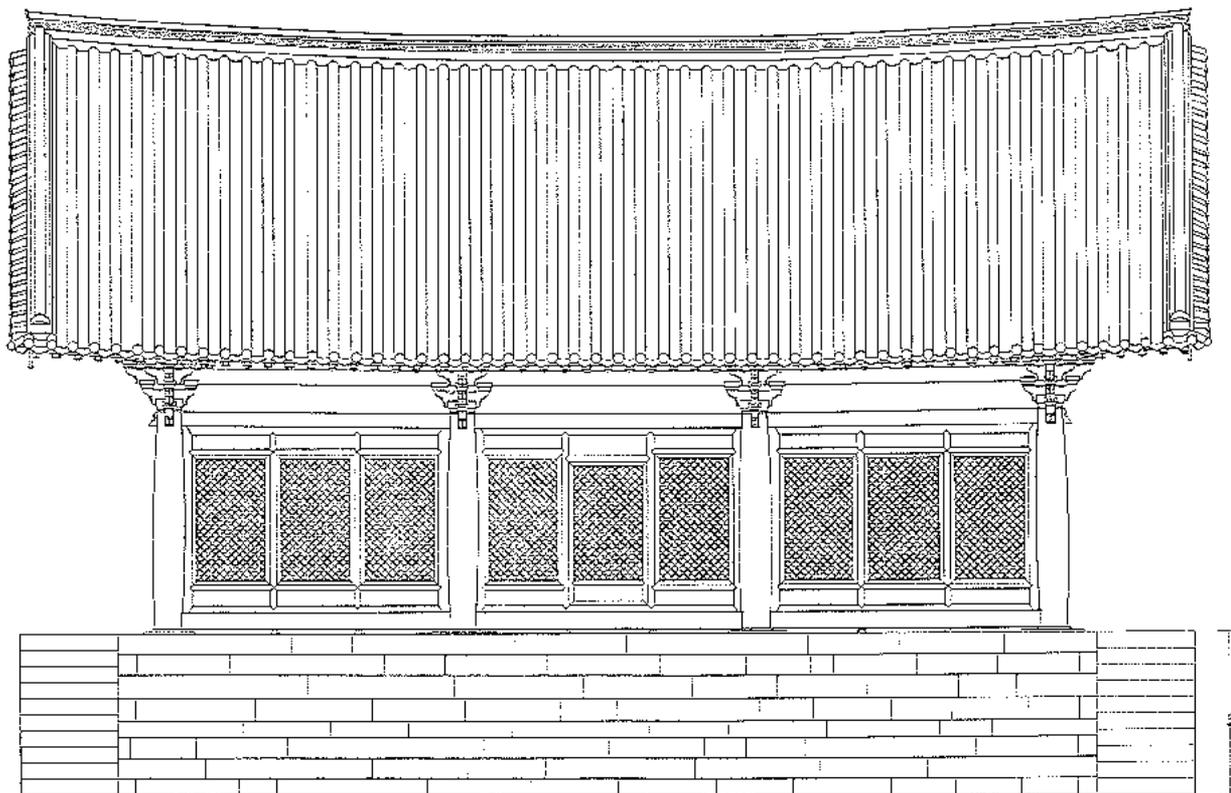
수덕사 대웅전 양시도



수덕사 대웅전 서측면도



수덕사 대웅전 종단면도



수덕사 대웅전 입면도

花巖寺 木造建物 實測報告

이 응 목
 새한건축문화연구소



1. 서

화엄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가천리에 있는 佛明山의 한 지맥이 급경하게 능선을 이룬 증덕에 자리잡고 있다. 전주에서 북방 35km 거리이며 해발 470M 인 이 산세는 사랑이 천장의 층암절벽을 이루고 준급한 계곡에 여러 개의 폭포가 있다.

사지가 있는 터는 표고 270M 가량되고 전체적인 좌향은 西南間을 면하고 있다.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져 있다가 수년전 뒤늦게 밝혀진 이 사원건물들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本殿인 極樂殿의 공포구성이 독특한 이른바 下昂式 공포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下昂 구조를 갖은 실존건물은 없으나 백제 때의 靑銅小塔이나 신라 靑銅佛龕에 나타난 栱包의 모양으로 보아 그당시 목조건물에 下昂이 채택되었을 것으로 유추되어 우리의 建築史에서는 삼국시대 목조건물의 한 유형으로 취급하여 왔다. 또한 백제인들이 경영하였다는 下昂式 공포구조의 목조건물이 일본에 잔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 건물의 下昂 모습은

중국과 일본의 下昂構造와는 그 구성과 세부기법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의 極樂殿 건물은 丁酉再亂 후인 1605년(宣祖 38年)에 重創되어진 것이나 백제계 목조건축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花巖寺 重創碑文에 의하면 花巖寺는 신라 元曉, 義相 두 祖師와의 관련으로 開創된 후 고려 충열왕 때(1297~1307사이) 化主 達生 등이 重創되었다 하였고 그후로도 여러차례 重修 또는 重創되었음이 보수공사시 발견된 墨書銘에 의해 밝혀졌다.

同寺에 있는 雨花樓는 多包系 맞배집의 層樓이나 그 架構구성이나 세부재의 조각수법에서 柱心包系를 연상케 하는 折裏樣式의 建物이라 할 수 있다.

'84年 下半期에 이들 建物에 對한 精密實測調査 作業에 참여한바 建築樣式과 技法의 概要를 간략히 소개코져 한다. 상세한 實測記錄 등은 同 報告書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배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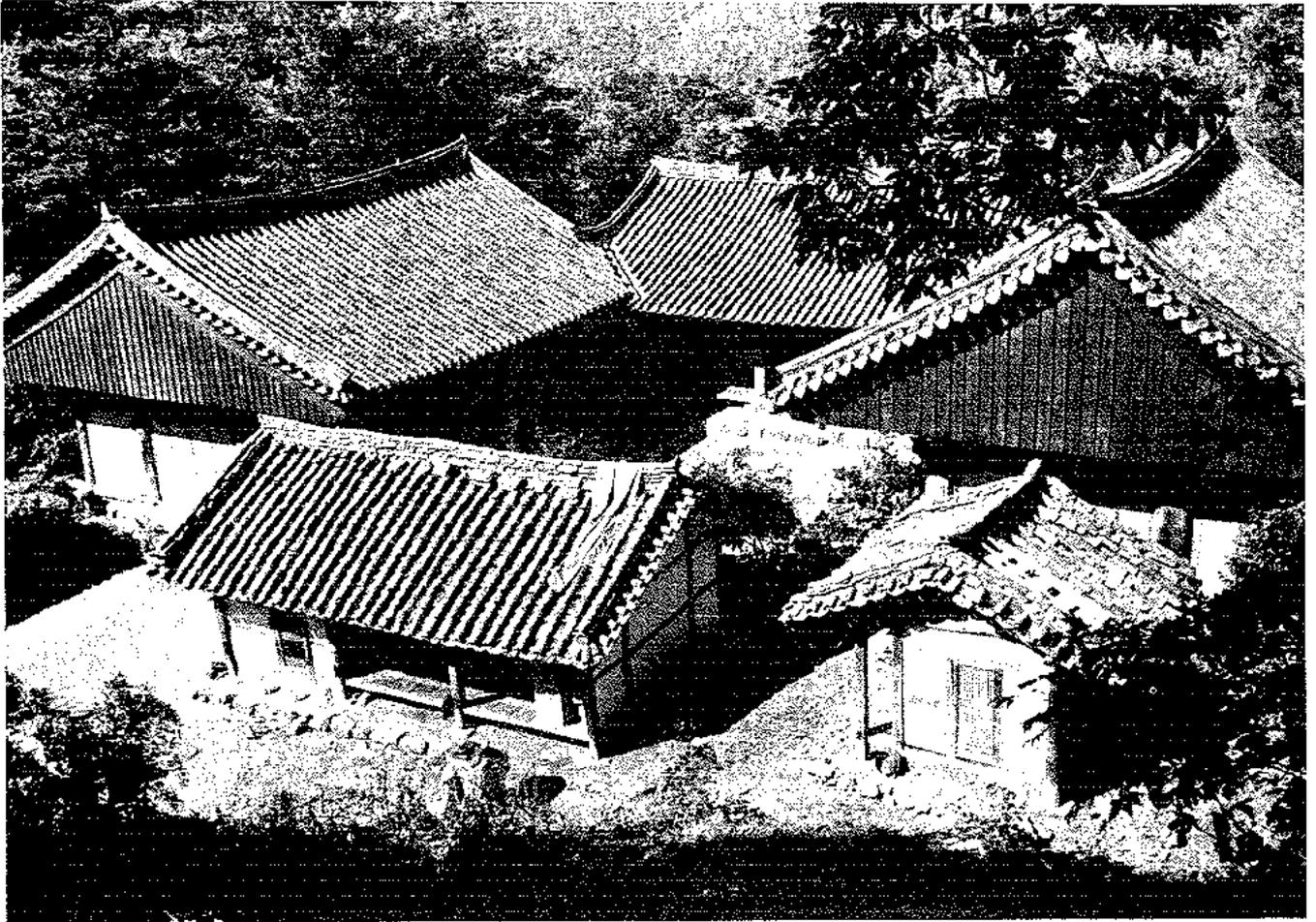
寺地의 初入인 남쪽에 높은 層樓다락집인 雨花樓가 있고 그 안쪽 북방에 正

殿인 極樂殿이 배치되어 있다. 이 두 건물간의 서쪽 공간을 꼭 매꾸어 僧房인 寂默堂이 서향하여 ㄷ자형 평면으로 배치되고 동쪽에는 현재 3칸으로된 佛明堂이 약간 북측으로 치우쳐 자리잡고 있다.

佛明堂의 북쪽에 單間禪房인 啜英齋. 남쪽으로 빗겨서 좀 떨어진곳에 冥殿이 북향하여 별도의 전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또한 寂默堂 後庭의 낮은 岩盤위에 단간으로된 山神閣이 東向해 있다.

寺內에 진입하는 통로는 樓의 옆으로 내어진 계단을 올라서 樓西便 門間체를 통해 內庭으로 들어가며 본전 기단에도 중앙계단이 없이 兩側案舍 기단에 연결된 본전기단으로 회유할 수 있게 되었다. 現 寺刹 배치상황은 內庭을 중앙에 두고 本殿과 樓閣으로 남북의 主軸을 형성하고 동서에 案舍를 배치하며 그 외부로 부수적인 殿閣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에 重瓶된 작은규모 山地寺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伽藍配置이다.

雨花樓 전후의 地形差에 의해 전면에선 層樓를 이루나 후면에선 內庭바닥 높이의 樓床을 이루었고 사랑의 건물들은



거의 수평된 단일지반위에 형성되었다. 남북 주축선상의 두 건물기단간의 거리는 약 16M, 동서 兩僧房기단간의 거리도 15.7M가 되어 거의 정방형의 중정을 이룬 셈이다.

東便 佛明堂의 자리엔 애초에 5칸으로 된 祖師殿이 꼭 메워져 있었다고 하니, 四方 建物の 처마와 기단이 서로 연결되어 雨露를 피해 왕래할 수 있었던 듯하다. 이런 규모의 內庭을 둔 兩廡에서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이른바 識別尺度의 범위내로 배치계획을 잡은 듯 하다.

極樂殿外 7棟의 佛宇 延面積은 131.85坪으로 中心部 寺域 敷地面적의 約 16.5%를 占하고 있는 것이다.

樓에서 極樂殿까지의 거리로 보아 基壇을 포함한 극락전 建物高의 약 2.16배가 되고 樓床 丈에서 極樂殿을 바라다본 仰角은 16.5도이다. 또한 극락전 기단에서 雨花樓를 바라다본 仰角은 13도가 되어 시각적으로는 어느정도 안정된 느낌을 준다. 네개의 건물로 둘러싸인 中庭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공간은 아니나 건물의 큰 지붕과 처마선으로 사방이 막힌 공간감을 주며 시각적으로 폐쇄성을

갖게 된다.

3. 극락전

1) 평면

正面三間 側面三間の 長方形 平面型으로 内部에는 內陣柱없이 單一通間으로 형성되고 御間후편에 佛壇을 놓았다.

바닥은 우물나무 設置되고 正面의 三間은 기둥 사이를 전부 개방하여 문짝을 달고 東西 兩側面의 前根間에 한짝식 문을 내고 나머지 間은 모두 灰壁으로 막았다. 背面쪽도 당초에는 御間에 出入門과 兩夾間에 窓(당관문)을 내었던 흔적이 壁櫺과 上下枋에 나타나고 있다.

建物面積은 62.42M² (약 18.91坪)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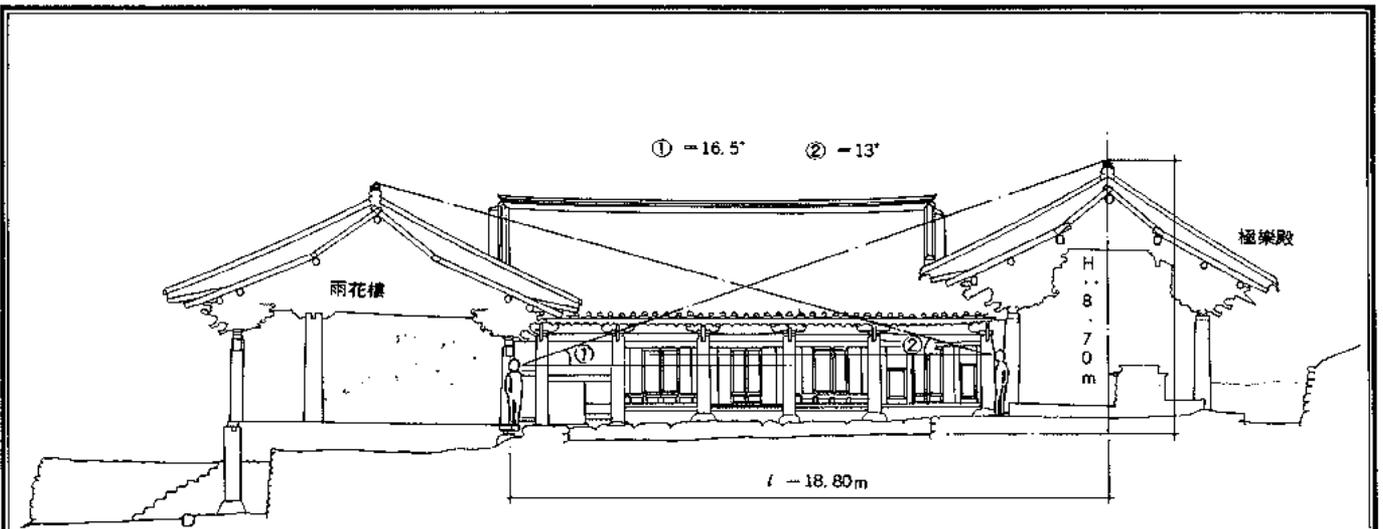
平面柱間的 測定은 기둥하부에는 쓸림 등 변화가 많아 기둥상부와 拱包 間격을 中心으로 측정하였다. 대체로 前後面 御間幅이 3.68M(12.15曲尺)로 兩夾間的 3.095M(10.33曲尺)보다 2尺가량 넓고 東西의 兩側面은 中央間이 3.095M로 兩夾間과 같고 前後의 퇴칸은 1.52M(5.02尺)내외로 되어 있다.

平面的 전체길이는 正面이 32尺, 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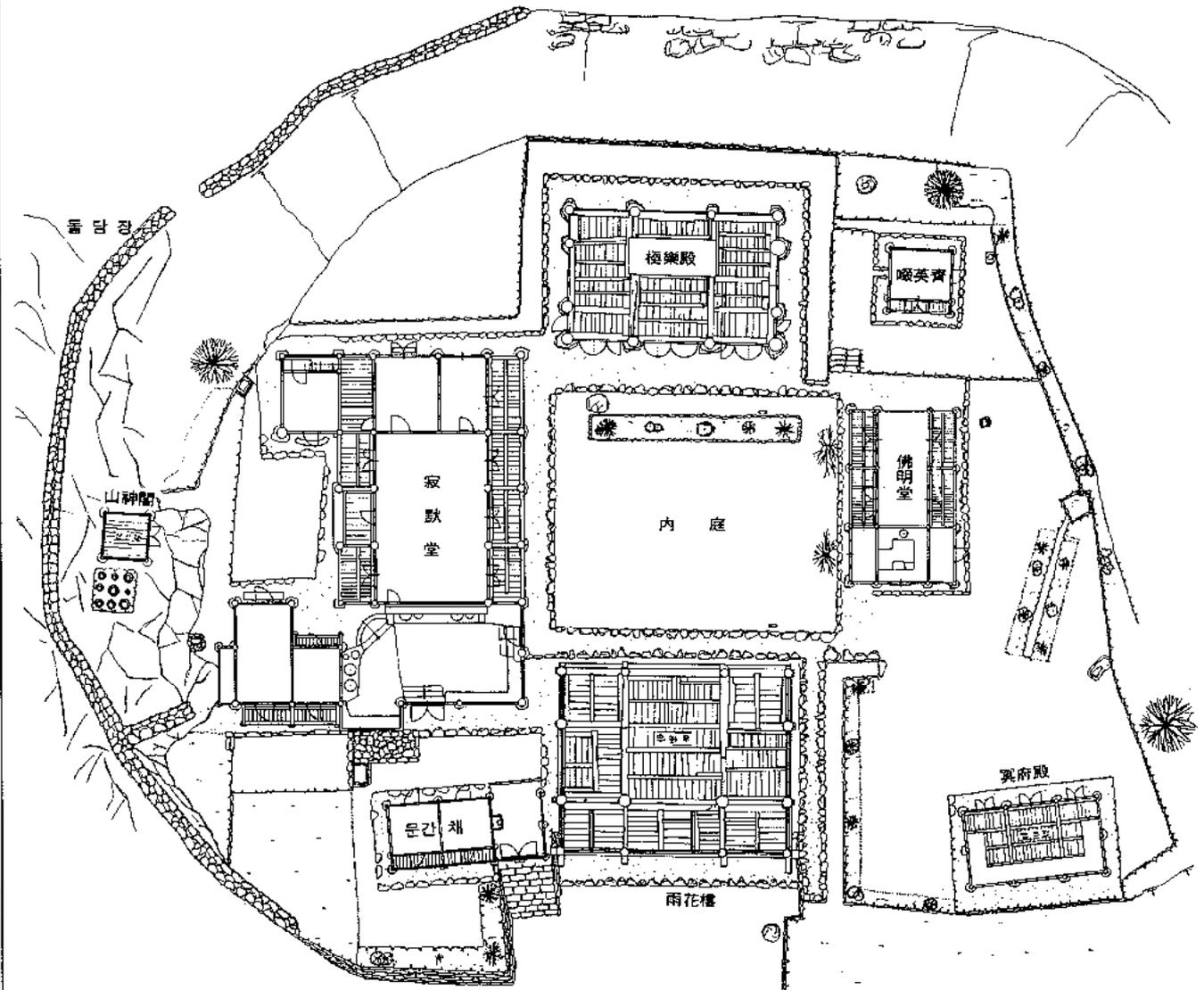
이 20尺 内外가 되어 道里間(正面長) 對 樑間(側面長)의 比는 대략 1.60:1이 된다. 이 平面的 實測値에서 보면 平面을 잡은 基本尺數는 10尺이 되어 建物前後面의 兩夾間과 側面의 中央間이 10尺씩이며 측면의 前後退間은 그의 1/2인 5尺씩이고 기둥의 높이도 대략 10尺이며 보칸(樑間)은 이의 2倍인 20尺으로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2) 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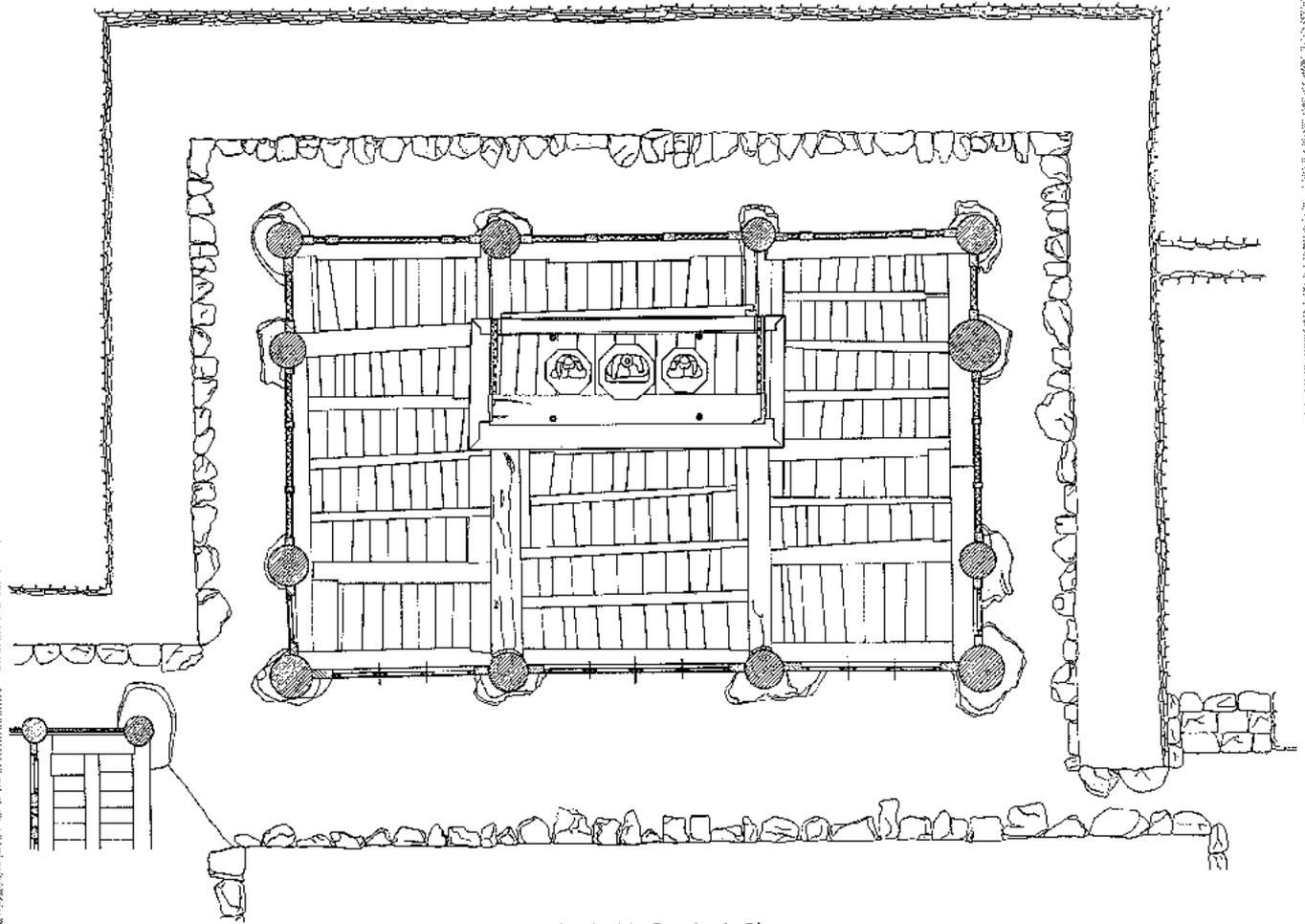
자연석 산석을 그대로 덩벙柱礎로 사용하되 비교적 평활한 上面을 礎頭로 하여 원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대체로 민흘림기둥으로 柱下部徑은 470~770까지 분포하나 네귀의 隅柱는 平柱보다 약 10cm가량 굵다. 양측면 高柱徑은 平柱와 비슷하다. 기둥高는 前面기둥이 後面쪽보다 약 20cm가량 높아 後面에서의 礎石 높이를 前面보다 높게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목조 고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네귀의 隅柱는 平柱보다 87~150mm가량 높게 솟은 귀솟음을 주었으며 기둥머리를 건물안쪽으로 들여(35~80mm 정도) 안쓸림 수법을 함으로서 구조적인 합리성을 찾으며 착시현상을 교



건물 상호간의 계획고 측정



화엄사 평면 배치도



기둥 실측치저원

정시켜서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게 하였다.

전면예의 기둥이 근래에 드잡이 보수 하였던 후면예보다 많은 안솔림值를 보이며, 후면이나 양 측면벽에서는 수장재와 회벽은 거의 직립되어 있는데 반하여 전면에서는 기둥의 경사와 함께 軸部(上·下枋과 窓戶)까지도 안쪽으로 4cm가량 기울어져 있다. 『營造法式』에서는 기둥高 10尺에 대해 1촌정도 솔림을 둔다고 하였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존 건물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경사도를 보인다. 개개의 기둥은 材徑을 위로 올라가면서 현저하게 줄어 上薄下厚한 민흘림 치목수법이며 기둥고에 對한 上部 후림율은 대체로 3~4.5% 사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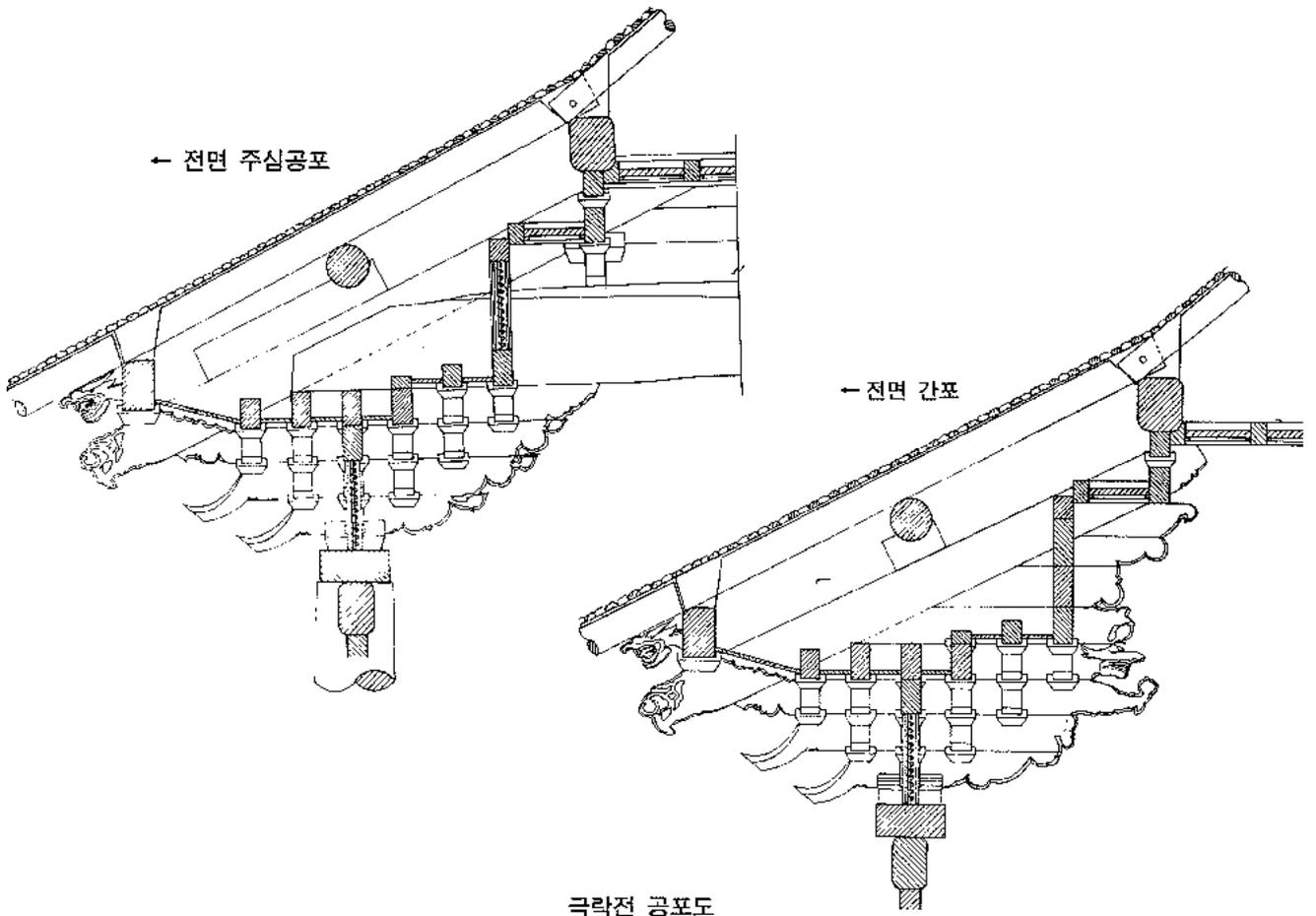
平枋은 前後面 기둥위에만 배치되고 네 귀에서는 측면방향으로 짧게 빼어내 直交시킨 短平枋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런 例는 通慶寺 藥師殿과 靈山殿에서도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이 平枋材는 前面에선 3間에 걸쳐 單一通材로 사용한 까닭에 全長 12.73M에

	기둥 위치	기둥高 (전체 높이)	기준선으로 부터 기둥 상단 높이	솟음치	기둥 徑		기둥 후림율 기둥하부경- 상부경/柱高	
					柱上 部徑	柱下 部徑		
1	전 면 西 隅柱	3104	1578	↑	112	437	544	0.035
2	" 西 平柱	3042	1466	●				
3	" 東 平柱	3047	1467	●	37	472	567	0.031
4	" 東 隅柱	3116	1554	↓				
5	동측면 高柱	5320	3776			426	519	0.017
6	" 高柱	5309	3766			439	770	0.062
7	배 면 東 隅柱	3037	1598	↑	151	458	539	0.020
8	" 東 平柱	2805	1447	●				
9	" 西 平柱	2864	1440	●	110	414	544	0.045
10	" 西 隅柱	2880	1550	↓				
11	서측면 高주	5135	3690			356	504	0.028
12	" 高주	5341	3705			355	556	0.037

달라고 後面에선 東二間을 單一材로 하여 특이하다. 材의 幅과 高는 42cm와 19.5cm로 큰 部材이나 栱包 以上の 屋蓋部 荷重이 過重하여 크게 휘이고 上面이 內傾하고 있다. 平枋은 前後面의 기둥사이와 양쪽 측면의 前楹간에만 끼어 있는데 상하의 네귀를 둥글려 모접이한 단면

형이다. 前後面의 東夾間 창방은 隅柱쪽 단부가 반대쪽보다 약간 높은 운두를 갖고 있어 귀솟음치를 문골(門楣)과 분담하도록 하기 위해 창방높이를 다소 높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네 귀에서의 창방뿔목은 修裝幅인 12cm로 하였는데 비교적 古式의 草刻手法를 보인다.



극락전 공포도

기둥사이의 開口部는 柱槓과 上下枋을 그대로 門槓, 門楣, 門止枋 등의 문열골로 하여 문짝을 달았다. 기둥후림과 귀숫음에 의해 문꼴은 위로 올라 갈수록 넓고 높아지나 모서리에서 연귀맞춤하여 內區를 直角으로 이루고 쌍사대패질과 모점이 변탕하여 문열골을 치장 하였다. 문짝은 前面御間에 四分間, 左右夾間에 三分間 문을 내어 들어열개식으로 여닫게 하고 양측면에는 외작문을 달았다.

문짝은 하부에 2단궁관을 넣고 상부에는 빗살틀을 짚아 넣어 구성하였으며 모점이나 쌍사대패 고급스럽게 치장하였다. 벽체는 下枋과 中枋, 引枋사이에 중깃을 쫓고 외를 엮어 맞벽을 친후 灰三物을 발라 마무리한 灰砂壁인데 壁의 두께는 枋材 등의 修裝幅 두께 보다 약간 얇게 쳐져있다.

3) 공포

極樂殿의 공포는 柱心과 柱間에 각 一具씩 間包가 배치된 多包系의 공포帶를 이루었다(前面 어간에만 2개의 간포임) 拱包 構成을 보면 外2出目, 內3出目으로 각 5包와 7包로 짚고 쇠서형 諸工

과 살미와 한대에 소첨과 대점을 엮을 장으로 조립하고 그 위로 장혀를 엮은 구성은 보통 공포짜임과 같으나 한대와 살미머리를 斜切하고 그위에 별도로 下昂材를 올려 道里를 받게한 古式構成이 특색이다. 제1, 2계공은 일반 다포계 공포와 같이 外部쇠서와 내부로는 蓮花草刻 하였는데 쇠서의 끝이 짧고 날카롭게 끊어져 강건한 맛을 풍긴다.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쇠서수법을 보인다.

제3계공에 해당하는 살미는 보통 그머리를 三窟頭로 하나 여기서는 下昂의 경사진 바닥을 떠받게 하기 위해 斜絶하였다. 限大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斜絶되어 下昂을 받고 있다.

계공과 살미, 한대의 뒷몸은 蓮唐草刻으로 이어져 가면서 보아지가 되어 대를 보를 받았다.

下昂材의 뒷몸치리는 柱心과 間包, 그리고 兩側面壁 위에서 각기 다르게 하였다.

兩側面에서는 高柱上端과 그위에 얹힌 柱頭와 교차되어 그 끝이 양봉(樑奉)처럼 종보를 받치며 종보하단에 빗잡여서 고정되어 있다. 이런 內端위에 長舌와

中道里 등의 上部荷重으로 下昂을 안전한 구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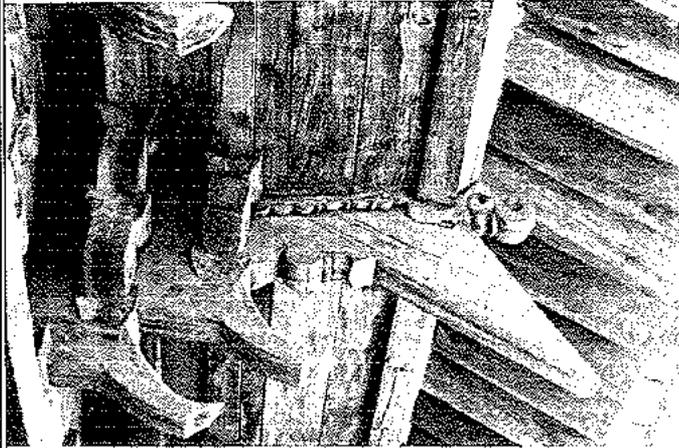
間包위에서는 內3出目 당골벽을 형성하고 있는 위, 아래 장혀사이의 화반木과 相交叉하며 그 內端을 中道里線의 뜬 장혀에 교차하여 엮었다. 下昂材하부에 바쳐지는 살미재들은 모두 昂材 경사에 맞추어 斜絶되어 있다. 內端을 받친 뜬 장혀는 측면의 高柱머리와 대량위 포대공에 올려 지탱되고 있다.

大梁위에서는 대들보위의 포대공 접시 받침 위에 받쳐져 뜬장혀와 교차하며 宗樑 역할을 하는 通板材에 서로 빗잡아 고정시켜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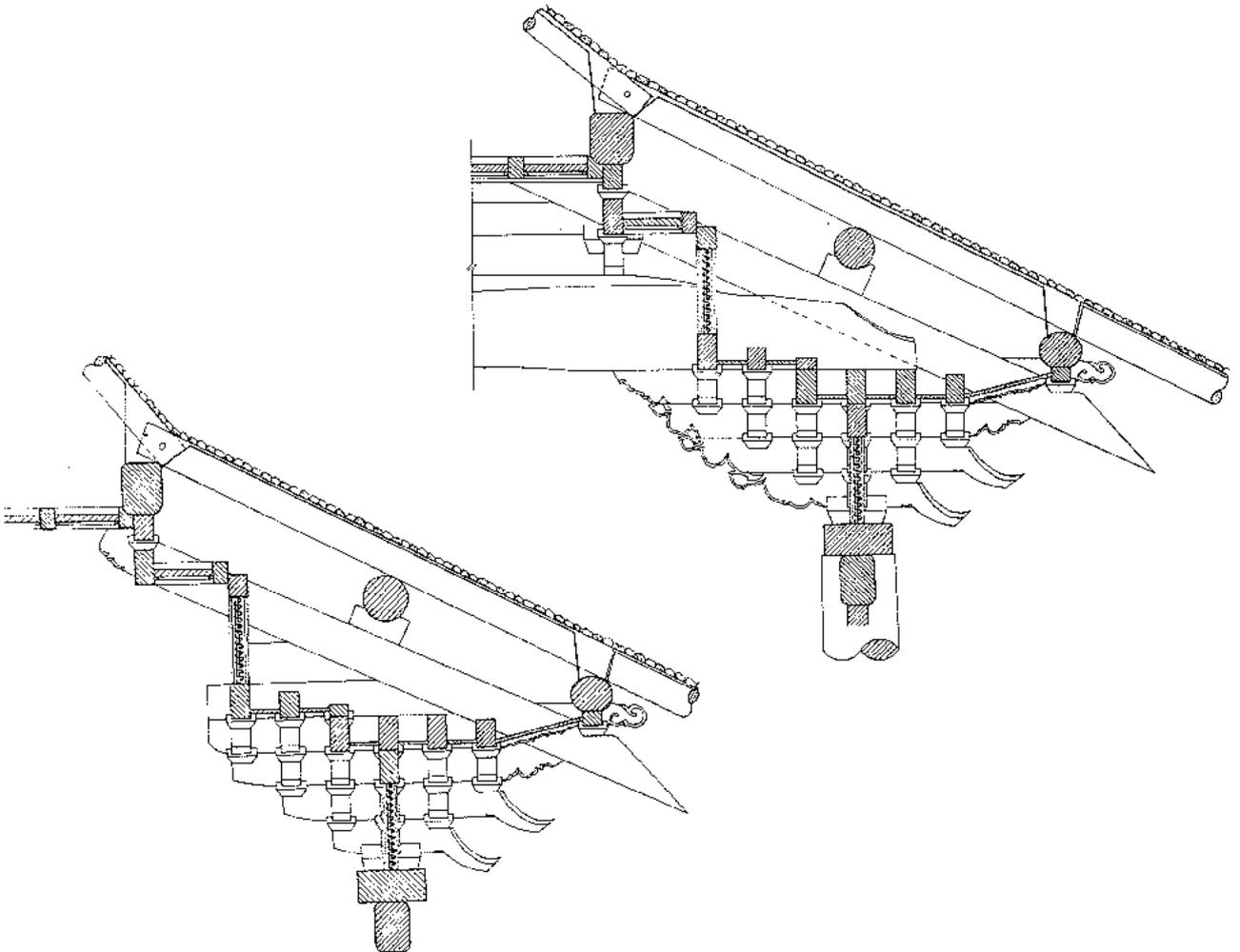
下昂材의 외부는 昂材위에 접시소로 놓아 침차없이 角形의 처마도리(外目)를 보냈고 주심도리는 昂材위에 따로 받침목을 두어 엮은 까닭에 柱心장혀와는 높이 떨어져 있고 정확하게 柱心위치에 있지도 않다. 외목도리 밖으로 돌출한 昂材위 버개木은 龍頭를 조각하고 그 밑의 昂材先端은 龍의 다리과 발 그리고 龍身部를 形容하여 草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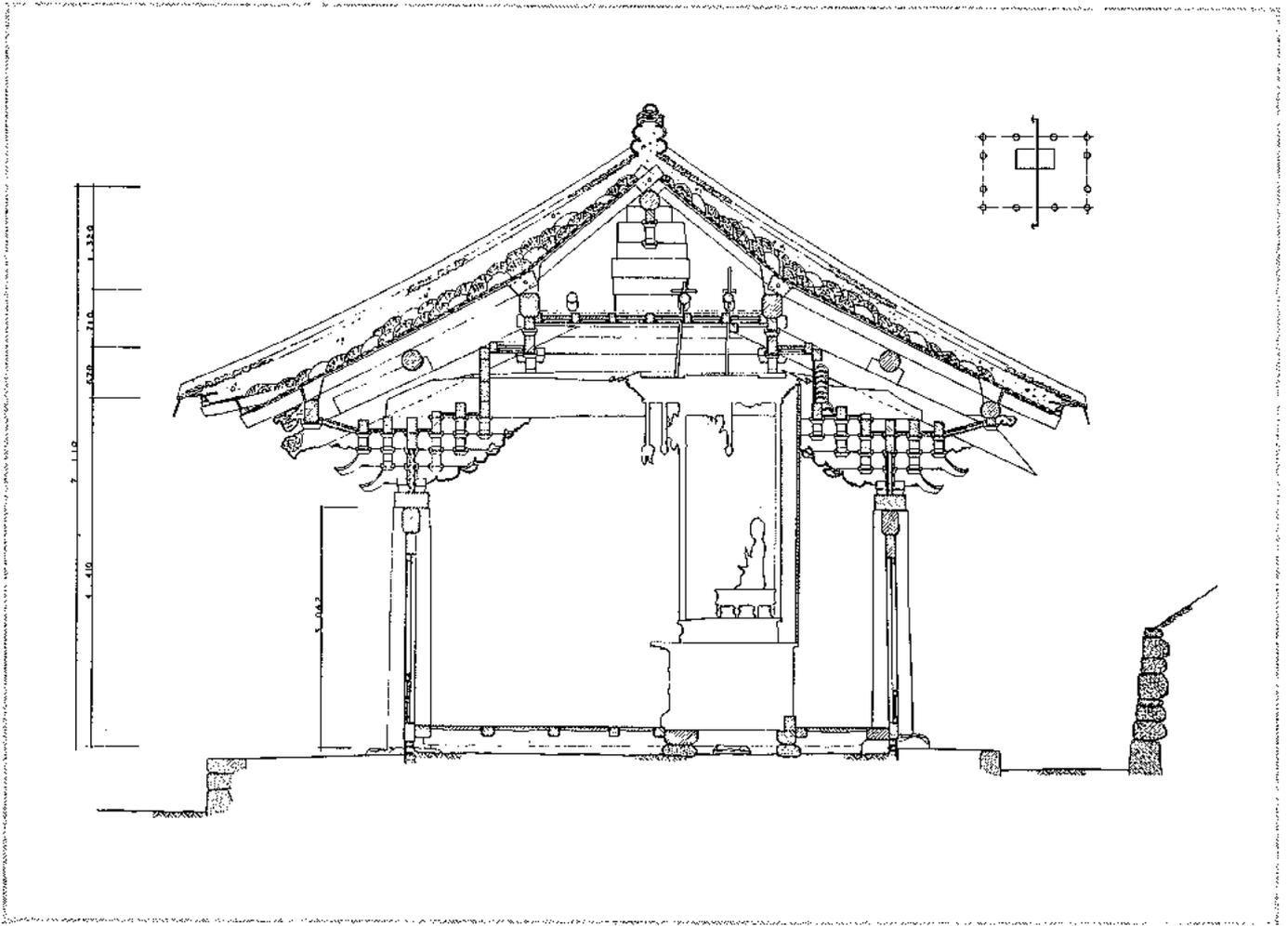
背面에서는 昂材의 바로 밑까지는 前面과 같으나 昂材의 外端을 上面에서 부

극락후면



극락전면





터 斜切하여 끝을 뾰족하게 하였다. 昂材의 上面에는 버개목을 草刻하여 끼어 넣고 그위에 外目道里를 얹었다.

大樑있는 위치에서는 보머리쪽의 중간을 따내고 昂材를 파넣어 고정시켰다.

柱頭는 平斜絶된 굽을 가졌으며 굽의 시작은 주두높이의 중간에서이 되어 운두와 굽의 비례는 거의 1:1이 된다. 주두의 幅과 高의 比는 대략 1:0.46으로 높이는 正面幅의 거의 1/2에 해당한다. 주두의 폭은 360mm내외로 正面의 폭이 측면의 그것보다 약간 길다. 또한 특이한 것은 前面 間包의 주두는 平斜切된 평주두와 전혀 다른형인 荷葉彫刻을 하였다.

소로는 주두와 같은 平斜切된 굽이며 굽높이는 소로높이의 1/2, 소로폭은 높이의 2배이고 소로폭은 주두폭의 1/2이 된다. 첨차는 兩端이 약간 경사진 直絶되는 翹頭형 첨차로 栱眼을 두지 않고 下端을 완만한 圓弧로 하였다. 柱心에 오는 첨차는 兩端部에 소로받음 홈을 뚫고 공간간격이 다른 御間에서는 첨차의 길이를 조절하였다.

出目간격은 전후면 내외부가 약 1尺씩

으로 모두 균일하나 外2出目에서 外目道里까지는 前面이 70cm, 後面은 63cm로 빗방자로 상부를 가렸다. 2出目까지는 평순각판을 끼었다.

4) 가 구

多包系 공포구조로 맞배집을 형성한 3間집이어서 大樑2개 架設이 主된 骨格이다. 二重樑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兩側面에서만 高柱위에 宗樑를 얹고 대량 위에는 通板材를 重疊시켜 놓은 衝枋材로 중보를 대신하였다. 이것은 下昂의 뒷몸에 中道里를 걸며 長椽이 받는 荷重을 지탱하게한 특수한 형식으로 하양식의 구조를 갖는 이 건물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 枋材위에 역시 같은 두께의 판재를 적절한 길이로 잘라 六重疊시켜서 마루대공으로 하였다.

左右의 側面壁은 二高柱 五樑架의 형식이며 大樑의 사용없이 宗樑만을 結構하였다. 高柱上에 下昂 뒷몸은 꿰뚫고 올라앉아 중도리를 함께 받고 있으므로 退樑이 생략되어 있다.

대들보 단면은 장방형단면에서 下部를 빗짜아 上厚下薄하고 위·아래 귀를

둥글린 형태로 材長에 있어 높이는 거의 수평으로 균일하다. 보의 높이는 동쪽 73cm이다. 樑通間의 20尺에 비하면 보의 층은 약 8:1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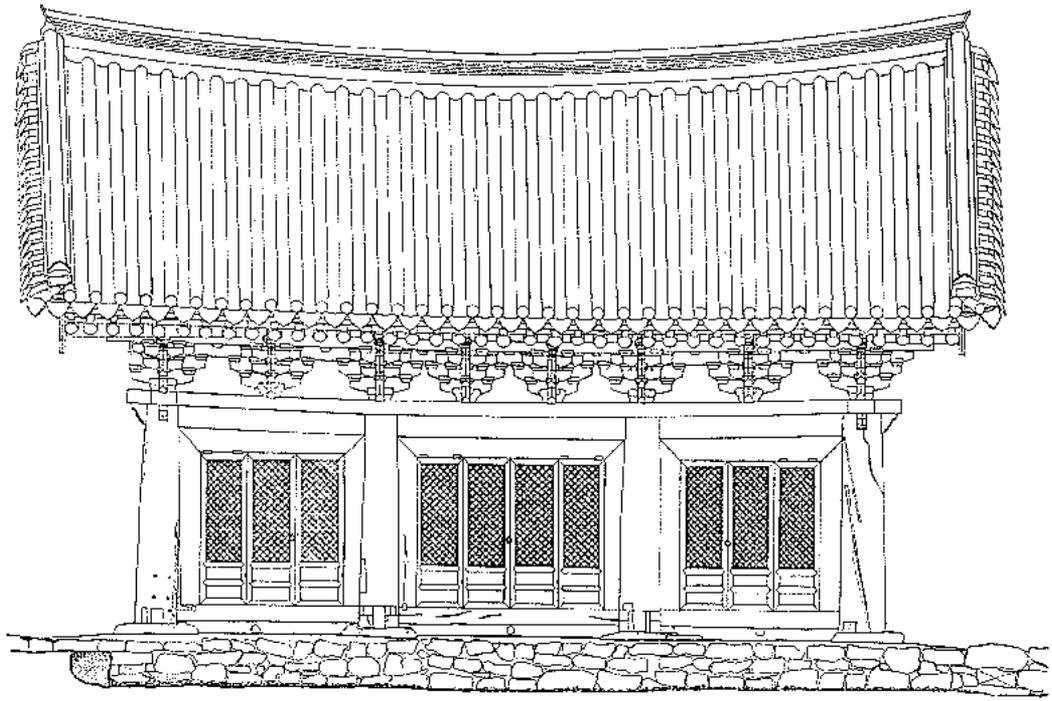
道里는 柱心과 宗道里가 원형의 굴도리로 徑은 25~27cm 가량이고, 中道里와 前面의 外目도리는 장방형 납도리이다. 후면쪽의 외목도리는 굴도리의 上下面을 水平으로 끊었다. 內目道里는 없다.

夫障은 내부3間이 모두 소란반자이다.

5) 처마와 지붕

前面에는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이고 맞배지붕 임으로 양측면에는 큰박공이 함각머리에 설치되고 방풍판을 달았다. 처마의 깊이는 전면 2.64M, 후면 2.14M로 전면이 약 50cm가량 길어 柱礎石上에서 연합끝까지의 처마가 이루는 각도는 前面 27°50'이고 後面 25°50'이다.

대기의 양끝을 들어올리기 위한 갈모산방은 外目道里뿐 아니라 柱心, 中道里 宗道里위에도 두어 조절하였다. 갈모산방의 크기는 東西와 前後面이 각기 다르



다.

서까래는 圓木을 使用 長椽과 短椽을 절되 中道里위에서 交叉되고 연침으로 연결 고정하였음을 해체과정에서 확인되었다. 椽端部(마구리) 각음手法에 ① 端部마구리가 폭보다 높이가 약간 큰 타원형 椽端에서 안으로 가면서 매우 굽어지도록 끝걸기 한것과 ② 원형마구리에 끝걸기 하지 않아 몸체와 椽端間에 굽기차이가 별로 없는 것등의 몇가지 유형을 보인다.

椽端을 절단한 技法은 자은 서까래法에 따라 直絶되지 않고 아래쪽이 안으로 8cm가량 들어 경사지게 斜絶하고 끝걸기를 시작한 부위는 외목도리 내부에서부터 훑어 각은듯 하다.

浮椽의 端部각음에도 ① 마구리 上下面 폭이 거의 비슷하고 높이가 폭보다 낮은 납작한 短形(≡)과 아래쪽을 훑어 각고 높이가 폭보다 높은 (⊗형)의 두가지 類形이 있다.

처마 안허리曲은 御間을 기준하여 볼 때 前後面의 左右가 조금씩 다른 灣曲을 보이고 있는데 前面은 西端 74, 東端 53(초매기갈) 後面은 西端 104, 東端 54mm의 안허리曲을 갖고 있다. 처마仰曲도 前後面의 左右가 각기 다른데 前面은 西端 87.50, 東端 72.50mm(초매기)이고 후면은 西端 62, 東端 143mm로 나타났다.

박 공판은 넓고 큰材로 大圓을 이룬 圓弧로 灣曲되고 板의 前端에는 계눈판

形의 조각을 하였다. 風板에 가려져 외부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으나 外目과 柱心, 中道里뿔목이 모두 朴工板 下部로 쳐져 있다.

지붕은 맞배, 한와잇기로 하였는데 기와바닥이 안으로 휘어진(內反하는) 曲線이나 平바닥에서의 瓦曲은 극히 미미하다. 용마루 길이 13.04M에 비해 최대처짐 62cm로 용마루曲도 별로 크지 않다.

6) 단 청

현재 極樂殿에 彩畵된 丹青은 1714年(肅宗 40年)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후에 改彩된 부분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는 비교적 保存상태가 良好하나 外部는 퇴색되거나 剝락됨이 많다.

湖南地方의 柔順하며 밝은 色調와 화려한 무늬, 완숙한 筆力이 잘 표현된 錦丹青으로 전체의 분위기가 중간색조의 은은한 멋을 풍기면서도 높은 격조를 보인다. 특징적인 몇가지단을 概略하여 본다.

昌柿과 平柿머리초는 두재를 한개의 넓게 草像한 머리초로 반을 나누어 上下材에 打粉하였다. 위와 연꽃무늬, 직위 등이 上下에 이어지고 휘 먹덩기에는 枝花點을 찍어 장식하는 施文이다.

出目장려의 丹青中 옛것에 속하는 것은 방식돌레 속에 주화와 녹화를 곁들였고 장려배의 안쪽은 갓모결연形 녹화를 하고 바깥쪽은 녹화 매화점찍기 등의 古

式文樣으로 하였다.

龍刻飾을 한 下昂材에는 龍의 비늘과 流雲을 그려 雲間에 飛翔함을 나타내고 外目도리와의 사이 巡閣板에는 飛天像圖를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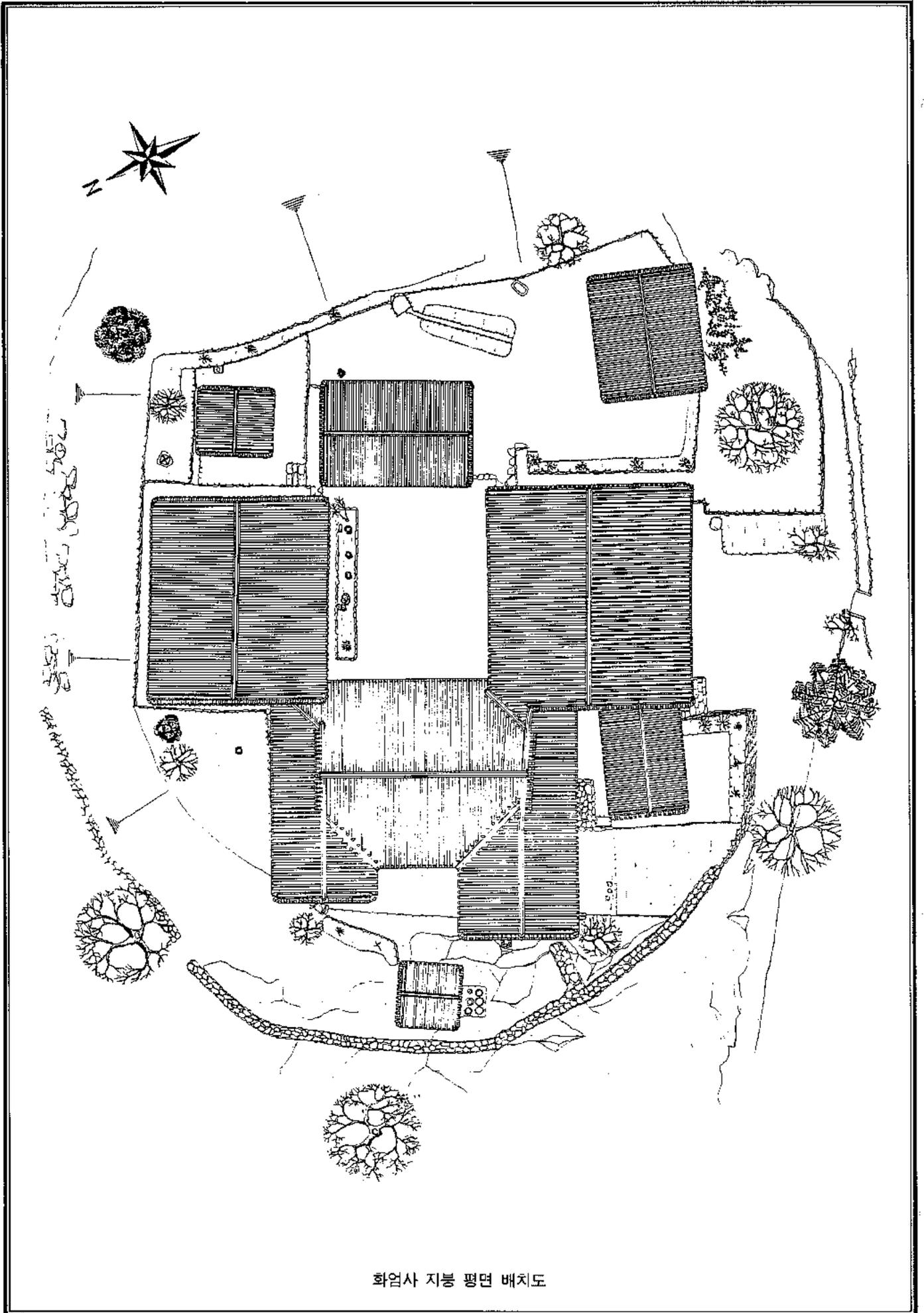
옛모습을 보이는 철지紋은 綠花 머리초가 면과 배바닥에 동일하게 그려지고 如意頭形 쇠綠花文이 마구리에 배치되고 界風에도 錦文으로 치장하였다.

연목의 문양은 근래의 전형적인 蓮花 머리초이나 剝락된 부분에 白線이 둘러진 古彩가 보인다. 부연에는 현재 배와 머리에 녹화머리초 배바닥엔 錦文을 넣은것이 몇개의 古材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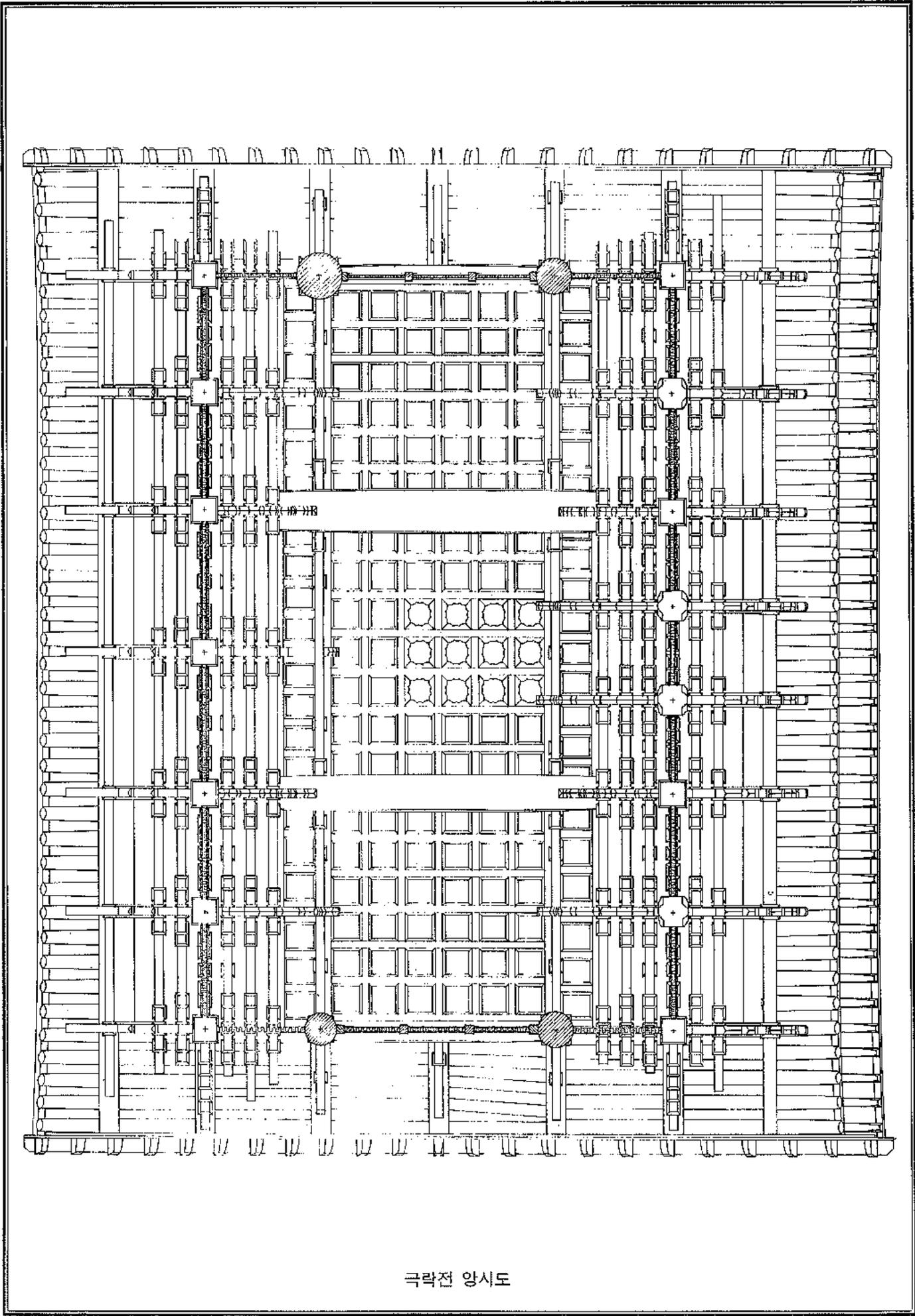
작고는 寶相華文 형식으로 쇠코받침 綠花草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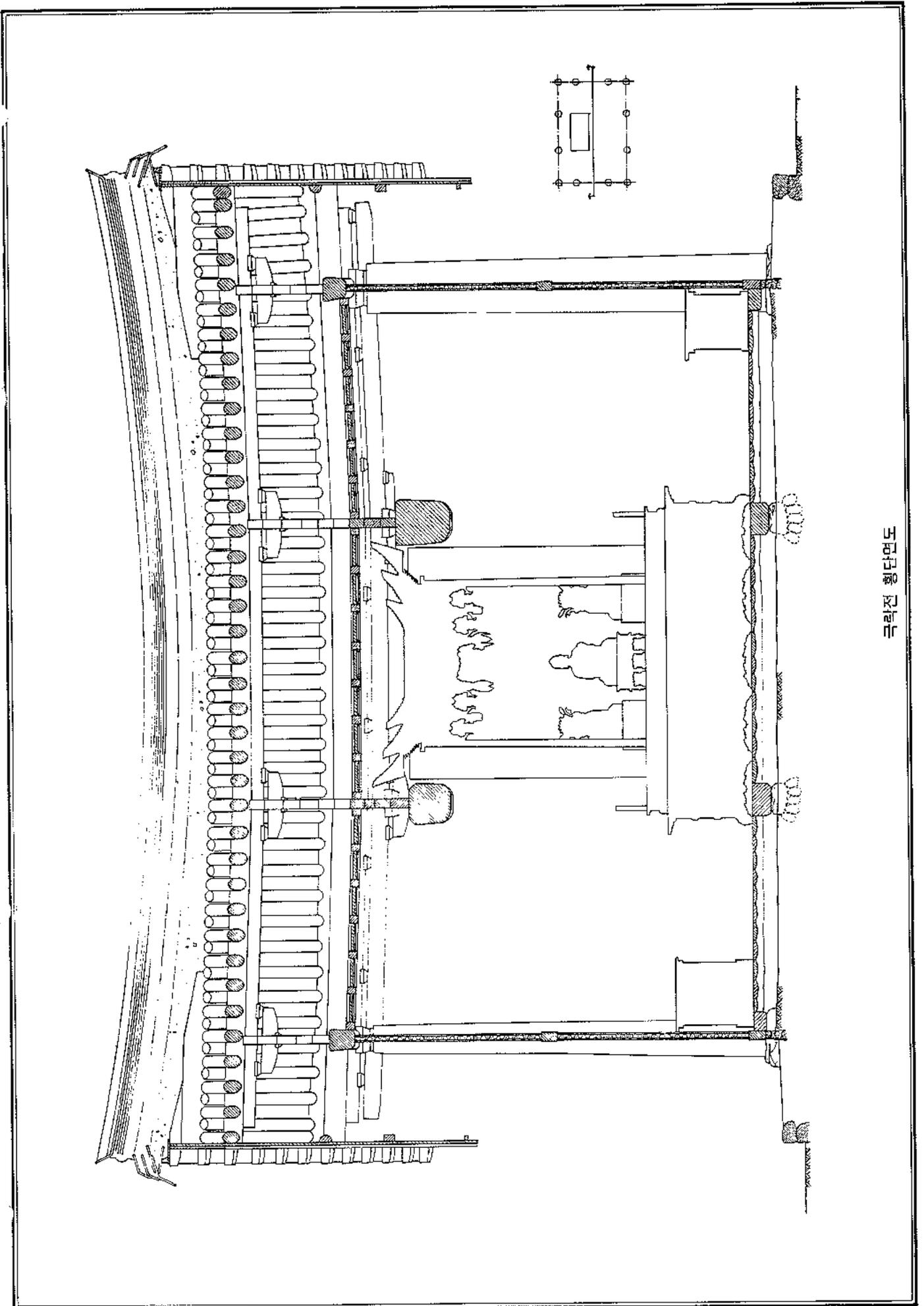
大樑의 머리초는 蓮花명머리초를 하여 둘레의 삼색실은 黃絲계통의 금실로 하고 실의 엮음은 고리뭉음으로 하여 人暉의 중심부에서 쇠코화와 결연되었다. 대량의 界風에는 飛龍의 형상을 나타내었는데 마치 朝鮮末期 景의 民畵에 그려진 特徵을 보인다.

天障은 소란을 꽃무늬로 草刻하고 雲鶴을 그려넣은 화려한 우물반자가 御間에 남아 있고 3間 모두가 소란반자이다. 반자에 彩畵된 문양은 六種으로 區分된다. 雲鶴을 그려넣은 것이 2種, 重瓣 6葉 蓮花文이 2種, 重瓣 寶相華形式의 蓮花文속에 梵字文 넣은 것이 1種, 또한 벌치文 등의 別畵로 된것이 1種이다.



화엄사 지붕 평면 배치도





五間宮殿 図解

“서울 단상”



유 환 규
한국관광공사 해외진흥부장

서울의 어린이들에게는 고향이 없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자 서울이다. 서울이 고향으로 못될 바는 아니지만 생각만해도 마음이 느긋해지는 마음의 고향은 아니다.

빌딩의 숲과 자동차의 매연으로 태양을 빼앗겨 버린 공간에서 방학을 지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볼 때 생명의 숨결을 찾아보기 힘든 이 도시가 때로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관광업계에 몸담고 있는 관점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꽤 많은 편인데, 이들 여러 도시에 비해서 불과 수개월 후에 부산스럽게 달라져 가고 있는 서울에서는 마치 이방의 도시에 찾아든 것같은 막막한 심정마저 가진다. 몇년만에 가도 거의 변함없는 파리의 거리나 안개속 샌프란시스코의 그 조용한 낭만들을 오히려 변화가 없어 권태롭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하루가 다르게 비대해져만 가는 서울이란 도시

아름다운 운하와 짙은 가로수들 몇백년 묵은 고색창연한 옛 건물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멋진 조화, 이것이 내가 본 암스테르담의 풍경이다. 규모있는 멋진 시설, 중세기와 현대가 적절히 조화된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부산하지 않게 변하는 스위스의 전원도시들, 그리고 비둘기가 오히려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다운 산 마르코 광장, 젊은이의 낭만과 노인들의 한담

이 어우러진 센트럴 공원을 즐거운 추억과 함께 떠올려 본다. 이런 여러 도시의 상념 속에서 서울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 무엇으로 서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서와 개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늘어 나는 고층 빌딩의 숲으로? 몇몇 옛 건축물로? 아니면 한강의 낭만으로? 이럴 때면 청계천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여 버리던 때부터 줄곧 상상해온 서울의 거리 풍경이 겹쳐져 시야에 펼쳐진다.

맑은 시내물이 도시의 빌딩 숲을 굽이 돌아 흐르고 우거진 녹색 가로수가 그늘을 드리워 시원한 거리, 어디 그 뿐인가? 한여름의 한담을 나눌 수 있는 벤치가 있고 가로수 사이로 멋드러진 정자가 도시의 빌딩 숲과 어우러져 언뜻 언뜻 보이는 거리

봄철에는 새로이 돌아오는 잎새들의 여린 색깔들이 고목의 물오른 수피와 더불어 화려한 분위기를 펼칠 것이다. 바람조차 미동하지않는 여름 한낮에는 매미소리가 걸쭉한 그늘 속에서 들릴 것이며 가을에는 이 거리 구석 구석까지 계절이 스며들 것이다. 그러면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잿빛 도시의 지쳐버린 삶의 무게를 덜 수 있으리라. 여름의 그늘 아래서 피곤한 심신을 휴식하고 가을의 낙엽을 밟으며 인생을 생각하고 겨울의 얼 떨어진 나무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다운 친지와 만나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훼손 되고 있는 이 거리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호흡하고 생명의 숨결을 느끼며 인간의 체취를 서로 느낄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을 가진다면 우리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윤기가 넘쳐 흐르겠는가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센트럴」공원의 한가로움을, 베네치아의 안개에 싸인 운하의 낭만을 부러워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청계천의 물소리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여 버리기 이전에 템즈강의 물소리를 생생하게 살려낸 런던인의 정성을 왜 우리는 미처 가지지 못했는가? 그 밑을 흐르는 더러워질대로 더러워진 폐수에서 나오는 유독성 가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식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공연한 걱정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밑을 파보면 예기치 않게 무너져 버린 환상의 또다른 넷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라는 즐거운 환상도 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어느 일본 건축학자가 청계천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공사비용이 절약 되었을까하고 이쉬워 하더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아름다운 강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않은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과 유리된 도시가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공간, 휴식의 공간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공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게임 등 연거푸 두차례의 대회가 열리게 됨에따라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름다운 국제도시로 다듬어진 서울의 모습으로 이들을 맞이해야 하리라 믿는다.

관광산업이 외화소득률 90% 이상을 상회하는 전략산업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뉴욕, 동경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정서와 문화 공간을 가꾸고 보여주는 것은 이들을 매료시켜 더 많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관광객의 특권이자 예의이듯이 외국관광객이 서울에서는 서울인으로 동화되어 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의 공간에서 한국을 이야기하고 한국을 느낄 때 샌프란시스코의 서정과 파리의 낭만보다도 한국적인 정서가 더욱 선명하게 펼쳐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들이 서울의 자랑스런 주인임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던 어느 가수의 노래나 나의 청계천 환상이 허황된 발상만일 수는 없을 것이다.

자연이 신의 작품이라면 도시는 인간의 작품이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그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지혜를 가진 인간만이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어 본다.

도심지의 분위기



이 건 영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나는 미국에서 7년간이나 머무르는 동안, 가끔씩 서울로 돌아가 명동이나 무교동 뒷골목을 누비는 꿈을 꾸곤 하였다. 젊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다분히 낭만적으로 과장된 꿈이었다.

십수 년 전만 하여도 도심지의 오아시스라곤 뒷골목이었다. 시민들은 가벼운 주머니로 뒷골목의 선술집을 돌며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곤 하였다. 보잘것 없고 구적지분하였지만 정다운 분위기였다. 주변에는 잠시 쉴 수 있는 명동공원, 서린공원 등도 있었다. 거리에는 지금처럼 육교나 지하도도 별로 없었으므로 걷기도 편하였다. 걷다 보면 뜻하지 않은 반가운 친구들도 자주 만나곤 하였다. 그래서 도심지는 항상 매력적인 활기찬 분위기였다.

그러나 요즘은 도심지의 풍경이 너무 삭막하다. 직장파 거주지가 강남인 나는

가끔씩 도심지로 나간다. 그때마다 나날이 달라지는 분위기에 생경한 느낌을 버릴 수 없고, 차라리 피곤해 진다.

지금 도심지는 열심히 변모하고 있다. 시민들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든 곳이 하나 둘 탈바꿈하고 있다. 거기서 시민들은 차츰 스러져가는 고향을 보고 있다. 정든 뒷골목 선술집이 밀려나고,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넓어진 길 밑으론 지하도가 뚫리고 있다.

인간적 스케일을 넘어선 빌딩 숲과 자동차의 행렬을 헤치고 다니다 보면 피곤하고 답답하다. 자동차는 정말 많아져서 좁은 골목길까지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가득하다.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를 수없이 오르내려야 하며, 혼탁한 공기에 현기증이 나곤 한다. 보행자들이 자동차 때문에 육교나 지하도로 밀리는 곳은 아마 세계에서 서울 뿐이 아닐까 싶다.

요즘은 도심지는 미화작업이 한창이다. 이른바 도심재개발사업이다. 88년에 있을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도심재개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재개발 대상지역은 도심지의 심장부이나 필지가 영세하고 건물 또한 노후하여 이같은 비경제적 토지이용으로는 국제도시의 중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따라서 외곽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찬성 쪽의 의견이다. 반면 재개발 추진이 명확한 기본계획조차없이 국지적으로 업무용 빌딩만 신축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것이 반대 쪽의 의견이다.

어떻든 지금 서울의 도심지는 재개발 사업으로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더구나 건축규제도 자주 바뀌어서 허가 당시의 규제에 따라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제멋대로이다.

얼마 전 나는 도심지에서 시민들의 랜드마크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예상한 대로였지만, 40대 이상의 노년층은 아직도 종각, 화신, 남대문, 파고다공원 등에 대한 애착이 높은 반면 20대의 젊은이들은 교보빌딩, 프라자 호텔, 동방빌딩 등 대형 신축물을 도시의 얼굴

로 인식하고 있었다. 6백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 서울이 몇년만 더 지나면 「뉴 서울」로 이미지를 바꿀 것이다.

이왕 도심지의 모습을 개조하려면 좀더 재미있는 분위기를 꿈꾸고 싶다. 도시의 오아시스는 별 것이 아니다. 도시 전체적으로 잘 조화된 건물군(群)과 그 사이의 조그만 구석이라도 벤치하나 마련하고 나무 한 그루 심어 놓는 정성이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조그만 정성이 모여서 도심지 전체의 분위기가 재미스러워질 수 있다. 경회궁터를 몽땅 시민공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구석구석의 소공원이 훨씬 유용하다.

건물을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에워싼 뻥뻥한 주차장은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데, 건축법은 왜 지상주차장을 강요하는가. 모처럼의 도심재개발이 근사한 적행정으로 병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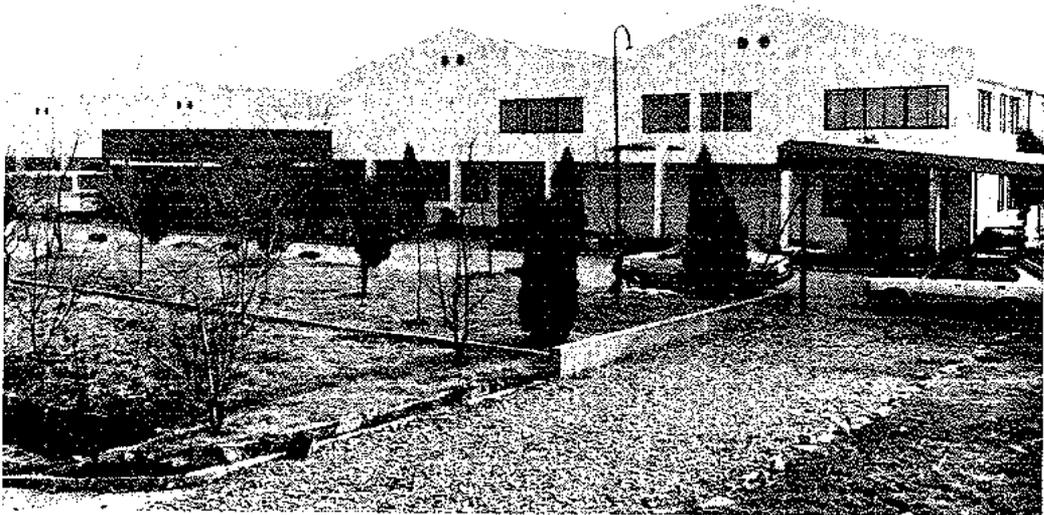
물론 이같은 구상이 오늘날 같은, 과학적 능률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첨단시대에, 그 경제성을 보장받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도심지를 걷고 싶은 거리, 쉬고 싶은 공간, 역사가 살아 있는 분위기, 시멘트 냄새보다 인정과 여유가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버릴 수 없다. 서울은 뉴욕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동양의 서울이다. 88올림픽에 찾아올 외국 손님들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일은 건축주와 건축가도 시계획가와 행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삭막한 강남의 개발이 토목기술자들의 졸작이었다면, 나는 이번에는 건축사의 손길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예술적 감수성과 공간구상에 대한 논리성, 그리고 조직에 대한 과학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은 곧 건축사들이다. 그들에게 자기 주장에 대한 고집도 있고, 건축주를 끊임없이 설득할 수 있는 열정도 있다.

지금 도심지에서 한창 진행 중인 도심재개발이 몇몇 건축사들의 디자인 경연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도시 전체적인 조화와 재미스런 분위기의 구성에 일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건축사들이 도시를 망쳤다는 불행한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자료실 소개



건설기술연구원 전경

지난 70년대 이후 건설산업은 상품수출과 함께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국제건설 시장에서 기술의 부족과 수주여건의 악화로 한계에 부딪쳤으며 점차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집약형 공사가 증가됨으로써 설계, 시공, 관리능력의 향상과 기술개발 및 자립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건설산업기술을 전문적·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선진건설기술을 이전·연구·보급함으로써 토목·건축, 환경, 건설기자재 및 플랜트등 건설기술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3년 6월 민간주도로 설립되었으며, 건설분야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출범한 본 연구원은 기술의 선진화 및 자립화를 이룩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술개발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입국을 목표로 건설업계의 중흥을 기하고 있다.

본 연구원의 주요기능을 요약하면 건설기술에 관한 제기준연구, 건설기술에 관한 신공법 연구개발, 선진건설기술의 도입연구 및 보급, 건설기자재의 연구개발,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정관리의

연구발전, 건설기술조사연구에 관한 용역수탁, 기타 건설진흥을 위한 연구등을 들수 있다.

주요 활동

□ 건설기술정보 및 자료지원

- 건설기술에 관한 데이터 뱅크를 설치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신속 정확한 제공 및 기술상담
- 데이터 뱅크 운영
- 연구속보 발간(월간)
- 연구논총 발간(수시)
- 연차연구보고서 발간

□ 선진건설기술이전 및 보급

- 각종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개최
- 국내외 학자, 전문가 초빙연구
- 특별강좌 및 교육훈련
- 개발도상국의 건설기술자문
- 국제학술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 미 상무성 표준국(NBS)과 건설기술이전 협정 체결(84. 10. 4)
 - 미 MIT와 건설기술 공동연구 협정 체결(84. 10. 5)

- UNIDO로부터 건설자재 품질향상 및 공사관리 기법을 위한 SIS(Special Industrial Service) 프로젝트 수행
- 서독 베를린 공대와 기술협정 체결 추진중

• 실적

- 83. 11. 22. 개원기념 제 1회 건설기술학술발표회
- 84. 1. 27. 제 2회 건설기술학술강연회
- 84. 6. 22. 개원 1주년기념, 제 3회 국제건설기술학술발표회
- 84. 10. 30~31. 제 4회 국제건설기술학술발표회

□ 전산처리 업무

- 전산실 운영
-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도입 및 개발
- 원격탐사기법의 도입 및 개발 건설분야에 응용
- 자체 컴퓨터 보유 예정

연 령

- 83. 4. 15 연구원 설립추진계획 대동

- 령각하 재가(설립자
전두환 대통령)
- 83. 5. 17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
구원 창립이사회에서 초대
원장으로 안경모 박사 선임
 - 83. 6.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원
 - 84. 3. 28 미국 상무성 표준국과 공동
연구 협정체결

이 사 회

이사장 : 이재준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 사 : 안경모 (원장)

이승윤 (해외건설협회 회장)

정석운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안병욱 (건설기술교육원장)

오용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정주영 (현대건설주식회사 회장)

조정구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

최종환 (삼환기업주식회사 회장)

신유호 (주식회사 신성 사장)

김동섭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감 사 : 박희백 (범양건설주식회사 사장)

인 원 현 황

• 원 장 : 안 경 모

• 사무처장 : 송 귀 현

• 연구위원

성 명	전문분야 및 학위	출 신 학 교
박경운	수리학, 리모트센싱 Ph. D.	미료로라도주립대
이승우	교량구조 Dipl.-Ing.	서독아헨공대
고석문	플랜트엔지니어링 Ph. D.	미미네소타대
김원길	건축설계 M. A.	미남가주대

• 수석연구원

홍성환	토질공학 Ph. D.	미 알리노이대
이상근	환경공학 Ph. D.	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정보자료실 전경

특히 정보자료실을 운영하여 당 연구
원 및 국내건설계에 요구되는 국내외 건
설관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
류·정리·보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
도록 하는 국가적인 건설정보 자료실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수요자로 부터 건
설기술에 관련된 자문이나 문제점에 대
한 해결방안을 의뢰받아 처리토록 하므
로써 국내 건설기술정보망의 총추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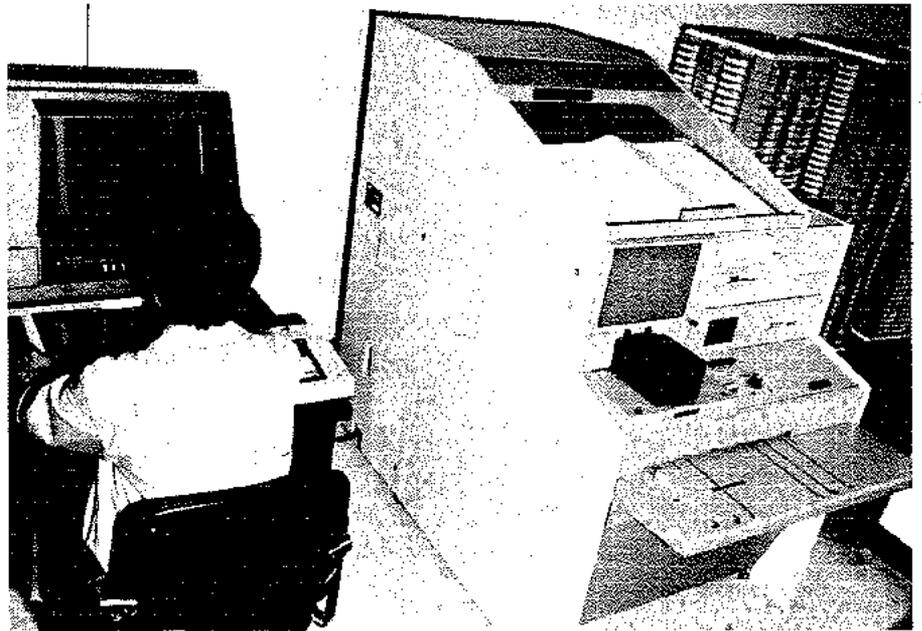
- 1) 단행본.....3,000권
 - 참고도서 : 200권
 - 총 류 : 100권
 - 인문·사회과학 : 80권
 - 자연·기술과학 : 2,550권
 - 기 타 : 70권
- 2) 정기 간행물.....271종
 - 양 서138종

- 건설·토목 : 69종
- 건 축 : 7종
- 플랜트(기계·전기·화공) : 41종
- 컴 퓨 터 : 3종
- 총 류 : 18종
- 일 서56종
 - 건설·토목 : 19종
 - 건 축 : 3종
 - 플랜트(기계·전기·화공) : 29종
 - 컴 퓨 터 : 0종
 - 총 류 : 5종
- 한 서77종
 - 건설·토목 : 21종
 - 건 축 : 7종
 - 플랜트(기계·전기·화공) : 24종
 - 컴 퓨 터 : 5종
 - 총 류 : 20종
- 3) 해외 및 국내협력기관자료.....535종
 - C. C. A : 독일의 주요 거푸집 공법
의 58종
 - C. I. B : Structural Timber

건설기술연구원자료실 소개

Design Code, 1983 외 11종

- C.T.C : Reinforced Concrete Columns 외 285종
- LAHMEYER : Tender Drawings 외 18종
- N.B.S : Simulation and Analysis of Construction Operations 외 34종
- RILEM : Underwater Concrete 외 86종
- T.U.B : Technologietransfer durch Consulting und Kooperation 외 12종
- M. I. T : Organizational Adaption to Small Computers 외 2종
- 충주댐 및 안동댐 입찰서 : 21종
- 4) 규격류84 files
 - KS : 65 files
 - ISO : 4 files
 - ANSI : 5 files
 - JIS : 10 file
- 5) 보고서 및 논문류
 - 한강하부 수리모형 실험보고서 외 270여권
- 6) 마이크로 필름자료 현황
 - 자료 도입 현황
 - 건설공사용 국제규격서, 코드 등의 마이크로필름(M/F)화 자료
 - AASHTO, ACI, ASTM, BSI, DIN, US-COE 등 24종 도입
 - M/F판독 복사기
 - RP 505 : 문서용 판독 복사기
 - KIP 600 : 도면용 판독 복사기
 - 이용 현황
 - 연구원 업무이외에 건설업체, 유관기관에도 복사 서비스



M/F 판독복사기

7) 해외 데이터뱅크 이용

(A) DIALOG 데이터뱅크

- DIALOG (미국 록히드사 제작 데이터뱅크) 소장 자료
 - COMPENDEX(공학전분야) 1,284,500건
 - BHRA FLUID ENGINEERING (유체공학) 140,000건
 - GEOREF(지질, 지구과학) 939,000건
 - INSPEC(전기, 전자) 2,427,000건
 - ISMEC(기계공학) 161,000건
 - NTIS(항공, 우주, 원자력공학) 1,053,000건
 - ENERGYLINE(에너지문제) 51,500건
 - POLLUTION ABSTRACTS(환경과학) 102,000건

- APTIC(대기오염관련) 87,000건 등 200여개의 데이터 베이스 소장

(B) JOIS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데이터뱅크)

- JOIS 소장 자료
 - JICST(K) (과학기술전반) 약 46만건
 - JICST(K) 7580 (과학기술전반) 약 220만건
 - JCLEARING(K) (과학기술전반) 약 41,000건 등 9개 데이터베이스 소장

본 연구원 기획조사부에 해외건설데스크를 설치하고 기술상담 및 자문에 응하고 있다.

주소 : 인천직할시 남구 만수동 377
전화 : (032) 422-7052, 0667

國際規格 利用案内

當 研究院에서는 建設技術 데이터 뱅크 構築事業의 일환으로 International Standard, Master Catalogue Service, Code 등을 最新版으로 수록한 Microfilm 資料를 입수하여 關聯 機關·業体の 요구에 부응코자 하오니 많은 利用 있으시길 바랍니다.

- M/F 복사 시용 요율 : 기본료 500원+50원×페이지수(A₄ 기준)
 (일반자료복사 : 기본료 400원+20원×페이지수, A₄ 기준) ※ 1,000페이지 이상 복사 요청시에는 10~20%할인제공함.

번호	자 료 명	국 명	발행년도	보 유 량	발행기관	비 고
1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USA	1985	Complete	IHS	2 개월마다 UP-TO-DATE
2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	"	"	"	"	"
3	AISC(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	"	"	"	"
4	ANS(American Nuclear Society)	"	"	"	"	"
5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	"	"	"
	-Construction			Full Sec.		
	-Mechanical			"		
	-Electrical & Electronic			"		
	-Chemical			"		
	-Nuclear			"		
6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	"	"	"
	-Production			"		
	-Refining			"		
	-Environmental			"		
7	AREA(American Railway Engineering Association)	"	"	Complete	"	"
8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	"	"	"
9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	"	"	"	"	"
10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	"	"	"
11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	"	"	"
	-Construction			Full Sec.		
	-Paint			"		
	-Plastics			"		
	-General			"		
12	AWS(American Welding Society)	USA	1985	Complete	"	"
13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	"	"	"
14	UL(Underwriters Laboratories)	"	"	"	"	"
15	CSAS(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Service)	"	"	"	"	"
	-Quality Assurance			Full Sec.		
	-Building Materials and Products			"		
16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	U. K	"	"	"	"
	-Process and Heavy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		
17	DIN(Deutsche Industrie Normen=German Industry Standards)	GERMANY	"	"	"	"
	-Civil Engineering			"		
18	Master Catalogue Service	USA	"	Complete	"	"
	-Vendor Name Listing			"		
	-Product Service Listing			"		
	-Brand/Trade Listing			"		
19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	"	"	"
20	AWWA(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	"	"	"
21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s)	"	"	"	"	"
22	NFP(A) (National Fluid Power Association)	"	"	"	"	"
23	FCR(Federal Construction Regulations)	"	"	"	"	"
	-Corps of Engineers U. S. A.			"		
	-U. S. Army			"		
	-U. S. Navy			"		
	-U. S. Air Force			"		
	-Federal Agencies			"		
24	FS(Federal Specification)	"	"	"	"	"

서울의 디자인



강철구
동우건축·본지편찬위원

얼마전 일간지의 기자수필란에서 “디자인의 현대”란 제목아래 세계적으로 모든 상품이 디자인없이는 고급 상품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읽었다. 즉 아무리 제조기술과 품질관리가 뛰어나도 그것만으로 고급품이 되지는 못하고 디자인이 가미되어야만 고급품이 된다는 이야기로 그 예로 똑같은 가죽 가방 하나의 값이 디자인의 유무로 가격차가 10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디자이너의 명성과 능력이 우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제하에 서였다.

이는 웬만한 첨단기술도 일반적 기술로 되어버린 오늘의 기술개발의 고속화 시대에서 기술 그 자체는 당연히 고급화 되어야 할 기초적 사항이라는 이야기다. 요즈음 자동차의 선택성향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성능은 물론 갖추었을 것으로 되어있고 외관의 디자인이 어떠한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다른분야에서보다 건축에서는 애초부터 디자인의 비중이 크게 인식되어 있다.

건축의 기술적인면은 우리의 그것도 국제화되었고 수준도 우리 사회의 개발 정도만큼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기술수준의 제약보다는 경제적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건축도 기술은 기본기로서 당연히 닦여져 있어야 한다고 믿고 디자인의 가미가 문제가 되며 곧 고급품으로의 발전여부도 문제일 것이다.

아직은 해외 경쟁력을 갖지 못했다 인정한다면 무대는 곧 한국이고 그중 큰 비중이 서울이다. 서울은 단 한장의 그림이다. 불란서의 파리처럼 옛것의 파리가 하나있고 새것(라테팡스)의 파리가 또 하나있어 2개의 파리라는 그림을 갖고

있어 고전의 명화를 보존도하고 새로운 화법의 현대화를 마음껏 그릴 수 있으면 도시의 모습이 어떻고 보존문제가... 등의 논란은 많이 적어지겠지만 한장밖에 없는 그림을 갖고 그 부분부분 구석구석에 어떤 그림을 그려넣을지 어려워진 서울은 그래서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근대 수백년사이에 세워진 신흥도시인 서울도 아니다. 역사의 도시 서울이고 또 발전하는 도시 서울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가 아니라 화폭이 너무커서 그런지 서울은 한장의 그림속에 여기 저기 그림의 색깔이 다 다르게 되어버렸다.

나라가 발전해오며 거기에 맞추어 종래 못보던 규모나 형태의 새로운 건물이 없을때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 화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것이 보여서 지금의 서울이 되었다. 그런 주인공들은 최첨단, 최고의 기술, 디자인으로 화려한 존재를 보일때 그 뒷배경이되는 자그마한 건물들의 운집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값싼 기술과 디자인으로 양산되어왔다. 그도 지금의 서울이 되었다. 그중 고급의 기술과 디자인은 많은 부분이 수입된 것이어야 했고 저급의 것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서울은 한장뿐인 화면이라는 사실을 잠깐씩 잊고 각자 한구석씩 차지하여 훌륭히 혹은 급하게 그리기 바빴다.

건축주의 물이해를 자주 개탄하며 작업을 한 경우도 많았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어쨌든 “서울 디자인”의 주체는 건축가이다. 디자인이 그림의 한구석을 곱게 칠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건물개개도 한장의 그림이지만 서울도 한장의 그림이다.

고급도시 서울 혹은 한장의 명화로써의 서울을 만들려면 우리들 건축가가 고급의 디자인을 창조해야한다. 그러려면 높은 질적수준을 지녀야 한다. 새로운 디자인은 고급일 수도 있고 잘못 조약탈 수도 있다. 새것이든 진부한 것이든 철저히 다듬어지고 충실한 것이면 절대 고급의 디자인일 수밖에 없다. 기발한것은 새롭긴하지만 고급이되려면 필히 세련미라는 것이 있어야한다. 급하게 얻어서 급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세련될 수가 없다. 세련된 고급의 건축기는 한개건물의 디자인에 서울의 디자인을 염두에 두지 않을리 없다.

국내 디자인 수준의 발전이라는 숙제만이 남는 셈인데 다른분야 예를들면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외국것의 수입을 막고 있듯이 건축디자인도 디자인 그 자체는 선진외국에서 들여와야겠지만 최종 상품화된 것은 수입규제같은게 있으면 어떨까하는 엉뚱한 생각도 든다. 그래서 일정수준까지 고급화 되면 수출도 해보고... 만일 그렇다면 원자재 수입을 유발하지않는 아주 부가가치 높은 전략 수출품목일텐데, 어쨌든발등의 불은 서울의 디자인은 해가면서 또 그 수준도 높이려하면 건축가들의 각종 단체를 최대한 활용, 각자 충실한 내실을 기한다음 감히 서울의 그림에 한부분 점찍어 보려한다는 그런 엄격한 분위기를 조성해봄이 옳을 것이다. 그리 하면 건축가 스스로 고급 디자인을 공급하는 작가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으로 사회의 설득, 건축주의 설득이 가능해 질 것이다.

다 그런 다음에 후회가 아닌 만족한 서울을 위해서...

담 장



이 상 돈
전주구미건축설계사무소

담장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흙 또는 시멘트제품 담장에까지 재료에서는 변함이 있었을 지라도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다.

일반주택에서 영역적(Territory)으로 볼때 사적인 영역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담장은 사회적 경제적인 계층의 한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릴적 동네의 담장들은 토담에 짚이 영이나 싸리대동, 생 울타리에 기둥이 손때 묻은 대문 달린 담장들이 고작이었으며 낮으막하여 울 안에서 소일하면서 허리를 펴고 일어서면 길 가는 이웃과 마주 보며 대화도 손 쉽게 나눌 수 있었고 이웃간에 담 너머로 맛있거나 새로운 음식등을 장만하여 주고 받는 정다운 장면도 흔히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담장들은 농촌을 제외한 도시 주택에서는 주택 자체에 차중한 나머지 재료에서 시멘트벽돌이나 블록이 대다수 사용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필수적으로 높이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 대문 역시 철관 대문으로 폐쇄성을 실감나게 하고 있으며 의례 서민주택에서 중산층 주택과 고소득층 주택으로 갈수록 높이가 더

하여 심지어는 철조망 쇠사슬 까지 설치하여 으스스한 느낌까지 들게 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별로 필요치 않은 듯 한데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두팍의 큰 대문에다 사람만 드나드는 또 하나의 문이 그것이다.

담장이나 대문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법규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얼마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시골에 사는 동료의 부친이 작고하시어 오랫동안의 길이라 근처 행인에게 물어본즉 그 행인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집의 위치는 물론 그 집안의 가족관계 까지도 상세히 알고 있어 손쉽게 찾아 문상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최근 한 조사연구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농촌취락은 30호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 취락에서의 이웃들은 그들의 가족 사항 생활상 까지도 서로 알고 있으며 서로 스스럼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어떤가.

아파트 단지에서 15호~20호 정도가 고작 깊이 없이 알고 지내는 정도로서 도시의 생활은 농촌과 다른 실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터 놓고

지낼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우리 스스로가 저 버리며 까맣게 잊어 버리면서 체념상태에 놓인 듯 싶어진다.

더우기 일부의 불성실한 처사 때문에 건축민원의 부조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바 건축관계의 종사 공무원과 건축사 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건축주나 시공자와는 대화가 단절된 느낌까지 들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얼마남지 않은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에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이웃 사촌이란 국민성향을 보여줄 근원과 서로간의 대화로 친근감을 통하여 유대관계가 담장에서 부터 의식작용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아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로서 건축적인 측면에서 친근감 있는 자연재료 선택과 낮으며 울 안이 보일 수 있는 담장이 설치 되도록 유도함이 옳은 길이라 믿는다.

그리하여 온화감 넘치며 다시 걸어 보고 싶은 한국의 도시주택 골목을 형성하도록 다 함께 힘을 합한 후, 도시 이웃들도 서로 터 놓고 의사가 교류되어 인간애가 넘치는 도시주택이 되었을때 이 기적인 물질문명 사회에서 화기에 찬 새로운 사회로 면모를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유 향 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5. 교육시설 기준령

1984년 8월 2일자로 개정된 법률 제 3739호에 따른 교육법 중 개정법률을 보면 교육법 제 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리구역안의 의무교육 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설치·경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그 관리구역안의 의무교육 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를 설치·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이나 사립의 중학교에 학령대상아동의 일부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4년 8월 2일자 대통령령 제 11481호로 개정된 각급학교 시설·설비 개정제안 이유를 보면 현재에는 각급학교의 체육장, 교실 등에 갖추어야 하는 설비 등의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문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하며 이들 기준을 교육내용의 변천, 새로운 교구 및 기자재의 개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시청각자료에 관한 기준을 법률 제 528호로 교구에 관한 기준을 법률 제 531호로 각각 폐지시켰다.

각급학교 시설에 관한 기준은 점차로 사회변화에 적응적이고 교육현장에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교육용지·각종교실·각종서비스시설에 설치될 교구·기기·자료 및 급·배수 등의 건축설비의 설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다목적·공용적인 기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A. 각종교육용지

1) 실습지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제 4 조는 중학교……실업교과 중 농업을 선택하는 학교는 실습지를, 수산을 선택하는 학교는 양어장을 두도록 기준하고 있으나, 이들 실습지(장)를 실업교과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공용하도록 건축조

진, 시설·설비의 설치 및 공용방법·공용영역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습지는 법적으로 다목적·공용적 시설이 아니다.

2) 운동장 및 수영장

동기준령 제 3조에 의하면 각급학교 및 유아원 운동장(유희장)에 환경위생을 고려한 건축설비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다. 동시에 각급학교 체육장의 규격은 한번의 길이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130 m 이상 이어야 하지만 보도 또는 차도의 거리로 2km 이내에 학교·공원·광장·기타 시설물에 직선길이 130 m 이상의 체육장 시설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시설물을 공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구내에 2개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한 경우에 체육장을 겸용할 수 있고, 수영장은 제 10조에 의하여 권장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장은 인근학교와 또는 지역사회와 공용할 것을 법으로 중용하고 있다.

B. 각종교실

1) 학급교실

동기준령 제 5조에 의하면 보통교실을 1학급당 실면적의 기준(66㎡) 만을 정하고 있다. 제 12조는 유아원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유아원 사이에 공용을 정하고 있다. 제 1항은 학교·교회·기타의 시설을 이용하여 유아원을 설치할 경우, 그 이용하는 시설의 제 3조 제 4항, 제 5조 제 9항 및 제 8조에 규정한 시설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원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 2항에 따르면 유아원은 제 3조 제 4항 및 제 5조 제 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습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희장과 유희실, 보통교실과 유희실을 서로 겸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 5조 제 4항에 의하면 국민학교·중학교 모두가 실험실·실기실·실습실을 설치하기 전에 학교당 학급수에 관계되는 학급수에 따라서 학급교실을 대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실험·실습·실기실

동기준령 제5조 제2항에서 과학교재에 필요한 특별교실과 그 준비실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에서는 강당설치에 대한 규정을, 제2항에서는 체육관설치에 대한 규정을 제8항에서는 어학실습실을, 제5조 제2항에서는 중학교 가운데 실업교과 중 농업을 선택하는 학교는 실습지 부속사 및 농업 실습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실습·실기실은 보통교실과 통합계획 될 수 있고, 동시에 개방계획될 수 있도록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각종서비스시설

(1) 도서실

동기준령 제5조 제6항은 도서실의 관람 좌석수와 비치 도서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민학교의 경우 보통교실을 도서실로 겸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학급당 3석을 설치하고 학교당 20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실 규정에서는 통합계획이나 개방계획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여러 가지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또는 생활영역인 취미생활, 정서생활 및 근로생활과 관련된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는 규정은 없다.

(2) 지원시설

교사중심의 지원시설: 동기준령 제5조 제1항 8은 관리용 각실 가운데 교장실, 사무실, 숙직실, 창고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무실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교중심의 지원시설: 동기준령 제5조 제1항 9는 보건위생에 관한 각실 가운데 양호실, 변소,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의 설치를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급식시설, 온수공급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양호실은 학교당 1실 이상을 설치하되 관리용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은 학교당 각 1실 이상을 설치하고 국민학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전체적으로 통합시설 기준은 없으나 운동장·보통교실의 경우와 같이 학

교간에 지역사회간에, 또는 학교안에서 교과영역, 생활영역간에 개방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다.

유아원의 경우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건물, 교회건물, 일반건물이 환경위생상 지장이 없고, 교육상 지장이 없으며 건물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유치원 건물로서 공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내부에서도 학급교실이 실험실, 실습실, 실기실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특별활동영역, 생활영역에서 활용되는 시설의 개방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급학교 기준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의 문제를 년차적으로 보완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시설의, 각급학교시설의 상호간에 통합성과 개방성을 넓히는 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Ⅲ.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실태조사에 응한 296개교는 표본집단 514개교의 58%에 해당된다. 학교별로는 유치원 73개교, 국민학교 126개교, 중학교 97개교가 실태조사에 응하였다. 설립별로는 공립이 제일 반응율이 높았고, 학교당 학급수는 유치원의 경우 1~12학급, 국민학교의 경우 19~24학급, 중학교의 경우 19~30학급의 학교가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다.

각급학교 건물은 1950년대부터 전반적으로 건축률이 증가하였다가 1970년대에 약간 감소하였으며, 다시 1980년대에 70%가 증가하였다. 특히 각급학교 가운데 유치원교실은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축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해에 국민학교들은 다른해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율로 학교가 건축되었다. 중학교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건축률이 높아졌다.

2. 자료분석

1) 각종 교육용지

(1) 실습지와 자연원

실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은 39.5%, 국민학교는 25.8%, 중학교는 20.7%,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급 학교 사이나 지역사회 또는 학교내부에서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생활영역을 위해서 실습지를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연원은 38% 이내의 학교만이 설치하고 있어 자연원의 다목적 교육은 62% 정도의 학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간구조는 전체적으로 개방적이고 규모는 소형이며, 재료는 안정성이 있으며 색채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설계는 유치원의 실습장(양어장) 및 동물원을 제외하고는 실용적이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인근학교와 공유가 불가능하다.

특히 실습지나 자연원은 12.7%만이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을 뿐 그외의 필요한 건축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은 전무하다. 관리상태도 84.5%의 학교가 교육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2.9%의 학교가 실습지를, 또는 3.3%의 학교가 자연원을 학교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2) 운동장과 수영장

유치원 21.2%, 국민학교 23.0%, 중학교 22.6%가 운동장내에 트랙·모래장·구기장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77.7%가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0.6%의 학교가 운동장을 건축조건상 그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45.5%의 각급학교장들은 운동장이 위생적이라고 하지만 55%의 학교가 단지 급·배수설비만을 설치하고 있어 위생상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시에 28.4%의 학교운동장만이 교육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유치원 26.9%, 국민학교 31.7%, 중학교 32.3%가 예능계열·사회계열 등의 순으로 교과영역에서, 특별활동영역에서, 생활영역에서 공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슷한 비율로 지역사회와도 또는 인근학교와 공용하고 있다.

단 수영장은 국민학교 4.6%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각종교실

(1) 1 학급교실

교과활동을 할 수 있는 학급교실은 유치원 56.5%, 국민학교 59.9%, 중학교 38.7%, 특별활동의 경우 유치원 25.3%, 국민학교 18.4%, 중학교 20.6%, 학급생활의 경우 유치원 24.4%, 국민학교 7.2%, 중학교 25.6%에 해당된다. 따라서 24.6%, 학교의 학급교실이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하고 있다.

학급교실은 전반적으로 건축구조가 개방적이어서 쉽게 교실을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중형에서 소형 쪽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35.9%가 건축재료, 색채, 설계 등에서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50%정도의 학교가 위생면을 고려하고 있다. 관리면과 활용효과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학급교실은 50%이내의 학교만이 다목적성 또는 공용성을 지니고 있다.

(2) 실험·실습·실기실

실험실: 어학실험실은 국민학교 5.8%, 중학교 9.9%가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구조는 개방적이고, 규모는 중형이다. 건축재료, 색채는 안전권에 있으며 설계는 실용적이다. 학교안에서 언어계열 교과 영역과 학생회, 클럽활동, 취미생활, 정서생활을 위해서 공용하고 있다.

과학실험실은(또는 자연실) 유치원 28%, 국민학교 26%, 중학교 32.5%가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모두 획일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 33.4%가 위생적이며, 56.7%가 교육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60.8%가 자연계열과 클럽활동 및 취미생활 등에서 과학실험실을 공용하고 있다.

실습실: 유치원 2.4%, 국민학교 2.9%, 중학교 11.1%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고, 평균 6.4%가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규모는 소형에서 중형이다. 실습실은 전체적으로 8.1%의 학교가 학교안에서 실업계열, 클럽활동, 취미생활, 근로자생활·정서생활 영역에서 공용하고 있다.

실기실: 음악실은 유치원 15.5%, 국민학교 9.2%, 중학교 43.1%의 학교가 보

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중형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14.5%가 공능계열에서, 중학교의 경우 3.9%가 실업계열에서 또는 특별활동영역에서 공용하고 있다.

미술실은 유치원 1.6%, 국민학교 3.9%, 중학교 12%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소형이다. 건축재료, 색채, 설계는 실용적이며, 위생적이다. 미술실은 모두 학교내에서 공용하며, 예능계열 뿐만 아니라 실업, 사회, 특별활동영역에서 공용하고 있다.

체육실은 유치원 6.2%, 국민학교 5.8%, 중학교 8.2%가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건축구조는 개방적이며, 규모는 중형이지만 유치원은 비교적 대형이다. 체육실은 학교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공용하고 있다.

3). 각종서비스시설

(1). 도서실

도서실을 보유하고있는 학교는 유치원 28.2%, 국민학교 30.3%, 중학교 24%이다. 도서실내에 공간종류는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 교육시설의 순으로 보유하고있다. 건축구조는 전망적이고, 규모는 소형에서 중형이며, 재료는 모두 안전하며, 색채는 정서적이며, 설계는 실용적이다.

그리고 유치원 17.8%, 국민학교 20.9%, 중학교 18.6%만이 도서실의 활용효과를 높이고있다. 도서실은 지역사회와는 2.7%만이 공용하며, 20.1%가 학교내에서 사회계열, 특별활동 영역에서 공용하고있다.

(2). 지원시설

교사중심지원시설: 유치원 24.6%, 국민학교 32.5%, 중학교 31.4%가 보유하고있으며, 비교적 개방적이고 소형에서 중형을 지니고 있고, 재료는 안전하며, 색채는 안전감이 있으며 설계는 실용적이나 그 활용효과는 32.9%이다.

교무실: 서무실은 33.6%의 학교만이 학교내부에서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생활영역 전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에 필요한 교직원을 편성하고 지휘하여 교육프로그램 전체를 조정 또는 통합해서

평가하는 학교교육경영상의 공용공간을 보유하고있다.

학생중심지원시설: 유치원 6.7%, 국민학교3.9%, 중학교 15.3%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개방적이며, 규모는 소형에서 중형이고 건축재료는 안전하며, 색채는 정서적이고 건축설계는 실용적이다. 그러나 5.7%만이 활용효과를 보이고있다. 학생실은 대부분 학교안에서 공용하며,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학생생활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용되고 있다.

학교중심지원시설: 양호실

양호실은 환경위생 조사코너, 환경위생자료코너, 공중보건조사코너, 공중보건자료코너로 나누인다. 이러한 양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3.6%에 불과하다. 이공간은 개방적이며, 규모는 소형이고, 건축재료는 안전하며, 색채는 안전감을 주고, 설계는 실용적이다. 활용효과는 전체의 1.4%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공용성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수위실·관리실은 12.4%의 학교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방적이며 소형에서 중형이고 비교적 실용적이다. 그러나 학교안에서 관리상 학교행사에서 공용하고 있으나 전체 학교가 이러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있다.

화장실은 건물층마다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농촌보다 도시가 우세하고, 반면에 화장실 별동을 가진 경우는 도시보다 농촌이 우세하다. 이것은 소변소 대변소의 경우 마찬가지 이다. 전체적으로 소변소는 유치원 27.1%, 국민학교 21.3%, 중학교 15.8%가 충분한 보유수를 가지고 있고, 대변소는 유치원 28.7%, 국민학교 23.1%, 중학교 17.2%가 충분하다. 규모는 대부분 중형이고 건축재료는 안전하며, 색채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위생설비 설치는 전체의 14.2%이어서 환경위생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화장실은 의도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용하지는 않는다. 수시로 용무가 있는지 역사화인 또는 그외의 사람들이 공용하고 있다. 동시에 생활훈육현장으로서 활용되고있다.

IV. 논의

1. 건축조건 및 설치조건

앞에서 분석한 조사자료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결정하는 건축이윤으로서 건축구조·건축설비·실내에 설치하는 공간시설인 교구·기기·자료들이 각종교육시설에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치되며, 동시에 개방적으로 설치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건축구조가 개방적 통합적이면 건축규모·건축재료·설계·색채 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다.

둘째, 교육시설 자체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관한 자료다.

건축구조가 통합적이라면 교실과 교실을 구분하는 벽체가 대단히 이동적이어야 하며 이와같이 벽체를 이동하려면 자연히 건축자료는 가볍고 사람의 손이 자주 접촉되는 벽체이므로 안정성을 갖는 재료로서 결정되게 된다. 건축규모는 벽체가 이동된 후의 상태와 그 이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역시 건축구조의 통합성은 건축물의 기능을 다목적·공용적으로 발휘시킨다. 만일 건축구조가 개방적이 되려면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천정·바닥이 서로 입체적으로 완전히 연결시키지 않고 벽은 벽으로서의 기능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이 숨레잡기를 할 수 있고 비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낮은 벽을 하여야 한다. 또한 낮은 벽체에 구멍을 뚫어서 아동의 놀이기구 역할도 할 수 있다. 바닥은 평면인 부분과 굴곡이 있는 부분을 두는 경우도 다목적이어서 개방성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 천정의 면도 전등판을 달아 놓는 기능만이 아니고 계시판의 역할도 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우연히 천정을 바라다 본다고 했을 때 하늘을 그린 천정이 라면 빈 천정보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결국 건축구조의 통합성·개방성은 교실의 물리적 환경을 학습환경으로도, 집단생활을 하는 조직적인 환경으로도, 개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간 이용 칸막이(소위 이동식 벽체)로 변환시킬 수도 있다.

건축설비의 통합성은 하나의 실내에 여러가지 설비를 각각 설치하였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설비를 하나의 셋트로 설치하였을 때 이들의 동일기능을 발견하게되며, 동시에 중복된 설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설비의 썬타를 중심으로 모든 교실에 설치되어있는 장치를 통해 조절을 받게되면 역시 경제적인 반면에 설비자체는 통합적이면서도 개방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건축설비의 통합성·개방성은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위해서 환경위생면을 지켜주고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헤르츠버그(Hertzberg)의 「동기-위생론」(Motivation-Hygiene Theory)⁴¹⁾과 일치하는 이론이 된다. 실내에 설치되는 교구·기기·자료는 책·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험기기·실험자료 등을 직접 학생이만지며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빈 교실에서 학생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강화적이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은 교육시설을 다목적·공용적으로 기능화 시킨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종교육용지, 각종교실, 각종서비스시설은 대단히 다목적·공용적이다. 지금까지 운동장이나 학급교실 또는 도서실만이 다목적·공용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특별교실로 명명하고 있는 교실들을 통합하여 「실험·실습·실기실」이라는 하나의 썬타로 설계해서 서로 직접 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게 되면 이것 역시 실내에 건축설비를 통합했을 때 처럼 중복된 교실의 기능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와같이 모든 시설을 집단화하여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다목적·공용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도시 유치원 시설의 건축구조는 내용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개방적이고 건축설비 또한 20가지 시설의 종류 가운데 13가지의 시설이 10종류 이상의 건축설비가 1실에 집중되어 있다. 교구·기기·자료 또한 기본적인 것만 설치되어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수가 시설내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0% 이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우리나라 학교의

내부분이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결정하는 건축 및 설치조건이 부재이기 때문에 시설의 기능부재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별로 구분해 볼 때 농촌 유치원은 교무실·과학실 등에만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실에는 전무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그나마도 설치되어 있는 학교수는 5%이내의 학교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로 갈수록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수는 모든 시설에 걸쳐서 고르게 설치되어 있으나 문제는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단지 3.5%이라는 점이다.

결국 건축설비와 시설은 모든 시설내에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학교안에서조차 거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교육시설 기준령에 비추어 본 현황

기존 교육시설은 아직도 학습중심이 아니고 교원중심이며, 통합적·개방적이지 않고 개별적·폐쇄적이다. 그러나 각종 교육용지·각종교실·각종서비스시설은 전체적으로 볼 때 27.2%만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72.8%의 학교는 시설부재로 교육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공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공교육의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여야만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시설비를 절감시킬 수 있느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시설을 학교간·지역사회간 또는 학교내부에서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하도록 통합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27.2% 학교의 시설은 10% 정도만이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에서는 기능적인 계획을 강하게 강조해 왔다.⁴²⁾ 기능적인 학교설계의

41) Paul, Hersey & Kenneth H. Blanchar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77), P.308.

선행조건은 현대교육원리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설을 통합하고 개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대지를 줄이고 중복된 시설을 피하여 경제적이고 교육효과적인 개념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이고 교육효과적인 시설이란 학습자의 사회성을 개발시켜서 소속감 또는 인정감을 주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학교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실험, 실습, 실기를 하는 경우보다 좀더 광범위한 지역사회시설에서 경험하므로써 사회성은 좀더 넓고 깊게 개발되기 때문에 다목적, 공용적 시설은 아동의 사회성을 개발하는데 물리적 척도가 된다.

이러한 물리적 척도인 다양한 시설과 관련된 아동의 심리적 소속감·불안감을 강조한 사람은 루츠(Ruch, 1958)⁴³⁾ 제실드(Jersild, 1950)⁴⁴⁾ 호록스(Horrocks, 1962)⁴⁵⁾ 타너(Tanner, 1971)⁴⁶⁾ 브레인, 존스 그리고 심프슨(Blain, Jones and Simpson, 1975)⁴⁷⁾ 등이 있다.

이와같이 「사회성 개발」을 위한 학교 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은 각종교육용지, 각종교실·각종서비스시설이 “아동집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일 때 발휘된다”⁴⁸⁾ 다양한 공간이란 아동집단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 교과활동, 특별활동, 생활영역에서 개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동시에

“아동은 학습능력, 신체적, 발달, 지각, 언어, 사회적·정서적 적응, 태도, 지능, 관심, 학습과목에 관련된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 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각급학교의 시설과 지역사회 시설을 동일구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현대교육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결국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시키는 방법이 된다.

1). 유치원 시설

시설 기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은 인근학교나 지역사회와 공유시키기 보다 학교내부에서 공유하도록 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과 비교해 볼때 기존 유치원 시설도 학교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기할 점은 각종서비스시설이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미흡하지만 반면에 실습지, 자연원은 도시보다 훨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 국민학교 시설

모든 시설이 교과영역에서 공유하기 보다는 특별활동 및 생활영역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시설 기준령과 비교해 볼때, 각종교육용지는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나 교실 및 서비스

시설은 학교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

3). 중학교 시설

운동장을 제외한 각종교육용지는 지역사회와 공유하지 않으며 특별활동, 생활영역에서도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각종교실은 학급교실 뿐만 아니라 실기실이 교과 및 특별활동 그리고 생활영역에서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교실 및 각종 서비스 시설은 가장공용범위가 다양하다.

-
- 42) Basil Castaldi, *Op. cit.*, P. 19.
 - 43) Floyd L. Ruch, *Psychology and Life* (Chicago; Scott Foresman and Co., 1958), P. 138.
 - 44) Arthur T. Jersild, *Child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1950), P. 185.
 - 45) John E. Horrocks, *The Psychology of Adolescents*, (Boston; Houghton Mifflin, 1962), P. 137.
 - 46) Laurel N. Tanner, et.al.,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1), PP. 148~150.
 - 47) Glenn M. Blain, R. Stewart Jones, and Ray H. Simpson, *Educational Psychology*, (4th ed.), (New York; The Macmillan Co., 1975), P. 313.
 - 48) Basil Castaldi, *Op. cit.*, P. 21.

정화결의대회에 부쳐

박 순 중
에지건축설계사무소

378

정화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정화 결의를 한 것도 여러번이요, 세월도 많이 흘러 갔다. 그래도 앞으로도 얼마를 더 정화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왜 지금 정화결의대회를 하여야 하는가. 정화가 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정화 하여야 하는지 그렇게 많이 정화결의대회를 하였건만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여태 형식적으로 정화결의 대회에 참석하였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럼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정화하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모든 행동은 의식과 무의식의 정신세계에서 나온다고 볼 때에 올바른 정화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올바른 정화는 우리 모두가 공통 분모적인 방향설정과 공동 해결하고자 하는 구심점이 모아질때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건축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건축사는 3중적인 위치에서 있게 됨을 알수 있다. 건축설계에 건축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건축가로서의 창작 욕구와 또한 건축법에서 요구되는 제반사항의 준수라는 3중적 고충. 이러한 3중적인 위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면

첫째. 업무 과다수주

생활인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초적인 것이기에 많은 설계를 수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건축사로서 처리할수 있는 능력 이상을 수주하여 건축사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건축사 작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지 말아야 하겠으며 자기 작품이 아닌 설계도에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하겠다. 건축사 자신의 따뜻한 정성이 들어 있는 작품은 짜구려 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건축주 시공자의 지도 계몽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내땅에 내마음대로 내집을 짓겠다는 욕심과 준법정신의 결여로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위법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

것을 지도 계몽치 못하니 당사자인 건축주는 대부분 받지도 아니하는 벌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 건축사들은 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축물의 발전

건축사는 항상 건축물의 창작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야함이 본연의 사명이다. 사회는 변하고 건축도 변하는데 10년 전 건축과 지금의 건축이 똑같은 수가 없을 것인데 우리는 구태의연한 건축물만 양산하는 것이 아닐런지.....

우리는 건축의 주역이며 선도자로서 모든 것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건축이라는 본질은 덮어두고 지역적인 편견중가나, 사후 설계변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시 하는 것이 문제인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우리는 제도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욱 더 제도관과 친하게 지내면 더 이상의 정화결의대회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지킨 약속시간 기쁨주고 믿음준다

신입회원



□吳炳台 / 29. 7. 18 / 서울 /
서울공대 / 동남산업건축사사무
소 / 강남구논현동199-2/566-
7032



□郭成文 / 52. 10. 8 / 경북 /
영남대학교건축과 / 건축연구소
두우 / 서울중구서소문동58-17
/ 754-1727



□金彰煥 / 39. 12. 3 / 서울 /
성동공고건축과 / 세기건축설계
사무소 / 중구수표동47-6/266
-4267



□白宗鉉 / 52. 10. 14 / 경남 /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 한성건
축사사무소 / 경남마산시중앙동
3가4의270 / 42-3875



□裴熙秀 / 48. 2. 24 / 서울 /
연세대학교건축공학과 / 현대엔
지니어링주식회사 / 서울시종로
구계동140-2 / 741-1441



□趙仁淑 / 54. 6. 13 / 서울 /
한양공대건축학과 / (주)건축연
구소광장 / 종로구사간동80/732
-6704



□尹錫韓 / 50. 5. 9 / 부산 /
동아대학교건축과 / 중부산건축
사사무소 / 중구부평동2가31 /
23-9395



□尹林浩 / 52. 10. 12 / 경기 /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건축공학
과 / 중구침 / 서울중구에관동 /
265-6159

□ 준 회원

한발양보 거리질서 한발빠른 선진조국

경기

□서울지부=△박수량회원 / 건축문화설계연구소 / 종로구 필운동278-5 / 725-1549

△이종우회원 / 주식회사우정건축 / 강남구역삼동735-5 / 552-9606

△방규상회원 / 세진건축 / 중구신당동292-44 / 252-2828

△박일수회원 / 박일수건축사사무소 / 도봉구수유동229-18 / 903-6424

△서진우회원 / 하나건축연구소 / 강남구서초동1143-3 / 581-7891

△장기인·장순용회원 / 삼성건축설계사무소 / 강남구청담동134-20 / 546-3781

△이명환회원 / 썬건축사사무소 / 도봉구수유동176-71 / 903-9652

△구성모회원 / 구미건축설계연구소 / 영등포구대림동990-80 / 846-0207

△이상철회원 / 성원건축 / 영등포구 여의도동13-25 / 784-1304

△김영래회원 / 성림건축사사무소 / 강서구화곡동776-3 / 697-3111

△신명철회원 / 삼보건축연구소 / 강남구삼성동8-1 / 545-9363

△김성탁회원 / 한국건축설계연구소 / 강남구도곡동543-4 / 568-6975

△이원혁회원 / 삼정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충무로2가60-3 / 777-4072

△한완수회원 / 동립건축연구소 / 성동구자양동628-24 / 446-0390

△유진형회원 / 예일건축연구소 / 은평구응암동93-5 / 352-0550

△김영희회원 / 광성건축사사무소 / 구로구독산동1012-15 / 855-4888

△허명관회원 / 명륜건축설계사무소 / 강남구방배본동814-5 / 533-9306

△황정수·서상호회원 / 가가건축 / 강남구역삼동705-27 / 555-4868

△함영은회원 / 범도건축연구소 / 영등포구당산3가398-1 / 678-5198

△구용환회원 / 안국종합건축 / 동대문구신설동97-18 / 922-6518

△이석승회원 / 동승건축설계사무소 / 영등포구당산3가240 / 675-5483

□경기지부=△박상욱회원 / 박상욱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98-22 / 42-7333

△이상쾌회원 / 이상쾌건축사사무소

/ 안양시안양동622-184 / 2-3328

△정환철회원 / 정환철건축사사무소 / 부천시십곡동87-11 / 63-1881

△김진두회원 / 김진두건축사사무소 / 수원시교동81 / 42-8808

△박효남회원 / 박효남건축사사무소 / 수원시교동90-8 / 42-9720

△이일윤회원 / 이일윤건축사사무소 / 수원시교동79-5 / 42-4710

△안영준회원 / 안영준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214-96 / 42-4208

□강원지부=△이찬호회원 / 대림건축설계사무소 / 춘천시조양동37-19 / 2-2690



會員動靜

□충북지부=△정순모회원 / 정순모건축사사무소 / 제천시명동10-14 / 42-6571

□충남지부=△김경열회원 / 대전종합건축사사무소

△오한진회원 / 오한진건축사사무소 / 대전시중구대흥동486-3

□제주지부=△김명남회원 / 세일건축사사무소

△고영중회원 / 대성건축사사무소

△김영식회원 / 한라건축사사무소

△문창두회원 / 현대건축사사무소

△양창완회원 / 동남건축사사무소

△김유봉회원 / 삼정건축사사무소

△김창우회원 / 우신건축사사무소

△이공선회원 / 중앙건축사사무소

△고정식회원 / 제일건축사사무소

△박진후회원 / 동원건축사사무소

△김석윤회원 / 김석윤건축사사무소

△문자원회원 / 제주건축사사무소

□대구지부=△최창규회원 / 보성건축사사무소 / 대구시서

구평리동1215-1 / 624-8158

진출 □서울지부=△백광윤회원 / 삼인합동건축 / 중구다동131 / 85. 4. 29 /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225-24

△김순제회원 / 세왕건축연구소 / 도봉구미아8동322-1 / 85. 5. 2 / 경기남양주미금읍지곡리181

△심호섭회원 / 태석건축설계사무소 / 강동구송파동19-3 / 85. 5. 1 / 충북음성군음성읍내대489

△추명오회원 / 합동상명건축설계사무소 / 강서구등촌동553-6 / 85. 5. 15 / 부천시십곡동87-6

△정충조회원 / 대진건축설계사무소 / 강서구신월동491-18 / 85. 5. 25 / 부천시 원미동72-3

진입 □서울지부=△김홍구회원 / 미래건축연구소 / 마포구신수동54번지 / 718-2380 / 충북

△오형석회원 / 이화건축설계사무소 / 성동구구의동246-14 / 444-0022 / 경기

□경기지부=△추명오회원 / 추명오건축사사무소 / 부천시십곡동87-6 / 63-8007 / 서울

□충북지부=△심호섭회원 / 설성건축설계사무소 / 충북음성읍내대리489-16 / 2-3011, 3783 / 서울

□충남지부=△홍순화회원 / 홍순화건축사사무소 / 천원군직산면삼은리76-145 / 2-4544 / 경기

□전남지부=△박광진회원 / 박광진건축사사무소 / 보성군별교읍별교리625-61 / 4-1696 / 제주

유입 □서울지부=△박대승회원 / 한성건축설계사무소 / 성북구 삼선동5가364 / '85. 8. 22~'85. 9. 29

△심두섭회원 / 한성건축연구소 / 성북구삼선5가315 / '85. 5. 7~'8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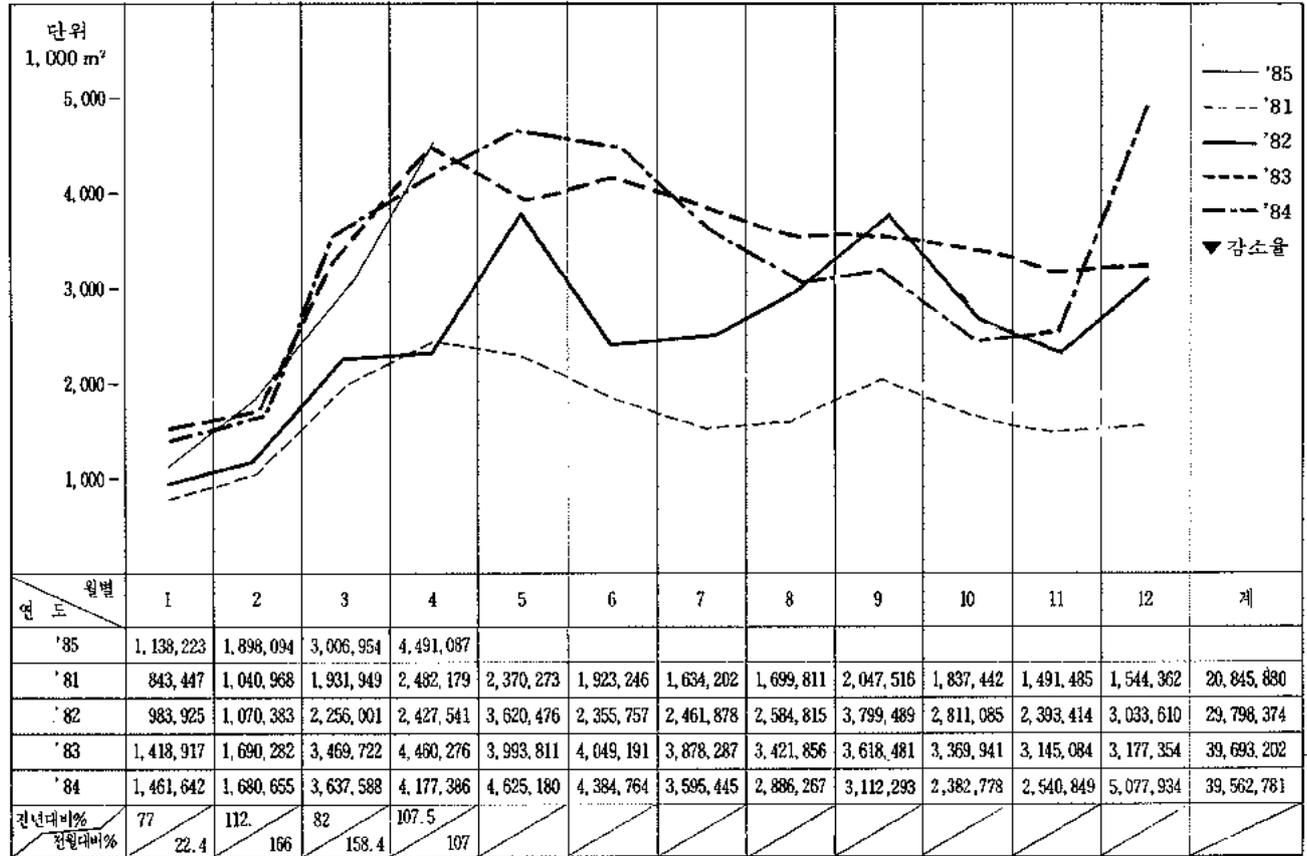
△백학원회원 /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중구을지로3가251-1 / '85. 5. 26~'85. 7. 25

□경기지부=△박상욱회원 / 박상욱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98-22 / '85. 5. 16~'85. 8. 15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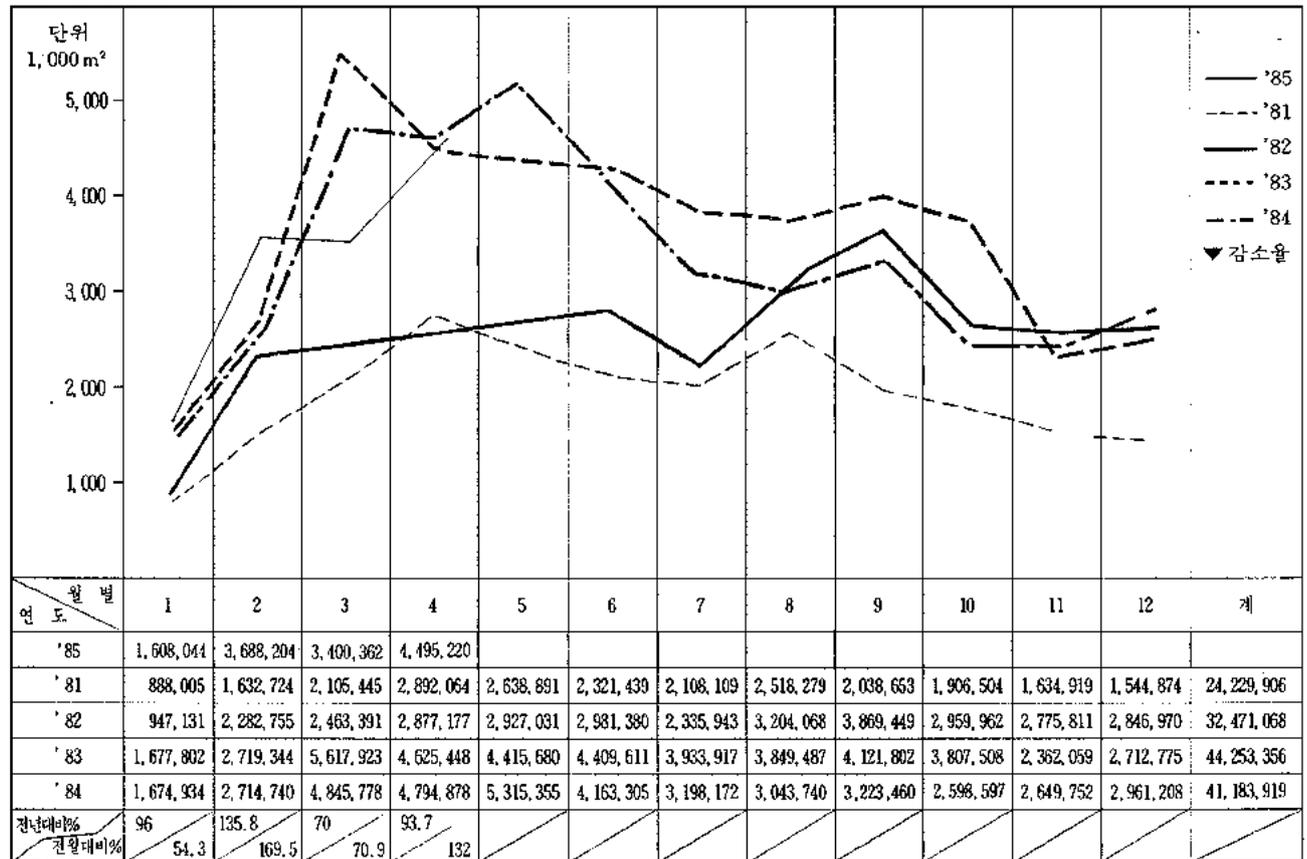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5. 4 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5. 4 월말 현재)



시설공사가격관리자료

(건축공시분야)

본 시설공사 가격관리 자료는 '84년도 조달청 시설국이 발주한 공사중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공사를 발췌하여 이를 비목별, 공종별 단위당 공사비와 건물유형별로 중요자재 소요량 및 소요품수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본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물종류별로 우리 실정에 알맞은 표준 건축물의 기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과도한 고급화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사비 단가 간접통계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집행부서는 본 자료를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조달청에서는 본 자료를 각 수요기관이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 본 자료 공사범위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순건물 공사만임.
- 전기공사비 불포함.
-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 골재가격 환급자재금액은 통일 적용하였음.

주요자재의 소요량 및 구성비

(건축물 종류별 주요자재별)

A: 건축공사비에 대한 비율(%)
B: 자재비에 대한 비율(%)

구	분	단위	일반청사(I)		일반청사(II)		경철		서		국		민		화		교		중·고등학교		대		화		교		우		체		국		아		파		트		평		균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수량	A	B	
1.	시멘트	Ton	1.86	2.10	3.98	0.91	0.61	1.11	2.12	1.97	4.05	1.99	2.66	5.08	2.20	2.68	5.76	2.08	2.08	4.54	1.60	1.52	3.00	1.93	3.08	6.73	1.84	2.09	4.28													
2.	철근	m	0.05	6.45	12.22	0.05	3.96	7.12	0.06	6.40	13.14	0.04	6.80	12.89	0.05	6.61	14.21	0.05	6.29	12.89	0.05	6.06	11.94	0.04	6.81	14.88	0.05	6.17	12.41													
3.	모래	m ³	0.16	0.72	1.38	0.09	0.26	0.48	0.23	0.9	1.84	0.13	0.76	1.46	0.15	0.80	1.72	0.16	0.75	1.55	0.36	1.6	5.74	0.17	1.18	3.68	0.18	0.87	1.74													
4.	자갈	m ³	0.03	0.15	0.28	-	-	-	-	-	-	0.03	0.19	0.38	0.03	0.17	0.37	0.04	0.17	0.35	0.23	0.95	1.84	0.01	0.03	0.06	0.05	0.21	0.42													
5.	감석	m ³	0.07	0.36	0.68	-	-	-	-	-	-	0.05	0.28	0.56	0.07	0.40	0.86	0.02	0.08	0.17	0.05	0.20	0.39	0.00	0.02	0.05	0.03	0.17	0.34													
6.	통나무	m ³	2.52	0.35	0.66	0.62	0.05	0.09	2.55	0.3	0.61	1.88	0.31	0.59	2.00	0.37	0.65	2.08	0.29	0.60	15.11	1.56	3.03	1.70	0.36	0.78	3.56	0.45	0.90													
7.	유송	m ³	13.57	3.03	5.75	11.08	1.39	2.50	18.68	3.06	6.28	10.18	2.68	4.71	14.08	3.38	7.27	13.76	2.97	6.09	24.12	4.20	8.23	15.57	5.05	11.03	15.13	3.22	6.42													
8.	판재	m ²	0.39	0.09	0.18	-	-	-	0.71	0.14	0.29	0.50	0.15	0.28	0.60	0.16	0.35	0.41	0.10	0.21	0.42	0.08	0.16	0.54	0.20	0.43	0.45	0.12	0.24													
9.	라왕	m ²	0.30	0.17	0.32	-	-	-	0.57	0.26	0.54	1.08	0.71	1.36	1.10	0.50	1.08	1.75	0.71	1.44	0.17	0.06	0.12	-	-	-	0.62	0.30	0.60													
10.	판재	m ²	0.01	-	0.01	-	-	-	0.39	0.10	0.21	0.19	0.10	0.20	-	-	-	-	-	-	0.11	0.04	0.08	-	-	-	0.09	0.03	0.06													
11.	합판(12m/4'x8')	m ²	0.34	1.88	3.56	0.33	1.06	1.91	0.46	2.31	4.72	0.43	2.80	5.19	0.37	2.24	4.81	0.38	2.00	4.10	0.43	1.83	3.60	0.43	3.05	6.66	0.40	2.15	4.29													
12.	시멘트벽돌	m ³	94.92	1.64	3.10	43.24	0.45	0.81	120.35	1.50	3.09	71.35	1.46	2.82	96.95	1.81	3.90	122.55	2.01	4.11	100.94	1.39	2.95	38.57	0.95	2.07	86.11	1.40	2.79													
13.	흙은벽돌	m ³	0.77	0.03	0.06	-	-	-	-	-	-	10.62	0.75	1.41	8.29	0.55	1.19	55.70	4.11	8.40	-	-	-	25.54	0.81	1.76	12.62	0.78	1.56													
14.	블록	m ³	-	-	-	-	-	-	-	-	-	3.75	0.63	1.18	1.36	0.23	0.50	-	-	-	3.82	0.41	0.82	11.48	2.72	5.94	2.55	0.50	1.00													
15.	비계	m	0.17	0.14	0.27	0.07	0.03	0.05	0.37	0.20	0.40	0.24	0.24	0.46	0.29	0.27	0.57	0.21	0.17	0.35	0.29	0.18	0.36	0.14	0.18	0.39	0.22	0.18	0.36													
16.	수성페인트	ℓ	0.12	0.07	0.13	0.07	0.04	0.05	0.46	0.31	0.64	0.88	0.89	1.69	0.80	0.70	1.50	0.25	0.19	0.39	0.54	0.19	0.38	0.47	0.54	1.17	0.45	0.37	0.74													
17.	조합	m ³	0.18	0.13	0.24	0.04	0.04	0.07	0.13	0.12	0.25	0.06	0.09	0.18	0.01	0.02	0.05	0.01	0.02	0.03	0.03	0.02	0.05	0.01	0.01	0.02	0.06	0.06	0.12													
18.	유리	m ²	0.20	3.08	5.84	0.16	2.00	3.59	0.2	1.27	2.62	0.50	1.33	2.46	0.43	0.83	1.78	0.22	0.84	1.73	0.05	0.25	0.50	0.42	1.65	3.64	0.27	1.41	2.81													
19.	줄눈	m	0.83	0.12	0.23	-	-	-	1.23	0.12	0.25	1.35	0.18	0.34	1.83	0.23	0.50	1.53	0.19	0.39	0.61	0.07	0.14	0.17	0.03	0.06	0.94	0.12	0.24													
20.	눈스	m ²	0.08	0.20	0.38	0.03	0.10	0.18	0.11	0.05	0.11	0.12	0.10	0.21	0.10	0.09	0.20	0.08	0.06	0.12	0.05	0.14	0.28	0.15	0.16	0.36	0.09	0.11	0.22													
21.	스치로폴스	m ²	0.82	0.80	1.51	-	-	-	0.78	0.58	1.19	0.65	0.84	1.63	0.51	0.87	1.23	0.48	0.57	1.17	0.28	0.35	0.70	0.17	0.20	0.43	0.44	0.49	0.98													
22.	천정	m ²	0.73	1.06	2.00	0.56	0.87	1.57	0.61	0.53	1.08	0.35	0.47	0.90	0.36	0.42	0.92	0.85	0.97	1.91	0.64	0.58	1.14	-	-	0.51	0.61	1.22														
23.	아스타일	m ²	0.44	0.55	1.04	0.55	0.74	1.35	0.08	0.06	0.12	0.01	0.02	0.05	-	-	-	0.17	0.25	0.38	0.40	0.44	0.87	-	-	0.21	0.26	0.52														
24.	메시	m ²	0.48	10.70	20.28	0.59	7.79	14.00	1.04	15.01	30.61	0.42	7.72	13.43	0.46	10.89	23.41	0.50	4.93	21.20	0.34	6.97	13.84	0.41	12.61	27.54	0.53	9.58	19.11													
25.	쉬드방수	m ²	0.51	2.69	5.10	0.51	1.48	2.66	0.31	1.00	2.01	-	-	-	0.14	0.62	1.35	0.14	0.47	0.96	0.30	1.05	2.06	-	-	0.24	0.91	1.81														
26.	폼칼레트	m ²	0.34	1.96	3.73	0.55	0.78	1.41	0.86	5.72	5.65	-	-	-	0.26	1.58	3.44	0.58	1.36	2.78	0.40	0.99	1.96	-	-	0.37	1.55	3.09														
27.	거푸집	m ²	3.05	8.25	15.64	2.93	4.62	8.30	4.66	9.01	18.62	3.17	11.44	21.41	3.15	8.62	18.51	3.45	4.64	9.52	3.65	8.10	15.96	3.81	14.78	32.27	3.48	8.69	17.33													
28.	콘크리트	m ³	0.49	11.95	22.65	0.59	8.51	15.30	1.04	17.65	35.92	0.45	11.08	21.12	0.48	11.28	24.26	0.51	10.53	21.59	0.64	12.48	3.23	0.67	1.06	2.31	0.61	10.58	21.10													
29.	동마	m ²	3.50	1.95	3.69	0.86	0.27	0.49	3.70	1.60	3.30	2.98	1.85	3.91	3.03	1.71	3.68	3.31	0.62	1.27	0.36	1.65	3.32	0.27	2.03	4.45	2.25	1.46	2.91													
30.	외부	m ²	0.51	0.30	0.57	-	-	-	0.86	0.61	1.25	0.71	0.39	0.75	6.97	0.57	1.23	0.76	0.32	0.65	0.27	0.08	0.15	0.84	0.79	1.72	0.62	0.38	0.76													
31.	내부	m ²	0.94	0.43	0.82	0.45	0.15	0.28	0.84	0.40	0.83	0.94	0.60	1.15	0.94	0.57	1.22	0.90	0.17	0.34	0.90	0.41	0.82	1.07	0.44	0.97	0.87	0.40	0.80													
32.	외장	m ²	0.27	2.88	5.43	0.06	0.10	0.18	0.58	2.60	5.27	0.09	0.66	1.46	0.19	1.75	3.70	-	-	-	0.52	3.73	7.36	-	-	0.21	1.47	2.93														
33.	세라믹	m ²	0.11	0.57	1.09	-	-	-	-	-	-	-	-	-	0.12	0.67	1.43	0.10	0.15	0.31	0.11	0.52	1.03	-	-	0.06	0.24	0.48														
34.	모자이크	m ²	0.05	0.27	0.52	0.02	0.18	0.33	0.05	0.25	0.50	0.04	0.28	0.56	0.06	0.35	0.76	0.03	0.07	0.14	0.04	0.22	0.44	0.03	0.23	0.51	0.04	0.23	0.46													
35.	수성페인트	m ²	0.35	0.27	0.52	0.20	0.10	0.18	1.29	0.83	1.71	2.44	2.45	4.64	2.23	2.01	4.33	0.78	0.19	0.39	1.49	0.83	1.63	1.94	1.65	3.60	1.34	1.04	2.07													
36.	조합	m ²	0.56	0.41	0.77	0.14	0.07	0.12	0.64	0.27	0.56	0.21	0.21	0.40	0.27	0.05	0.1	0.03	0.02	0.04	0.09	0.06	0.11	0.02	0.02	0.05	0.22	0.14	0.28													
37.	경량천정	m ²	0.83	2.72	5.16	0.64	0.67	1.21	0.75	1.73	3.54	0.33	1.24	2.33	0.37	1.26	2.69	0.73	2.23	4.58	0.57	1.51	2.97	-	-	0.53	1.42	2.83														

주요노무비 구성비

(건축물 종류별 소요노무품별)

A: 건축공사비에 대한 비율(%)
B: 노임에 대한 격동별 비율(%)

구	분	일반공사(I)		일반공사(II)		검찰서		국민화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우체국		아파트		별		군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1. 인	부	8.36	29.83	7.28	28.43	9.12	28.76	9.50	27.78	9.32	27.46	8.99	28.13	8.19	27.40	9.28	29.93	8.76	28.47		
2. 미	장	2.21	7.90	1.02	3.99	3.01	9.49	3.60	10.53	4.43	13.05	3.11	9.73	2.36	7.90	4.34	12.36	3.01	9.61		
3. 형	목	3.08	10.97	1.53	5.99	2.91	9.18	3.49	10.21	3.47	10.22	2.73	8.54	3.11	10.40	5.14	14.63	3.18	10.15		
4. 건	목	0.81	2.91	0.26	1.01	0.89	2.81	1.08	3.16	0.78	2.30	0.88	2.75	0.52	1.74	0.95	2.70	0.77	2.46		
5. 노	장	1.22	4.36	0.82	3.19	1.48	4.67	1.97	5.76	1.96	5.77	0.84	2.63	0.87	2.91	1.09	3.10	1.28	4.09		
6. 조	공	0.93	3.32	0.56	2.17	0.98	3.04	1.24	3.63	1.32	3.89	1.95	6.10	1.05	3.51	2.19	6.24	1.28	4.09		
7. 철	공	1.08	3.86	0.66	2.59	1.07	3.37	1.09	3.19	1.12	3.30	1.06	3.31	1.04	3.48	1.16	3.30	1.04	3.32		
8. 투	인	0.99	3.53	0.39	1.54	1.01	3.19	0.74	2.16	0.75	2.21	1.42	4.44	1.01	3.38	0.01	0.03	0.79	2.52		
9. 방	부	0.87	3.13	0.45	1.75	1.04	3.28	0.52	1.52	0.50	1.47	0.56	1.75	0.42	1.41	0.86	2.45	0.65	2.08		
10. 비	공	0.47	1.68	1.22	4.76	0.66	2.08	0.85	2.49	0.82	2.42	1.01	3.16	0.50	1.67	0.86	2.45	0.80	2.55		
11. 석	공	0.53	1.87	0.21	0.82	1.02	3.22	0.17	0.50	0.14	0.41	0.94	2.94	1.02	3.41	-	-	0.50	1.60		
12. 기	마	0.27	0.97	-	-	0.36	1.14	0.42	1.23	0.74	2.18	0.46	1.44	0.18	0.60	0.12	0.34	0.32	1.02		
13. 손	마	-	-	-	-	0.04	0.13	0.16	0.47	0.20	0.59	0.13	0.41	0.02	0.07	-	-	0.07	0.22		
14. 타	공	0.66	2.37	0.08	0.30	0.75	2.37	0.48	1.39	0.66	1.94	0.20	0.63	0.82	2.74	0.08	0.23	0.47	1.50		
15. 유	공	0.10	0.36	0.09	0.37	0.38	1.20	0.43	1.26	0.48	1.41	0.35	1.10	0.14	0.47	0.52	1.48	0.31	0.99		
16. 내	공	0.36	1.28	0.25	0.98	0.32	1.01	0.19	0.55	0.13	0.38	0.43	1.34	0.53	1.77	0.46	1.31	0.33	1.05		
17. 운	전	0.06	0.21	0.01	0.05	0.03	0.09	0.01	0.03	0.06	0.18	0.06	0.19	0.21	0.70	-	-	0.06	0.19		
18. 분	사	0.73	2.57	0.36	1.43	0.68	2.14	0.59	1.73	0.63	1.86	0.54	1.69	0.70	2.34	0.68	1.94	0.61	1.95		
19. 기	공	0.01	0.05	0.01	0.03	0.12	0.38	0.12	0.35	0.05	0.15	0.07	0.22	0.22	0.74	-	-	0.08	0.26		
20. 중	공	0.04	0.14	-	-	0.03	0.09	0.18	0.53	0.01	0.03	0.03	0.09	0.14	0.46	0.08	0.23	0.06	0.19		
21. 중	사	-	-	-	-	0.01	0.03	0.01	0.03	0.00	0.01	0.03	0.09	0.01	0.03	-	-	0.00	0.01		
22. 철	공	-	-	2.86	11.19	-	-	-	-	-	-	-	-	-	-	0.38	1.08	0.41	1.31		
23. 철	공	0.24	0.84	3.53	13.76	0.40	1.26	0.18	0.53	0.01	0.03	0.01	0.03	1.99	6.65	0.05	0.14	0.80	2.55		
24. 출	공	0.04	0.16	0.01	0.04	0.05	0.16	0.09	0.26	0.09	0.26	0.25	0.78	0.05	0.16	0.01	0.03	0.07	0.22		
25. 창	공	0.16	0.57	0.02	0.08	0.04	0.13	0.44	1.29	0.45	1.35	0.51	1.59	0.24	0.8	0.04	0.11	0.22	0.73		
26. 샷	공	1.04	3.70	0.62	2.43	0.65	2.05	1.73	5.06	1.35	3.98	0.82	2.57	0.55	1.84	0.07	0.20	0.85	2.71		
27. 아	일	-	-	-	-	-	-	-	-	-	-	-	-	-	-	-	-	-	-		
28. 용	공	-	-	-	-	0.02	0.06	0.01	0.03	-	-	0.00	0.01	-	-	0.02	0.06	0.01	0.03		
29. 배	공	0.02	0.05	0.01	0.03	0.02	0.06	0.01	0.03	0.02	0.06	0.03	0.09	0.03	0.10	-	-	0.02	0.06		
30. 투	공	-	-	-	-	-	-	-	-	-	-	-	-	-	-	-	-	0.	0.01		
31. 합	공	0.02	0.04	-	-	0.01	0.03	0.02	0.06	0.01	0.03	0.01	0.03	0.05	0.16	0.01	0.03	0.02	0.06		
32. 도	공	0.03	0.08	-	-	0.01	0.03	0.02	0.05	0.01	0.03	0.00	0.01	-	-	0.83	2.36	0.11	0.35		
33. 작	공	-	-	-	-	0.02	0.06	0.04	0.12	-	-	-	-	-	-	-	-	0.01	0.03		
34. 포	공	-	-	0.01	0.03	0.34	1.07	-	-	-	-	0.07	0.22	-	-	0.02	0.06	0.06	0.19		
35. 절	공	0.03	0.09	-	-	-	-	-	-	-	-	-	-	-	-	-	-	0.00	0.01		
36. 절	공	0.01	0.05	-	-	-	-	-	-	-	-	0.29	0.91	-	-	-	-	0.04	0.13		
37. 조	공	0.02	0.07	-	-	-	-	-	-	-	-	-	-	-	-	0.06	0.17	0.01	0.03		
38. 파	공	-	-	-	-	0.06	0.19	0.06	0.18	-	-	-	-	-	-	-	-	0.02	0.06		
39. 화	공	-	-	-	-	0.09	0.28	0.13	0.38	-	-	-	-	0.02	0.06	-	-	0.03	0.10		
40. 강	공	-	-	-	-	0.15	0.47	0.16	0.47	-	-	-	-	-	-	-	-	0.04	0.13		
간	공	3.65	13.04	3.34	13.04	3.94	12.43	4.46	13.04	4.43	13.05	4.18	13.08	3.90	13.04	4.40	13.04	4.04	12.97		
계	비	28.04	100.00	25.60	100.00	31.71	100.00	34.19	100.00	33.94	100.00	31.96	100.00	29.89	100.00	33.70	100.00	31.12	100.00		

주요공종의 공사비 및 구성비

(건축물 종류별 주요공종별)

구	분	일반공사(I)		일반공사(II)		경	살	서	국 민 학 교		중·고등학교		대	학	교	우		체		아		파		원	비율(%)	원	비율(%)
		원/㎡	비율(%)	원/㎡	비율(%)				원/㎡	비율(%)	원/㎡	비율(%)				원/㎡	비율(%)	원/㎡	비율(%)	원/㎡	비율(%)	원/㎡	비율(%)				
1.	가	3,853	2.41	1,488	0.55	3,001	1.41	2,893	2.12	3,145	2.10	4,071	2.42	4,183	2.19	2,977	2.09	3,201	1.79								
2.	외	654	0.41	-	-	1,308	0.61	723	0.53	1,204	0.80	1,860	1.07	1,093	0.57	1,218	0.85	1,008	0.56								
3.	내	946	0.59	565	0.21	940	0.46	1,127	0.83	1,161	0.77	1,101	0.65	1,098	0.58	696	0.49	954	0.53								
4.	토	4,029	2.52	19,019	7.04	4,405	1.93	4,481	3.29	2,588	1.74	3,889	2.28	4,595	2.40	208	0.15	5,401	3.03								
5.	콘크리트	23,644	14.80	33,353	12.34	43,508	20.75	20,274	14.89	24,186	16.15	25,304	14.77	34,090	17.81	21,491	15.08	28,231	15.82								
6.	형근	15,975	10.00	16,782	6.21	20,117	9.77	14,273	10.48	16,073	10.73	17,126	9.98	18,336	9.58	12,329	8.85	16,376	9.18								
7.	기	17,383	10.88	16,483	6.10	24,508	11.87	18,689	13.73	18,982	12.68	19,048	11.12	20,983	10.97	22,383	15.70	19,807	11.10								
8.	동바리	4,183	2.62	995	0.37	4,367	2.15	3,461	2.54	3,498	2.33	3,754	2.20	4,318	2.26	3,149	2.21	3,466	1.94								
9.	시멘트벽돌	8,700	5.45	9,018	3.34	10,240	5.06	6,478	4.76	9,077	6.06	9,660	5.64	10,056	5.25	3,844	2.70	8,384	4.70								
10.	벽돌	99	0.06	-	-	318	0.14	1,749	1.28	1,638	1.08	13,652	7.90	-	-	2,379	1.67	2,479	1.39								
11.	블럭	-	-	-	-	-	-	2,185	1.60	811	0.54	-	-	766	0.40	6,272	4.40	1,254	0.70								
12.	타일	8,219	5.15	1,012	0.37	9,634	4.45	2,571	1.89	5,415	3.63	1,488	0.85	11,538	6.03	348	0.24	5,208	2.92								
13.	테라조	606	0.38	-	-	936	0.47	1,700	1.25	2,388	1.59	498	0.30	890	0.46	-	-	885	0.50								
14.	석공	4,686	2.93	3,277	1.21	7,506	3.56	-	-	-	-	3,094	1.80	8,502	4.44	-	-	3,383	1.90								
15.	예체방수	3,786	2.37	2,464	0.91	6,376	3.19	3,227	2.37	3,161	2.10	3,962	2.37	5,502	2.87	4,068	2.85	4,068	2.28								
16.	위트방수	5,585	3.50	5,273	1.95	2,842	1.27	-	-	1,190	0.80	1,098	0.62	2,296	1.20	-	-	2,286	1.28								
17.	목공	2,112	1.32	-	-	2,516	1.36	3,194	2.35	2,016	1.34	5,098	2.92	1,562	0.82	1,800	1.26	2,287	1.28								
18.	천장	1,942	1.22	1,428	0.53	2,435	1.31	792	0.58	1,642	1.09	2,180	1.26	1,407	0.74	-	-	1,478	0.83								
19.	미장	3,653	2.29	2,857	1.06	3,162	1.56	1,219	0.90	1,490	1.00	2,250	1.35	3,661	1.91	4,143	2.91	2,804	1.58								
20.	"	3,950	2.47	4,604	1.70	7,875	3.79	5,771	4.24	7,631	5.10	5,270	3.09	2,701	1.41	9,665	6.78	5,933	3.32								
21.	"	346	0.22	778	0.29	880	0.46	840	0.62	1,545	1.03	583	0.34	430	0.22	324	0.23	716	0.40								
22.	인조석	3,976	2.49	-	-	6,484	3.10	7,197	5.28	8,892	6.94	9,076	5.20	3,622	1.89	1,337	0.94	5,073	2.84								
23.	목재	336	0.21	359	0.13	1,780	0.82	2,223	1.63	658	1.08	2,065	1.20	1,365	0.71	17,069	11.98	3,273	1.83								
24.	알미늄	7,609	4.76	3,268	1.21	4,900	2.42	8,587	6.31	4,353	2.91	5,760	3.34	4,726	2.47	394	0.28	4,950	2.77								
25.	복수	2,853	1.79	4,998	1.85	6,417	3.07	5,724	4.20	8,616	5.76	1,405	0.84	6,267	3.27	10,924	7.66	5,900	3.25								
26.	유리	7,673	4.80	6,657	2.46	4,268	2.10	3,788	2.78	2,707	1.81	4,163	2.42	7,040	3.68	2,906	2.04	4,900	2.75								
27.	수성	549	0.34	377	0.14	2,276	1.12	4,578	3.36	4,033	2.69	1,234	0.74	2,207	1.15	2,551	1.79	2,226	1.25								
28.	조립	941	0.59	255	0.09	424	0.21	384	0.28	94	0.06	65	0.04	188	0.10	29	0.02	298	0.17								
29.	바니쉬	333	0.21	2	-	419	0.21	271	0.20	434	0.29	538	0.30	159	0.08	21	0.01	272	0.15								
30.	폼칠	4,572	2.86	8,274	3.06	6,731	3.51	-	-	3,059	2.06	3,236	1.88	2,026	1.06	-	-	3,467	1.95								
31.	기타	71	0.04	-	-	155	0.07	-	-	147	0.10	-	-	-	-	-	-	47	0.03								
32.	아스탈	2,075	1.30	2,609	0.97	496	0.22	61	0.04	-	-	766	0.46	2,091	1.09	-	-	1,012	0.57								
33.	금속	9,116	5.71	57,424	21.25	3,688	1.98	820	0.60	4,113	2.16	5,122	2.98	5,268	2.75	1,848	1.30	10,925	6.12								
34.	수장	3,235	2.03	11,614	4.30	8,193	3.76	3,427	2.52	949	1.3	10,969	6.38	12,850	6.71	6,024	4.23	7,283	4.08								
35.	칠	-	-	53,312	19.73	-	-	-	-	-	-	-	-	-	-	-	-	-	6,864	3.73							
36.	기타	2,058	1.28	1,715	0.63	3,174	1.63	3,474	2.55	857	0.58	2,137	1.29	5,606	2.93	2,138	1.49	2,645	1.48								
	계	159,748	100.00	270,260	100.00	206,339	100.00	136,181	100.00	149,714	100.00	171,522	100.00	191,422	100.00	142,535	100.00	178,465	100.00								

공사비 및 구 성 비

(건축물 종류별 공사비 비목별)

공 증 별	일반청사(I)		일반청사(II)		경 찰 서		국 민 학 교		중 · 고 등 학 교		대 학 교		우 체 국		이 파 트 (서 민 용)		편	
	원 / m ²	비율 (%)																
I. 단 위 당 공 사 비																		
A. 순 공사비 원가	123,266	77.16	210,547	77.91	158,097	76.53	103,844	76.04	113,843	76.04	131,358	76.58	146,813	76.70	108,789	76.32	137,070	76.80
1. 가 설 공 사	4,044	2.53	1,909	0.56	3,860	1.82	3,433	2.66	3,985	2.66	4,645	2.71	4,681	2.45	3,582	2.52	3,717	2.08
2. 골 체 공 사	50,670	31.72	109,496	40.51	75,261	36.17	47,568	33.84	50,666	33.84	53,680	31.29	63,814	33.34	46,393	32.54	62,194	34.85
가) 토 공 사	2,965	1.86	14,612	5.4	3,241	1.57	3,488	2.57	1,927	1.29	2,922	1.70	3,492	1.82	164	0.11	4,102	2.30
나) 콘크리트공사	18,920	11.84	26,722	9.89	34,112	16.18	16,204	11.92	19,255	12.86	20,140	11.74	27,030	14.12	17,261	12.11	22,456	12.58
다) 철근공사	12,593	7.84	13,295	4.92	16,093	7.83	11,243	8.25	12,644	8.44	13,420	7.82	14,392	7.52	9,750	6.84	12,928	7.25
라) 거푸집공사	13,102	8.20	12,478	4.62	18,564	8.99	14,100	10.36	14,274	9.53	14,419	8.41	15,733	8.22	16,853	11.82	14,941	8.37
마) 등바리공사	3,080	1.94	736	0.27	3,251	1.60	2,533	1.85	2,586	1.72	2,779	1.62	3,167	1.66	2,365	1.66	2,590	1.43
바) 철골공사	-	-	41,653	15.41	-	-	-	-	-	-	-	-	-	-	-	-	5,207	2.97
사) P. C 공사	-	-	-	-	-	-	-	-	-	-	-	-	-	-	-	-	-	-
3. 마 감 공 사	68,562	42.91	99,542	36.84	78,976	38.59	52,843	38.78	59,192	39.54	73,033	42.58	78,313	40.91	58,814	41.26	71,159	39.87
가) 조 직 공 사	6,732	4.21	6,968	2.56	8,053	3.96	8,277	6.10	8,801	5.86	19,480	11.36	9,604	5.02	9,607	6.74	9,690	5.43
나) 방 수 공 사	7,138	4.47	6,010	2.22	6,887	3.33	2,624	1.92	3,188	2.13	4,616	2.69	5,865	3.06	3,004	2.11	4,916	2.75
다) 타 일 공 사	6,362	4.00	769	0.28	7,397	3.42	1,921	1.39	4,120	2.76	1,121	0.65	8,913	4.66	263	0.18	3,861	2.16
라) 테 라 조 석 공 사	4,094	2.56	2,528	0.94	6,337	2.99	6,533	4.80	4,147	2.75	2,726	1.59	7,131	3.73	-	-	4,187	2.35
마) 미 장 공 사	9,125	5.71	6,100	2.26	13,621	6.66	5,675	4.19	12,360	8.29	11,700	6.82	9,338	4.88	12,502	8.77	10,053	5.64
바) 창 호 공 사	9,448	5.91	6,705	2.49	10,138	4.87	12,673	9.29	11,220	7.50	11,163	6.52	9,506	4.96	21,668	15.20	11,565	6.48
사) 유 리 공 사	6,203	3.88	5,395	1.98	3,312	1.63	2,920	2.14	2,071	1.38	3,231	1.88	5,526	2.89	2,083	1.46	3,843	2.15
아) 도 장 공 사	4,934	3.09	6,896	2.56	7,606	3.89	3,846	2.82	5,800	3.88	3,850	2.24	3,541	1.85	1,908	1.34	4,798	2.69
야) 내 장 공 사	12,184	7.63	56,833	21.04	12,349	6.20	5,980	4.39	5,157	3.44	13,815	8.05	13,084	6.83	6,265	4.40	15,708	8.80
자) 기 타 공 사	2,312	1.45	1,338	0.49	3,276	1.62	2,394	1.75	2,328	1.55	1,331	0.78	5,810	3.03	1,514	1.06	2,538	1.42
B. 간 접 노 무 비	5,642	3.66	9,024	3.34	8,536	4.17	6,074	4.46	6,624	4.42	7,151	4.17	7,457	3.90	6,266	4.40	7,122	4.00
C. 산 재 보 령 료 비	701	0.48	1,176	0.43	1,113	0.55	792	0.59	864	0.58	932	0.54	1,003	0.52	816	0.60	932	0.52
D. 경 비	6,494	4.06	11,037	4.08	8,387	4.06	5,535	4.06	6,066	4.05	6,972	4.07	7,735	4.04	5,798	4.07	7,253	4.06
E. 일 반 관 리 비	8,863	5.55	13,907	5.15	11,448	5.55	7,556	5.55	8,703	5.82	9,516	5.55	11,013	5.73	7,908	5.55	9,864	5.53
F. 이 용	14,522	9.09	24,569	9.09	18,758	9.09	12,380	9.09	13,610	9.09	15,593	9.09	17,401	9.09	12,958	9.09	16,224	9.09
건축공사비 합계	159,748	100.00	270,260	100.00	206,339	100.00	136,181	100.00	149,714	100.00	171,522	100.00	191,422	100.00	142,535	100.00	178,465	100.00
관 급 자 재 비	3,381	2.12	1,667	0.62	3,970	1.97	3,637	2.67	4,010	2.67	3,793	2.02	8,734	4.56	3,417	2.99	4,076	2.33
시 멘 트	10,317	6.46	10,711	3.96	13,120	6.40	9,273	6.81	9,913	6.60	10,784	6.29	11,645	6.08	7,711	6.73	10,434	5.96
청 제 미	17,101	10.70	21,056	7.79	31,122	14.78	14,804	10.86	16,311	10.86	17,876	10.45	23,886	2.48	14,383	12.56	19,567	11.18
Ⅱ. 구 상 비																		
가. 차 체 비	84,318	52.78	150,386	55.64	101,194	49.04	63,356	46.52	69,658	46.52	83,686	48.79	97,110	50.74	67,019	47.02	89,591	50.20
나. 노 부 비	44,789	28.04	69,186	25.60	65,439	31.71	46,562	34.17	50,813	33.94	54,823	31.96	57,164	29.89	48,040	33.70	54,602	30.59
다. 경 비 비	7,255	4.54	12,212	4.52	9,500	4.61	6,237	4.63	6,931	4.63	7,994	4.61	8,733	4.53	6,610	4.64	8,184	4.59
라. 일 반 관 리 비	8,864	5.55	13,907	5.15	11,448	5.55	7,556	5.55	8,702	5.85	9,516	5.55	11,013	5.75	7,908	5.55	9,864	5.53
마. 이 용	14,522	9.09	24,569	9.09	18,758	9.09	12,380	9.09	13,610	9.09	15,593	9.09	17,402	9.09	12,958	9.09	16,224	9.09
건축공사비 합계	159,748	100.00	270,260	100.00	206,339	100.00	136,181	100.00	149,714	100.00	171,522	100.00	191,422	100.00	142,535	100.00	178,465	100.00
설 비 공 사	46,255		72,120		35,560		16,922		34,338		41,725		25,830		17,185		32,492	
총 계	206,003		342,380		241,899		153,103		184,052		213,247		217,252		159,720		210,957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示會出品作公募

本協會는 會員의 建築設計 技術向上을 도모하고 一般의 건축에 대한 理解를 높이기 위해 建設部 후원아래 매년 會員建築設計作品展示會를 개최하고 있으며 今年은 특히 本協會의 創立20周年이 되는 해임에 따라 創立20周年紀念事業의 일환으로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示會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展示會는 創生日인 10월 23일을 기해 개막, 신죽 建築士會館의 A展示室과 B展示室을 활용, 1개월간 서울에서 개최한 다음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수원, 인천, 춘천을 巡廻하며 86년 4월 11일까지 展示할 계획입니다.

本協會創立20周年紀念事業에 적극 참여해 주심과 아울러 本展示會가 우리 나라 建築文化를 先導하는 造形創造藝術人의 矜持를 발산하는 誇示의 場이 될 수 있도록, 全會員으로부터 수준 높은 作品의 応募를 기대하오니 다음을 참작, 적극 出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출품요령

1982년부터 1985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판넬제작 방법

1. 판넬크기 / 90cm×90cm(가로×세로)
2. 제작요령 / 판넬에 기재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유리, 스티로폼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 禁).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판넬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판넬수량
1 작품당 3개 이내
4. 공통사항
판넬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판넬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사진·도면·설계개요·인물사진을 8월 30일까지 제출(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 판넬은 9월 30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大賞(1) 建設部長官賞
- 最優秀賞(1) 協會長賞
- 優秀賞(2) 協會長賞
- 獎勵賞(6) 協會長賞

• 기타유의사항

1. 展示會에 出品한 作品만이 施賞對象이 됨.
2. 論文部門 施賞對象은 會誌에 게재된 會員執筆論文에 限함.
3. 제출처 및 문의처
本協會 技術部, 出版事業部
(581-5711, 5712, 5713, 5714)